



참여|협력|영광

서울대 총동창신문

개학 1895년
통합개교 1946년
창간 1976년 4월 24일

www.snu.ac.kr

[월간 제550호] 2024년 1월 15일

02 신년사
김종섭 회장·유홍림 총장

04~05 응답하라 1994
입학 30주년 맞는 94학번에 묻다

06 5억 쾌척 이승준·이정원·이승익 동문 형제
“모교 덕분에 성장, 갚는 것 당연”



19 김형오 전 국회의장
선거의 해, 선택은 국민의 몫이다

인간 창의력 넘는 로봇 기술 CES 혁신상



1월 9~12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4에서 모교의 우수 기술이 전시된 SNU관을 배경으로 유홍림 총장과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찍었다. 사진=모교 홍보팀

CES 2024에 SNU관 마련

7개 기업 AI·로봇기술 선보여

1월 9~12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첨단 테크 전시회 ‘CES 2024’에서 모교 기업과 동문 기업이 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로봇 설계 소프트웨어 기술로 혁신상을 받은 ‘아이디어오션(대표 김중호)’과 로봇 손가락 의수로 최고 혁신상을 받은 ‘만드로(대표 이상호)’다.

모교는 이번 CES에 ‘SNU관’을 설치해 모교 기업과 연구실의 우수 기술들을 선보였다. SNU관에 참여한 아이디어오션은 로봇·기계 장치 운동의 핵심인 메커니즘을 자동설계하는 소프트웨어 ‘메테우스(METHEUS)’를 소개해 AI 부문 혁신상을 수상했다. 세계 최초로 메커니즘 자율설계 기술 알고리즘을 개발한

김윤영 모교 기계공학부 석좌교수 연구실의 기술을 기반으로 2023년 7월 설립했다.

아이디어오션은 사람이 일일이 CAD 프로그램을 통해 설계하던 방식과 달리, 자체 개발한 소프트웨어에 설계 요구조건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인간의 창의력을 뛰어넘는 로봇과 기계 장치의 설계가 가능함을 내세운다. 줄기세포와도 같은 단일 모듈(SBM, Stem Bar/block Mechanism)을 이용한 소프트웨어를 통해 최적의 로봇 및 기계장치로 분화시킬 수 있는 모델을 이용해 소프트웨어에 탑재했다. 김윤영 교수가 기술교문을, 김 교수 연구실에서 박사과정 중인 김중호씨가 대표를 맡았으며 모교와 한양대 출신 석·박사 엔지니어가 함께 일한다.

만드로는 모교 컴퓨터공학부 박사 출신 이상호 동문이 창업한 장애인보조기기 전문기업이다. 이번 CES에 부분 손 절단장애인을 위한 로봇 손가락 의수 ‘마크 7D(Mark 7D)’를 출품해 노인

및 접근성 부문 최고 혁신상을 수상했다. SNU관이 아닌 통합한국관으로 참가했다.

이상호 대표는 2015년부터 3D 프린팅을 활용한 전자 의수 개발을 시작했다. CES에 출품한 마크 7D는 남아있는 손가락 신경의 작은 신호를 인공지능이 읽고 움직이는 방식으로, 손가락 내에 고속 회전과 정밀한 회전 제어가 가능한 브러시리스 모터와 감속기, 컨트롤러, 관절 구조를 내장했다. 구동 메커니즘을 2단계로 분리해 인체 비례에 맞게 관절 구조를 설계할 수 있고, 손가락 길이, 악력, 구동 속도 등을 맞춤형으로 수정할 수 있어 손가락부터 어깨까지 다양한 손 절단 범위를 보조한다. 무게가 200g으로 가볍고 충전과 탈착이 쉽다는 점, 기존 전자 의수의 20분의 1에 불과한 가격도 호평 받는 요소다.

이번 SNU관을 통해 총 7곳의 모교 기업이다양한 로봇과 인공지능 기술을 선보였다.

>>12면에 계속

새해의 꿈

유자호 (불어교육68-75) 한국시인협회장

히말라야, 알프스, 킬리만자로의 만년설에도
서울, 뉴욕, 파리의 화려한 도심에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치참한 전쟁터에도
차별 없이 새해는 왔다.

새해는 버려지는 아기가 없기를,
태어난 다음 날 베이비 박스
자신의 운명을 아는 것처럼
물려주는 고무젖꼭지도 마다하고 밤낮을 울다
어디로 안겨 갔는지
사라지는 아기가 이 땅에 없기를

정관 수술받으면 하루 예비군 훈련을 감해주던
무지한 조국
생명이 귀한 줄을 몰랐으니
생명을 그렇게 천대했으니
이 땅에 우케 태어난 고마운 후손들에 의해
인구 감소라는 벌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새해는 폭격으로 죽어가는 시인이 없기를,
노래하는 카나리아처럼 평화를 염원하는 시를 쓰다가
가족과 함께 폭사한 팔레스타인의 시인과 같은 비극이
다시는 세상에 나타나지 않기를,

새해는 우리가 사는 터전인 지구를 살리는
원년이 되어주기를,
인류의 지혜가 인류를 살리는 일에 모여져
저 무서운 환경 파괴 행위들을 멈추고
부활의 연대가 시작되기를

새해는 말이 평화롭기를
폭력이 사라지기를,
남이 변화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내가 먼저 변하는 나의 해가 되어주기를
그리하여 꿈을 이루는 세상이 되어주기를,
한반도 남부에 가득한 빛이
한반도 북부의 어둠까지 밝혀주기를

아, 끝없는 우주.
새해는 우주의 시간을 살아가는 눈을 뜨기를.



별지부록 : 장학금 기부 참여 신청서

관악춘추

‘진리는 나의 빛’ 로고 교체 어떤가



임석규
언어84-91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본지 논설위원

‘진리는 나의 빛(Veritas Lux Mea)’이란 문구를 모르는 서울대인은 없을 것이다. 펜과 햇빛, 월계관 문양과 함께 펼쳐진 책의 양쪽에 새겨진 서울대 모토 얘기다. 유홍림 서울대 총장이 이 고답적인 라틴어 문구에 의미를 제기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유 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고개가 끄덕여졌다. 유 총장은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도 이 의견을 공식화했다.

“이 시대에 맞는가.” 유 총장의 의문은 여기서 시작됐다고 했다. 문구에 담긴 이성 중심 교육관, 개인주의적 세계관으로 지금 같은 불확실성 시대, 정답이 없는 혼돈의 시

대를 헤쳐나가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거다. 이 문구에선 어떤지 고립무원의 상아탑에 틀어박혀 면벽 수행하는 장백한 중세 수도사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끝없이 생성, 변형하는 세계에서 절대불변의 진리 추구가 가능한지도 의문이다. 그렇지 않다는 걸 과학 발전의 역사가 웅변한다.

유 총장은 펼쳐진 ‘책의 페이지를 넘기자’고 제안했다. 책의 왼편에 ‘진리는 나의 빛’이란 문구를 살리고, 오른쪽엔 새로운 가치를 추가하자는 거다. 구체적 문구도 내놓았다. ‘아펙투스 클라모르 노비스(Affectus Clamor Nobis), ‘열정은 우리의 합성’이란 의미다. ‘진리와 열정’의 병립에, ‘나의 빛과 우리의 합성’의 조화이다. 이성과 감성, 나와 우리, 시각과 청각을 두루 아우른다. 물론, 로고, 문양 교체가 쉬운 일은 아니다. 여러 층위에서 다양한 의견 수렴도 필요할 것이다.

서울대는 과거 명성에 안주할 수 있는 처지

가 아니다. 올해 수시모집에서 서울대에 최초 합격한 10명 가운데 1명은 등록을 포기했다고 한다. 수험생 2181명 가운데 228명이니 10.5%다. 대부분이 자연계열 학생인데, 입시 전문가들은 다른 대학의 의대, 치대 등으로 진학한 것으로 풀이했다. 지난해 미등록 비율도 9.4%였으니 일시적 현상으로 보긴 어렵다.

이런 흐름은 서울대가 안고 있는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확실한 미래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서울대 책임만은 아니더라도 꼬인 매듭을 풀어나갈 실마리는 서울대가 마련해야 한다. 차체에 고만고만한 변화가 아니라 담대한 전환을 꾀해 보는 건 어떨까 싶다. 유 총장도 지난해 취임 일성으로 “서울대의 대전환을 이루는 혁신에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다. 시대에 맞게 문양과 로고를 바꾸는 일이 그 첫걸음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동아리 활동·공동체 봉사에도 장학금 확대



김종섭 총동창회장 신년사

재학생과 동문 간 유대도 강화 다양한 문화 강좌 늘려나갈 것

사랑하는 44만 서울대 동문 여러분, 2024년 갑진년의 밝은 해가 힘차게 떠올랐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지난해 총동창회는 많은 동문들께서 보내주신 성원 덕에 많은 성과를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새해에도 ‘보람 있는 동창회, 유익한 동창회, 즐거운 동창회’로서 한층 더 나아가려 합니다. 동문들 간의 친목 도모와 평생 학습의 기회를 공유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모교 발전과 국가와 사회를 위해 기여하는 동창회로 자리 잡겠습니다.

‘보람 있는 동창회’가 되기 위해 총동창회는 새해에도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추진합니다. 산하 사회공헌위원회의 사업을 심화하는 동시에, 협력관계인 모교 글로벌사회공헌단에 예산과 인력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지난해 여름 글로벌 사회공헌단의 라오스 공헌활동에 동문들이 참여한 데 이어, 새해 벽두부터 모교 글로벌사회공헌단의 군산 다문화가정 SNU공헌단 사업에 동문단원들이 참가합니다.

총동창회의 사회공헌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장학사업이 주 목적인 기존 재단법인 관악회와 별도로 사회공헌사업을 폭넓게 할 수 있는 공익법인 설립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본회는 튀르키예 대지진 당시 적십자를 통해 구호금을 지원했습니다. 지난 1월 7일엔 총동창회 미주 남가주지부와 함께 ‘국제난민 구호’ 성금 모금을 위한 음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세계 속의 서울대’를 지향하는 모교와 발맞춰 총동창회도 국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작은 손길이나마 내밀 것입니다.

새해 총동창회가 주최하는 음악회와 골프대회는

‘나눔’을 목표로 개최할 것이며, 수익금은 사회공헌 사업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본회 장학사업은 지난해 처음으로 한 학기 20억원 규모를 돌파했습니다. 이제 장학사업의 방향도 서서히 전환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은 성적뿐만 아니라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재학시절 리더십을 함양하고 공동체에 봉사하는 리더들을 발굴해 지원하고 있으며, 새해엔 다문화가정 출신 재학생까지 확대됩니다. 이를 통해 학창시절부터 봉사와 사회공헌의 가치를 심어주고자 합니다.

‘유익한 동창회’로서 총동창회는 현재 조찬포럼, 수요특강, 관악경제인회 포럼 외에도 문화강좌와 젊은 동문들을 위한 ‘자녀 교육과 진로 선택’ 강좌나 특강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동문 전용 쇼핑몰인 ‘Mall SNUA’는 동문들을 위해 특화된 상품들로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것입니다. 기존의 국도문화기행, 등산대회, 바둑대회 등 취미와 함께 ‘즐거운 동창회’를 만드는 데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재학생과 동문 간 유대도 강화됩니다. 예비 동문인 재학생들이 총동창회 행사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여 연대감을 강화하고, 홈커밍데이 등 동창회 행사는 재학생과 동문들이 함께 어울리는 장으로 조성됩니다.

올해는 청룡의 해라고 합니다. 동양에서 용은 정의롭고 영험한 존재로서 수행을 통해 고결한 정신을 갖고 닦거나 선행을 쌓아 승천의 꿈을 이룬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최고 지성인으로서 서울대인의 위상은 ‘승천하는 용’처럼 타인을 위해 사회적 책무를 다할 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총동창회가 동문들의 사회 공헌 활동과 함께 모교 후학들의 인성 도야와 봉사 활동을 지원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서울대 동문은 이미 각자의 위치에서 활약

하면서 사회 발전을 이끌고 있습니다. 총동창회는 서울대인이 더욱 더 우리 사회의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대내외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상서로운 청룡을 닮아 기운차고 복된 한 해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캠퍼스에 혁신생태계 자리잡는 해



유흥림 모교 총장 신년사(요지)

학부대학·첨단융합학부 추진 서울대 종합화 50년 준비할 것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늘을 향해 솟구쳐 오르는 청룡처럼, 우리 모두 힘찬 기백으로 역동적 발전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지난해 취임하며 서울대의 대전환을 이루는 혁신에 헌신하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하는 오늘, 우리 대학이 과감히 나아가야 할 방향을 그리며 다시 각오를 다집니다.

저는 우리 대학의 최우선 과제가 ‘교육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확실하고 급변하는 시대에 능동적으로 미래를 개척하는 창의적 인재를 길러낼 수 있어야만 서울대학교의 존재 이유를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학이 추진하고 있는 ‘학부대학’ 설립은 그동안 관성적으로 유지해 온 대학 내 칸막이들을 걷어내고, 미래 사회에 필수적인 공통핵심·융복합 역량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내년 3월부터 우리 학생들이 새로운 교육과정을 통해 내실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올해 출범하는 첨단융합학부도 이러한 지향 속에서 운영되고 발전할 것입니다. 학부대학과 첨단융합학부가 기초교양 교육뿐 아니라 전공역량 강화와 학문후속세대 양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대학의 ‘교육 혁신’을 위한 노력이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과 우리 사회의 호응을 얻고, 그 성과가 더 큰 신뢰와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구에서 우리 대학은 인류가 당면한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 역량을 한층 더 높여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글로벌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산-관-학 융복합 연구 플랫폼을 발전시키는 등 다양한 도전을 통해 연구 역량의 발전을 이루어왔습니다. 새해에도 이러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보다 더 구체적이고 폭넓은 성과를 거둘 것입니다. 또한 새해에는 서울대의 행정조직

과 운영방식,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일에도 본격적으로 착수하겠습니다. 교육과 연구, 사회공헌 등 대학의 핵심 활동이 활력을 얻고 도약하려면 이를 뒷받침하는 행정 역량의 제고가 필수적입니다.

2024년은 한 해 뒤에 다가올 서울대 종합화 50주년을 착실히 준비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1975년 관악캠퍼스로 이전하면서 시작된 종합화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수행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서울대 내 다양한 학문영역들이 자기중심주의를 넘어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때 서울대는 비로소 명실상부한 종합대학으로, 세계의 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잘 알려진 과학 이론 중 하나로 창발성(emergent property) 이론이 있습니다. 하부 단위 구성 요소들의 합으로만은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특성이 하부 구성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상위의 체계 수준에서 발현된다는 이론입니다. 학제를 초월한 교육과 연구가 가능한 종합대학교인 서울대학교는 혁신과 도약의 창발성이 발현할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의 생태계입니다. 다학제적 교육과 공통핵심역량 교육의 확대, 학부대학의 설립, 글로벌 융복합 연구 플랫폼 구축, 유연하고 기민한 행정지원 체제로의 전환은 서울대학교가 창발성을 구현하고 고등교육과 연구 생태계 전환을 일대 혁신하는 과업입니다. 우리 모두 서로를 격려하며 이 역사적 여정에 힘찬 발걸음을 내딛읍시다.

저와 우리 서울대 구성원 모두가 현재 우리의 위치에 대해 성찰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명예로운 위상이 시대와 사회의 변화를 선도하며 명실상부하게 일구어낸 것인지, 혹여나 그저 관행으로 물려받은 유산은 아닌지 성찰해 봅시다. 우리의 반성은 올바른 시대적, 사회적 소명을 찾아가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지성의 용기에 대해서도 생각해 봅시다. 참된 지성은 질문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질문이 답을 추구하는 열망이라면, 용기는 답으로 얻어진 가치를 우리의 삶 속에 실현하는 힘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질문과 성찰을 통해 발견하는 가치와 대의를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으로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며 미래의 도전에 당당하게 맞서 나갑시다.

서울대 캠퍼스의 교육과 연구의 장에 ‘혁신 생태계’가 자리 잡는 2024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지혜와 역량을 모읍시다. 새해에도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시기를, 또 각자의 자리에서 큰 성취를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구독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KITIS는 2024년 새해에도

4차 산업혁명 시대 R & D를 위한

필수 구독 자료인 ASTM, IEEE, SAE의 우리나라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4년 새해 元日

KITIS산학연정보(주) 임,직원 일동



키티스 産學研情報(株)

KITIS Info. & Co., Ltd.

김종섭 회장 재추대하기로 의결



1월 9일 열린 회장추대위원회 2차 회의에서 김종섭 현 회장을 차기 회장 후보자로 초빙하여 추대하기로 의결했다.

회장추대위원회 2차 회의

서울대학교총동창회 회장 및 감사 선출을 위한 회장추대위원회(위원장 임현진)는 1월 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차 회의를 열고 김종섭 현 회장을 차기 회장 후보자로 추대하기로 의결했다.

작년 12월 1~10일 본회 홈페이지에 공고한 회장 후보 공모에는 한 사람의 지원자나 추천자도 없어 이날 회추위는 위원회 규정에 따라 김 회장을 회장 후보자로 초빙하여 추대키로 전원일치로 의결한 것이다.

또 회추위는 감사 후보 공모에 신청한 과수근, 김영갑 현 감사를 역시 차기 감사후보자로 추대하기로 의결했다. 차기 회장 및 두 감사 후보자는 오는 3월 15일 열리는 상임위원회에서 승인을 받고 이어 3

월 29일 개최되는 정기총회에서 인준을 받으면 차기 회장 및 감사로 확정된다. 차기 회장 및 감사의 임기는 4월 1일부터 2년이다.

회추위는 회장 및 감사 후보자의 추대가 의결되면 추대위원들의 명단을 공개키로 한 1차 회의(작년 11월 28일) 결정에 따라 오른쪽과 같이 명단을 공개한다.

회장추대위원회는 위원회 규정 제2조(위원회 구성)에 따라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 가운데 12명 △단과대 및 대학원 동창회장들이 호선하는 12명 △서울대총장이 지명하는 3명으로 구성된다. 또 규정 제5조(위원회의 운영)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총장이 추천하는 3명 가운데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다.

제30대 회장추대위원회 위원 명단

*위원장, 부위원장 외 이름 가나다 순

구 분	성 합	직 합	비 고
위원장	임현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	
부위원장	조소용	전 한국TV홈쇼핑협회 회장	총장 추천
위원	박식순	KS그룹 회장	
위원	김 정	상임부회장	회장 추천
위원	김형진	상임부회장	
위원	안양옥	상임부회장	
위원	안창영	상임부회장	
위원	유인수	부 회장	
위원	이경형	상임부회장	
위원	이선진	상임부회장	
위원	이용식	상임부회장	당연직 부회장 호선
위원	이우중	상임부회장	
위원	정귀열	부 회장	
위원	천경준	상임부회장	
위원	최규팔	부 회장	
위원	강태웅	국제대학원 동창회장	
위원	권영길	미술대학 동창회장	
위원	김기병	행정대학원 동창회장	당연직 부회장 호선
위원	김판기	보건대학원 동창회장	
위원	서병륜	농업생명과학대학 동창회장	
위원	이규석	사범대학 동창회장	
위원	전의찬	환경대학원 동창회장	
위원	정상철	치과대학 동창회장	
위원	정진섭	공과대학 동창회장	
위원	정혜원	생활과학대학 동창회장	당연직 부회장 호선
위원	한규섭	의과대학 동창회장	
위원	허 영	간호대학 동창회장	

* 당연직 부회장: 단과대학 및 대학원 동창회 회장

사회공헌위 공동위원장에 이선진·박식순 동문

변주선·류 진 고문 추대도

본회 사회공헌위원회(공동위원장 변주선·류 진)가 작년 12월 15일 호암 교수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선진(농가정69-73) 적십자 여성 봉사 특별자문과 박식순(농업교육77-81) KS그룹 회장을 만장일치로 신임 공동위원장에 선임했다. 선임 소감에서 이선진 위원장은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지혜를 짜내겠다”고 말했고, 박식순 위원장은 “2024년 1월 중 사회공헌 기금으로 1억원을 출연하겠다”고 약속했다.

변주선(영어교육60-64)·류 진(영문78-83) 전 공동위원장은 고문으로 추대됐다.

변주선 고문은 “이회범(전자공학67-71) 총동창회 명예회장님이 사회공헌위원회 첫 발족 때 역할을 많이 하셨다. 총동창회가 사회공헌에 박차를 가하려고 노력했는데 여러 가지 법규정과 제도의 벽에 부딪혀 뜻하는 만큼 큰 역할을 하진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후배들에게 조직을 넘겨준다는 게 기분 좋은 일은 아니지만, 고문으로서 주어진 몫을 하면서 사회공헌위원회가 더 큰 단체로 발



작년 12월 15일 사회공헌위원회 기념사진. 왼쪽부터 본회 김동규 사무차장, 송우엽 사무총장, 사회공헌위원회 이선진 신임 위원장, 허영·김태균 위원, 변주선·류 진 고문, 박식순 신임 위원장, 본회 김인규 수석부회장, 이경형 상임부회장, 신계용·임현진 위원.

전할 수 있도록 작게나마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류 진 고문도 “도움이 되는 일은 뭐든지 하겠다”고 약속했다.

사회공헌위원회는 관악회와 연계해 △동문과 함께하는 라오스 SNU 공헌단 △글로벌 SNU공헌단 △지역 사회 SNU공헌단 △SNU멘토링사업

△사회공헌아카데미 △저소득층 학생 장학금 지원 △장학금을 통한 서울대 동문 자녀 지원 등을 할 예정이며, 본회와 연계해 △적십자 등 관련 기관을 통한 어려운 이웃 돕기 △서울대 재학생 천원의 식사 지원 △형편이 어려운 서울대 동문 지원 등을 할 예정이다.

나경태기자

총동창회, 운동부에 2000만원 장학금

‘제10회 서울대학교 체육인의 밤’이 작년 12월 15일 관악캠퍼스 종합체육관에서 열렸다. 이날 교내 37개 운동부 재학생 및 졸업생 200여 명과 전현직 지도교수, 모교 김성규 교육부총장, 유준희 학생처장, 박일혁 스포츠진흥원장, 본회 김인규 수석부회장과 송우엽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박재민(체육교육02-10) 동문이 진행한 이날 행사에서 스포츠진흥원과 운동부가 활동보고를 했다. 스포츠진흥원은 올해 교내 체육대회와 건강운동강좌, 교내 건기대회 등을 운영하며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다. 운동부는 2001년 27개 부, 부원 687명에서 현재 37개 부, 부원 1261명으로 2배 증가했고, 올해 2억원의 발전기금을 모았다.

본회도 올해 운동부에 총 2000



제10회 서울대학교 체육인의 밤 전경.

만원을 지원했다. 이날 최우순 동부로 선정된 배드민턴부에 김인규 수석부회장이 상금 200만원을 전달했다. 모범운동부원으로 뽑힌 여자농구부 아래은(체육교육21입) 학생 외 9명도 본회에서 전달한 장학증서를 받았다. 우수운동부로 뽑힌 여자배구부와 여자축구부는 진흥원이 상금을 지원했다. 졸업 예정 학생들의 운동부 활동을 돌아보고, 무용부는 축하공연을 펼치는 등 모교 체육인들 간에 친교를 다졌다. 김남주기자

학군사관후보생 위문 간담회



작년 12월 22일 동계입영 훈련 출정식 후 기념사진. 후보생들은 4주간 입영 훈련을 받는다.

본회가 모교 학군단 동계입영 훈련 출정식에 앞서 관악캠퍼스 호암교수회관에서 학군사관후보생 위문 간담회를 열었다. 작년 12월 22일 열린 이번 간담회엔 송우엽(체육교육79-83) 본회 사무총장, 김성규(국문81-85) 모교 교육부총장, 고동운 101 학군단장, 김용혁 선임교관, 김영길 군사학 교수와 후보생 26명이 참석했다.

모교 학군단은 작년 여름 하계입영 훈련 때 최우수 학군단으로, 모교 학군단 62기 연지협 후보생은 지(智) 분야 모범 후보생으로 육군학생군사학교장의 상장을 받았다.

모교 학군단은 작년 64기 모집 때 20

명 정원을 꼭 채워 선발했으나 6명이 이탈하면서 14명이 입단했다.

송우엽 사무총장은 “저뿐 아니라 본회 회장인 김종섭 회장님과 이경형 상임부회장님도 ROTC 출신”이라며 “최고의 인재답게 건강하게 교육 잘 받고 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간담회 후 출정식에서 김성규 교육부총장은 “맹추위에 받는 교육 훈련은 힘들 수밖에 없지만, 고된 훈련 속에 더 강한 ROTC 후보생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동계입영 훈련은 작년 12월 26일부터 올해 1월 19일까지 A조, 올해 1월 15일부터 2월 8일까지 B조로 나뉘어 4주간 진행된다.

2024년 총동창회 행사 캘린더

문의 : 02-702-2233

2월

수요특강

일 시 : 2월 28일 (수) 오전 7시 30분
장 소 : SNU 장학빌딩 2층 베리타스홀 (공덕역 8번 출구)

강연자 및 주제 : 김기현 교수, 인간다움
참가비 : 2만원 (김밥·생수 및 도서 제공)

3월

조찬포럼

일 시 : 3월 14일 (목) 오전 7시 30분
장 소 : 플라자호텔 LL층 그랜드볼룸
강연자 및 주제 : 미정

정기총회 및 관악대상 시상식

일 시 : 3월 29일 (금) 오후 6시
장 소 :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볼룸(소공동)

4월

국토문화기행

일 시 : 4월 12일 (금) 오전 9시
집합장소 : 2·9호선 종합운동장역 7번 출구

수요특강

일 시 : 4월 24일 (수) 오전 7시 30분
장 소 : SNU 장학빌딩 2층 베리타스홀
강연자 및 주제 : 강창희 대표

5월

모교 발전을 위한 나눔골프대회

일 시 : 5월 13일 (월)
장 소 : 텍스필드

가죽음악회

일시 및 장소 : 5월 23일 (목) 오후 7시 30분
장 소 : 롯데콘서트홀
지 휘 : 금나세 음악감독

6월

등산대회

일 시 : 6월 5일 (수) 오전 10시
산행지 : 미정

조찬포럼

일 시 : 6월 13일 (목) 오전 7시 30분
장 소 : 플라자호텔 LL층 그랜드볼룸
강연자 및 주제 : 미정

7월

바둑대회

일 시 : 7월 7일 (일) 오전 9시 30분
장 소 :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제3식당 (75-1동)

8월

수요특강

일 시 : 8월 28일 (수) 오전 7시 30분
장 소 : SNU 장학빌딩 2층 베리타스홀
강연자 및 주제 : 미정

9월

조찬포럼

일 시 : 9월 12일 (목) 오전 7시 30분
장 소 : 플라자호텔 LL층 그랜드볼룸
강연자 및 주제 : 미정

국토문화기행

일 시 : 9월 26일 (목) 오전 9시
집합장소 : 2·9호선 종합운동장역 7번 출구

10월

홀커밍데이

일 시 : 10월 20일 (일)
장 소 : 서울대 관악캠퍼스 일대

11월

등산대회

일 시 : 11월 7일 (목) 오전 10시
산행지 : 북한산

조찬포럼

일 시 : 11월 14일 (목) 오전 7시 30분
장 소 : 플라자호텔 LL층 그랜드볼룸
강연자 및 주제 : 미정

12월

수요특강

일 시 : 12월 18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SNU 장학빌딩 2층 베리타스홀
강연자 및 주제 : 미정

동창회 모든 행사는 평생회비 또는 2024년 연회비를 납부하신 분에 한해, 참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각 행사에는 소정의 참가비가 있습니다. 조찬포럼 5만원, 수요특강 2만원, 국토문화기행 5만원, 등산·바둑대회 2만원

입학도 졸업도 힘들었지만...

입학 30주년 맞는 1994학번에게 듣다

‘서울대 94학번’ 되기 참 고됐다. 한 해 두 번이나 수능을 본 ‘수능 1세대’에, 본고사까지 치렀으니. 졸업할 때쯤 불어닥친 IMF 칼바람은 서울대생도 두렵긴 마찬가지였다. 그 래도 곳곳이 이겨내 지금은 우리 사회 허리 역할 톡톡히 하고, 대학가의 낭만을 향유했 던 마지막 세대로 부러움도 듬뿍 산다. 이 들의 입학 30주년을 맞아 본지가 ‘응답하라 1994’를 외쳐봤다. 1994년 당시 기준 16개 단과대학에서 1명을 선정해 서면으로 아래 와 같은 공통 질문을 제시하고 답을 청했다. 다수의 동문에게 요청했으나 응답이 없었던 2개 대학은 제외했다. 정리=나경태·박수진 기자

공통 질문

1. 근황
2. 입학 30주년 소감과 대학시절 추억
3. 요즘 고민
4. 새해 소망

아침 7시에 도서관 자리 경쟁 생생



김지현 (불문94-98)
미네르바 프로젝트 차장

미네르바 대학(Minerva University)의 커리큘럼과 교육 플랫폼을 개발하는 미네르바 프로젝트(Minerva Project)에서 아시아 및 중동 대학 혁신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대학혁신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목표 달성은 쉽지 않다. 클라이언트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대학들이 각각 보유한 기존 인프라와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혁신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체계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켄텍), 아랍에미리트의 자이예드 대학교, 그리고 일본의 최고 명문대학 등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학창시절 연년생인 언니(93학번)와의 등굣길 이 기억에 남는다. 오전 7시에 등교했는데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도서관 자리까지 경쟁하며 계단을 전력 질주하는 교우들을 보면서 역시 서울대생은 다르구나, 생각했었다. 같이 뛰어 올라갈 엄두는 나지 않았지만 매일 같은 시간에 꾸준히 계단을 올라 제4열람실에 도착해 수업 준비와 과제를 하던 기억이 난다. 많은 가르침을 주셨던 교수님들과 교우들에게 감사하다.

AI의 급부상으로 교육계도 기대와 고민이 많다. 좁게는 AI로 격변할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어떻게 양성할지, 넓게는 더욱 빠르게 변해갈 세상에서 행복하게 생활하면서 사회적 난제들을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구성원들을 어떻게 길러낼지 고민한다.

크게는 인류가 협력을 통해 분쟁을 중단하고 글로벌 이슈들을 함께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 작게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성과가 계속해서 창출되고, 에듀테크 스타트업 꿈나무도 많이 발굴해서 키워갈 수 있으면 좋겠다.

학장배 축구대회 우승 신났다



심재현 (자연과학94-00)
서울앞선치과 원장

모교 화학과에서 학사 및 석사 학위까지 받았지만, 2005년 모교 치의학대학원에 다시 입학해 지금은 개원 13년차 치과의사로 일하고 있다. 또 한 화학전공을 살려 ‘퀴림바이오’라는 회사를 창업해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다. 퀴림바이오는 비만·아토피 치료제, 슈퍼항생제, 치매치료제 등 신약개발을 하는 바이오기업이다.

상투적인 표현이지만 세월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든다. 그동안 서울대라는 후광을 받고 서울대 동문이 될 수 있었음에 항상 감사를 드리고 있고, 기회가 된다면 학교 발전에도 기여하고 싶다. 재학시절에는 동아리 활동으로 자연대축구부와 화학과축구부 활동을 가장 활발하게 했다. 학장배 축구대회에서 화학과축구부 ‘화랑’이라는 팀 이름으로 출전해 쟁쟁한 수학과를 이기고 두 번 씩이나 우승했을 때 가장 좋았다. 같이 운동하면서 동고동락했던 교우들과 지금도 자주 연락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동기들은 학회를 통해 자주 교류하는 것 같은데, 치과의사를 하다 보니 모임이 있는지 잘 모르는 상황이다. 다행히 2~3년 전 동기 모임 단독방이 생기면서 동기들의 소식을 자주 접하고 있다.

최근 금리가 오르고 자본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경영하고 있는 회사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어떻게 하면 회사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출시한 제품을 잘 팔 수 있을지 고민과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또한 아들이 이제 고2로 진학하는데 아들의 진로문제에 대해 고민이 많다.

새해엔 우선 경영하고 있는 회사의 제품 ‘큐시락토’가 대박이 나기를 기원해본다. 아들이 공부를 잘하길 바라고, 제가 알고 지내는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한다.

کن닝 제로 12시간 무감독시험 떠올라



김재하 (전기공학부94-97)
모교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모교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반도체 집적회로 설계 관련한 연구 및 교육을 하고 있다. 대표 업적으로 집적회로의 설계 검증을 수행하는 ‘XMODEL’이란 소프트웨어 툴을 개발했고, 이를 토대로 ‘Scientific Analog’라는 회사를 2015년에 창업했다.

그 시절에만 할 수 있었던 추억들이 제일 기억에 남는다. 20명씩 단체로 나가 긴 테이블이 놓인 카페에서 수줍게 했던 과 미팅, 녹두거리 ‘태백산맥’이라는 식당에서 김치찌개 안주에 소주를 기울이면서 한 명씩 돌아가며 노래 부르던 개강 파티 등이다. 전자회로 수업 땀 밤새 계속되는 12시간 무감독 시험을 여러 번 보았는데, 처음엔 시험 시간 내내 서로 말도 하지 않다가 나중엔 시험 중간에 함께 야식도 시켜 먹으면서 즐겁게(?) 시험을 봤다. 와중에도 부정행위는 전혀 하지 않을 만큼 순수했다. FPGA라는 기술이 새로 나왔으니 배워야 한다며 겨울 방학 때 특별강좌를 여신 교수님과 그 강좌를 열심히 준비하신 조교님, 우리 캠퍼스는 동물들이 뛰노는 꽃동산이어야 한다며 토끼를 구입해 버들골에 푸신 교수님 등. 써놓고 보니, 새삼 과대표 친구들과 열정적인 교수님, 조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이 든다.

장 지오노의 ‘나무를 심은 사람’ 소설에 나오는 양치기처럼, 작고 소소한 일이라도 꾸준히 해서, 황폐한 들판을 숲으로 바꾸는, 큰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바란다. 다만 그런 일을 누군가와 함께하기를 바라는 것이 비웃음을 사는 경우가 많아 아쉽다.

우리 94학번 동기생들이 항상 건강하고 가정, 직장, 학교 등에서 화목하고 평안한 한 해 보내기를 기원한다.

입시경쟁 조금도 바꾸지 못해 미안



정희원 (불어교육94-99)
조이선교회 부대표

기독교 선교단체인 사단법인 조이선교회의 부대표를 맡고 있다.

마음은 여전히 20대인데, 그 아련한 추억이 벌써 30년이 되었다니 감회가 새롭다. 사범대를 졸업했기 때문에 교생실습을 나갔던 것이 제일 기억에 남는다. 서울사대부고에서 실습을 했었는데 너무 떨렸고, 좋았고, 가슴 뭉클했다. 학생들은 우리를 ‘애기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그 짧은 기간에도 넘치는 존경과 사랑을 보내줬다. 참 뿌듯하고 고마웠던 기억이 난다. 우리 과는 정원이 14명밖에 안 되는 데다 대부분 교사를 하기보다는 다른 직업을 선택해서 뿔뿔이 흩어졌다.

제 딸이 벌써 고등학생이다. 세월은 흘러도 이 치열한 입시경쟁은 제가 대학입학 시험을 치를 때보다 훨씬 더 심해진 것 같다. 30여 년 전 고등학생일 때 저항의 언어가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였었는데, 여전히 그런 사회를 하나도 바꾸지 못한 것 같아서 제 딸에게, 그리고 많은 청년들에게 그저 미안한 마음이다.

새해에는 이 땅의 청년들이 효율과 효능으로 평가받는 삶에서 가치와 존귀함으로 존재를 인정받는, 조금은 더 살맛 나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더불어 서로 다른 이를 향한 반목과 대립이 소통과 상생, 화해로 바뀌기를 소망한다.

합격 확인 순간으로 돌아가고 싶어



주수용 (경제94-02)
미래에셋자산운용 상무

2023년 9월부터 미래에셋자산운용 투자품질운용부문 부문장(상무)을 맡고 있다.

ARS로 합격을 확인했던 순간과 대운동장 벽보에서 이름을 확인한 순간, 기숙사 입소 등 여러 일들이 생각난다. 그 시간들이 벌써 30년 전이라는 게 믿기지 않기도 하고,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처럼 회귀할 수 있다면 다시 돌아가고 싶은 순간이기도 하다. 공부를 잘한 편은 아니었지만, 훌륭한 교수님과 좋은 친구들을 만난 게 제일 큰 추억인 것 같다. 사회과학대학 국제경제 94학번 단톡방이 있고, 과 내 학회(경제사상연구회) 단톡방이 있다. 동기 대표는 따로 없고, 자유롭게 소식 전하고 송년회, 신년회, 번개 등으로 모이곤 한다.

업무 실적에 대한 고민이 있고, 부서 내 직원들과 어떻게 소통을 해야 하나 고민한다. 개인적으로 건강도 좀 안 좋아져 고민이고, 제가 수능을 1993년에 봤는데, 큰아이가 지난해 수능을 봤다. 아이 진로에 대한 고민도 있다.

재작년과 작년에 금융시장이 많이 출렁이면서 쉽지 않았다. 올해엔 좀 안정(?)적인 시장이 되면 좋겠다. 30년 전 함께 입학한 동기들에게 새해 복 많이 갓으면 한다. 그리고, 가족 모두 건강했으면 하고, 각자 바라는 바를 이루었으면 한다.

고춧가루 듬뿍 ‘공강’ 짜장 못 잊어



김은경 (국악94-98)
문학수첩 대표

문학수첩 대표이사로서 출판업을 하고 있다. 문학수첩은 1991년 창립 이래, ‘책으로 전하는 사랑’이라는 모토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해리포터’ 시리즈를 비롯해 댄 브라운의 ‘다빈치 코드’, ‘천사와 악마’, ‘인페르노’와 국내 최초의 무삭제 완역판 ‘걸리버 여행기’를 펴냈다. 그 밖에 국내외 유명 작가들의 책을 출간하고 있다.

설레는 마음으로 대학교에 입학한 지 엇그제 같은데 벌써 30주년이라니. 학교생활을 함께 했던 동기들과의 추억이 그립다. 그 당시 대학 시절에는 무선호출기 빼빼와 쪽지가 유일한 연락 수단이었는데, 공강 시간에 타 단과대학 사무실에 방문해 벽에 친구의 이름을 크게 쓴 쪽지를 붙여 들락거렸던 기억이 새록새록 하다. 수강 신청을 위해 학교 전산실 앞에서 친구들과 밤을 새웠던 기억, 친구들을 기다리기에 제일 편하고 아늑한 장소였던 학생회관 음악 감상실, 선배가 데리고 가 밥을 샀던 ‘공강(공대 강통)’에서 고춧가루 듬뿍 넣고 비빔 자장면 맛을 잊을 수가 없다.

올해 큰딸이 수험생이 된다.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다.

12개월의 행복, 52주의 즐거움, 365일의 성공, 8760시간의 건강, 525600분의 사랑, 31536000초의 기쁨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길 바란다.

인기과목 들으려 전산원 앞 줄서기도



류호석 (경영94-98)
류호석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2011년 사법시험 합격 후 사법연수원을 거쳐 2014년부터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법무법인 소속이었다가 2022년 7월 경기도 의정부지방법원 앞에 ‘변호사 류호석 법률사무소’를 개업했다. 전문분야로 형사법, 행정법을 등록했고, 소년·민사·조세·가사 등 다양한 사건을 맡고 있다.

30년 전엔 인기 과목을 수강하려면 새벽부터 중앙전산원 앞에 긴 줄을 서야 했다. ‘마케팅원론’ 중간고사에 ‘마케팅이란 무엇인가’가 나온다더니, 정말 시험 당일 철관에 ‘도대체 마케팅이란 무엇인가’가 나왔다는 농담(?)이 있었다. 봄이면 경영대에서 음·미대를 지나 자하연까지 이어진 뿔뿔 길을 걸었다. 과 동기가 늘 여자친구를 기다리던 미대 앞 소나무의 별명은 ‘○○소나무’였다. 1994년 경영대엔 237명이 입학해 ‘패기·길벗·한빛·백두’ 4개 반이 있었는데, 내가 있던 ‘길벗’반은 지금도 1년에 두 번 10여 명씩 모인다. 동기들이 뛰어난 성과를 냈단 소식을 들으면 자랑스럽다. 흰머리가 생기고 배도 좀 나왔지만, 모두 마음만은 대학생 때처럼 밝고 힘차다.

슬슬 건강 검진에 질병은 없어도 ‘불건강’, ‘추적 검사 요망’ 항목이 나온다. 지난해 질병으로 유명을 달리한 동기도 있다. 새해엔 운동을 하나 배우고 싶다. 동문 가족 모두의 건강을 기원한다.

“우리 열심히 살았다”

수의대 밴드 ‘제브라’ 멤버였습니다



김소현 (수의학94-99)
해마루반려동물의료재단 이사장

해마루 반려동물 의료재단의 이사장으로, 해마루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1999년 (주)해마루를 설립하고 2000년 국내 최초 사설 이차진료 동물병원인 해마루 동물병원을 개원했다. 이어 ‘참된 생명존중을 바탕으로 최상의 진료, 연구, 교육을 실현하여 동물과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을 만든다’는 해마루의 미션을 실현하고자 2023년 비영리 재단법인 ‘해마루 반려동물 의료재단’을 설립했다. 수의사 30여 명, 직원 총100여 명을 두고 중증복합질환 반려동물 환자 치료, 동물용 의약품·의료기기 임상시험 등을 한다. 최근 공익법인으로 지정돼 은퇴 검역탐지견 의료지원 등 사회공헌사업도 시작했다.

수능 1세대로 2차례의 수능에 본고사까지 치렀던 93년 겨울과, 입학으로 행복했던 94년 봄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다. 당시 수의대는 4년제라 2학년 부터 본과였다. 꿈꾸던 수의대 입학으로 마냥 행복했던 1학년때만 달리 2학년때 많은 공부량에 밤새 시험공부를 하다가 깜빡 잠들어, 조교님의 전화를 받고 헬레벌떡 뛰어갔지만 머릿속이 새하얘져 답을 거의 못써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난다. 힘든 본과 생활은 수의대 락밴드 ‘제브라’ 활동으로 해소했다. 지금도 ‘제브라’ 선배, 동기와 ‘레이니선데이’에서 키보드 담당으로 밴드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24년은 우리 재단이 사회공헌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첫 해다. 더 많은 현역·은퇴 특수목적견 의료지원과 수의대생 장학금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특수목적견 의료센터, 인수공통감염병 관리센터 건립 등을 통한 ‘원헬스’의 실현을 꿈꾼다. 현실적으로 여러가지 난관이 많겠지만, 사회에 이바지하는 공익 법인으로서의 첫 시작을 잘 해내고 싶다.

큰애가 24학번, 딱 30년 차이 뜻깊어



박소영 (산업디자인94-99)
크리에이티브 커리어 인스티튜트 공동대표

크리에이티브 커리어 인스티튜트의 공동대표로 일하고 있다. 우리 회사는 창조적인 기업들이 창의적인 인적자원을 보유,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인재를 찾고 성장시키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력 12년차 크리에이티브 인재 전문 그룹이다. 크리에이티브 인재가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믿으며, 크리에이티브 인재의 역량과 함께 성장해 진화된 크리에이티브 생태계를 구축하려고 한다.

남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제게도 입학 30주년이 오고야 말았다. 큰애이가 24학번이 되었으니 정말 만감이 교차한다. 대학 생활을 생각하면 미소부터 짓게 된다. 기억 속엔 토틈 동기들과의 소중한 에피소드들로 가득하다. 우리 과는 한 학년의 인원이 36명이었다. 인원이 적어서인지 동기모임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동기회 대표라고 딱 꼬집어 말하긴 어렵고, 전체 독방에서 자유롭게 의견 나누다 1년에 한두 번 만나고 있다.

양적인 성장보다는 질적인 성장을 추구하는데, 그러면서도 영속성 있는 기업을 운영한다는 것은 가능한가? 동시에 나는 하루하루 나는 사람이 되고 있는가? 하는 고민을 하고 있다.

새해 소망은 소소한 일에 감사하기. 당연히 여겼던 것들의 소중함이 새삼스럽게 다가온다.



1994년도 입학식 사진=모교 중앙도서관



심재현 동문(왼쪽 셋째)의 입학식 때 사진.



오희선 동문이 보내온 간호대 94학번의 1996년 설악산 수학여행

그 여름 약대 1번타자 기억하는지



김철용 (약학94-01)
유로팜스 대표

졸업 후 2년간 한국얀센 세일즈맨 생활 후은평구에서 약국을 16년간 운영했다. 약국은 안정적이었지만, 내 성격엔 답답한 곳이기도 했다. 끊임 없이 여러 사업을 꿈꾸고 실행해 왔다. 2015년 우연한 기회에 우크라이나 및 동유럽에 가게 됐고, 버터 해외제조, 철도부품 국내의 납품 사업 등을 하다가 전쟁으로 잠정 중단하게 됐다. 2년 전부터 바이오플라스틱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94년도 기억은 한 편의 수채화 같다. 노점스피커에서 흘러나오던 ‘오래전 그날’을 배경으로 녹두거리 289종점 근처 3층 ‘레포즈 당구장’과 길 건너 2층 ‘그라운드 당구장’, 그 뒤편 술집들, 늦가을 낙성대역에서 기숙사까지 노란 은행나무 거리…. 당시 오토바이를 탔는데, 어느 날 사이가 안 좋았던 최 모 양이 녹두까지 태워달라 부탁해 최대한 빠른 속도와 정문 앞 코너링으로 난폭하게 실어다 왔다가 내리자마자 대차게 파귀를 맞았다. 자랑이라면 학점은 2.0에 수렴해도 유급한 번 없이 약사고시까지 단번에 패스한 것. 유일하게 A학점 맞은 축구와 야구, 물리학, 길고 지루했던 1학점짜리 실험수업들, 생화학 첫 시간 칠판에 크게 ‘Chances favors the prepared mind’라고 적으셨던 이승기 교수님이 생각한다. 또 약대 야구부 ‘약우’에서 치른 그 뒤편 1994년 여름의 관악리그(법대, 농대, 사회대, 치대, 경영대). 그들이 우전안타 치고도 대충 걸어가다간 아웃 당하기도 했던 약대 우익수 1번타자를 기억할까?

최소 150세, 최대 1만세까지 살아야 하므로, 각별한 건강관리 루틴을 매일 실천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사업 관련 고민이 가장 많다. 여건이 된다면 ‘1만세까지 사는 사업’도 한번 해보고 싶다. 사업적으로 빛나는 삶을 만드는 원년이 되기를.

수원·관악 오갔던 치열함에 자부심



이경주 (동물자원94-01)
한국마사회 말산업기획부장

2003년 한국마사회에 입사해 20년간 말산업 육성 일을 해왔다. 대표적인 말산업이 경마와 승마다. 8년은 한국마사회 제주목장에서 경주마 생산과 육성 관련 일을 했고, 12년은 과천 서울경마공원에서 말산업 육성을 위한 기획업무를 맡고 있다. 하루종일 ‘경주마’와 함께 하는데, ‘경주’란 이름 덕분인지 한번 들어도 잘 기억해 주신다.

농생대 94학번은 수능 두 번에 본고사도 수원 캠퍼스에서 묵으며 1박 2일간 치렀다. 전무후무한 입시 과정을 거친 데다 1학년땸 관악, 2학년부턴 수원, 두 캠퍼스를 오가며 치열하게 생활해 자부심이 크다. 1년뿐인 관악 생활은 참 소중했다. 녹두거리 서점 ‘그날이오면’ 유리창에 붙인 포스트잇 메시지를 보고 동아리며 동문 모임을 찾아 가곤 했다. 4학년 때 생명공학에 관심이 있어 관악에 와서 자연대 수업을 들었다. 교수님이 ‘타과 학생이 이렇게 열심히네 우리 과 학생들도 자극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실 만큼 열심히 했고, 결국 농생대 수석졸업이란 인생의 큰 자산을 얻었다. 당시 농생대의 관악캠퍼스 이전을 위한 집회도 많이 나갔다. 후배들이 관악으로 옮겨 좀 더 나은 환경에서 배울 수 있게 된 게 자랑스럽다.

간부직에 있다 보니 요즘 MZ세대 직원들을 보면 내 경험과 지식을 어떻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된다. 가정에선 역시 자녀교육이 가장 큰 고민거리다. 내가 어려운 형편에 힘들게 공부했기에, 자녀는 더 좋은 교육 환경을 주려고 대치동에 거주하며 교육에 올인하고 있다. 꿈이 있다면 부자가 함께 서울대 동문이 되는 것. 올해 직장에선 한 단계 더 성장하고, 경제적으로든 투자 수익으로 가게 경제에 보탬이 되고, 가정에선 가족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

전람회와 김광석에 깃든 기억



안상철 (치의학94-00)
서울리마치과의원 대표원장

모교 치과병원에서 구강악안면외과를 전공하고 14년째 강남역 부근에서 치과를 운영하고 있다. 진료 분야는 난도 높은 치조골 이식술, 임플란트 제1술, 구강내 소수술 등이고 동문 선생님들께서 치아교정, 치아보철, 보존치료 등을 맡으신다. 40여명의 직원과 함께 즐겁게 진료하고 있다.

아직 94년도의 나와 그리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30년이란 숫자에 ‘현타’가 온다. 역시 그때의 나로부터는 너무 멀리 온 걸까. 케니 지, 마이클 잭슨, 너바나, 스탠게츠, 스팅, 김광석, 전람회… 그 시절 함께 했던 음악들에 그때의 생각, 감정, 기억이 아름답게 남아 있다. 본과부터 전공의까지 8년을 연건에서 보냈지만, 대학생이 돼 예과 2년이란 정서적, 문화적, 인문학적 성장기를 보낸 관악에 좋은 기억들이 머물러 있다.

인구 감소, 병원 간 경쟁 심화 등 급변하는 의료계 상황에 어떻게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변화해야 할까. 5~6년 전부터 꾸준히 진료환경과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경영 합리화·투명화를 통해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의료기관의 본질을 지키면서 안정적이고 건강한 병원을 만드는 건 항상 정답이 달라지는 과제 같다. 올해도 우리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이 편안히 진료받고 잘 치유되시길, 직원들에게도 행복한 일터가 되길 소망한다.

아나운서에서 아트디렉터로 변신



박소현 (소비자아동94-98)
프로젝트10019 대표·아트 디렉터

‘프로젝트10019’라는 회사를 설립해 아트 디렉터로 전시 기획·평론, 아티스트 인터뷰, 아트 컨설팅 등을 하고 있다. 졸업 후 15년은 MBC 아나운서로 일했다. 뉴스 앵커, 라디오 디제이 등 멋진 경험의 연속이었지만, 새로운 세계에 대한 호기심이 증폭돼 회사를 그만두게 된다. 사실 입사 10년차쯤 2년간 머무른 뉴욕에서 문화·예술적으로 많은 자극과 영감을 받았고 클래식과 미술에 관심이 깊어졌다. 매일같이 뮤지엄과 갤러리를 다니며 안목을 키워오다 결국 재작년부터 미술 일을 시작했다. 준학예사 자격증도 취득했다.

대학 땸 동아리를 열심히 했다. 서울대 합창단에서 알토 파트장이었는데, 수업은 빠져도 화요일 저녁, 토요일 오전 정기연습은 신나게 나갔다. 점심시간쯤 학생식당의 밥 짓는 수증기 냄새를 맡으며 배고프게 연습했었다. 30년 전엔 자판기 커피가 일반적이었다. 사회대(혹은 인문대)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 마시다 우유팩을 차던 게 그땸 서경석씨도 보고, 어느날은 강당에서 가수가 적씨가 노래부르던 기억이 강렬하다. 버들골 가까이 있던 생활대가 미대, 경영대 옆으로 옮긴 줄 모르고, 졸업 후 남편과 학교를 찾아 예전 13동으로 갔다가 학력 위조(?)를 의심받기도 했다.

요즘 가장 큰 고민은 일본어다. 지난해 12월 아트 디렉터로서 새로운 기회를 찾기 위해 도쿄로 이사해 정착 중이다. 올해는 도쿄와 서울을 반반씩 오가며 생활할 것 같다. 도쿄에서의 새로운 기회가 회사가 성장하는 계기로 이어졌으면 좋겠고, 아트 디렉터로서 한국과 일본의 많은 아티스트분들과 일해보고 싶은 소망도 있다. 잘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늘 생각한다.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병원 실습 때 함께 먹고 자던 우리들



오희선 (간호94-99)
전 수아네요가교실 대표

간호학박사학위를 받고 간호와 요가를 접목한 요가원을 2년간 운영했다. 새로운 현장에서 경제 활동을 준비 중인데, 그곳에서도 요가와 간호의 접목이 가능하길 바란다.

3, 4학년 때, 병원실습이 이른 아침이라 연건캠퍼스 기숙사에서 생활했다. 한 식구처럼 세 끼를 같이 먹었고, 한 달에 한 번은 ‘코파티’를 열었다. 1000원씩 회비를 내고 과자며 빵을 준비해 좁은 방에 10명이 웅기종기 모여 앉아 웃고 떠들었다. 학회, 학생회가 활발했고 농활과 가을 연건대동제도 열었다. 함께 먹고 자며 공부하고, 공동체 활동도 많아서 94학번이 의리 있고 끈끈한 것 같다.

20대 후반 서로 결혼식에 참여하고, 산후조리원에 찾아가 갓 태어난 아기를 봤다. 30대엔 자녀 동반 여행을 했다. 함께 놀던 꼬맹이들이 이젠 모두 대학생이다. 요즘은 친구들과 은퇴 후 어떻게 살 것인지 얘기한다. 가볍게 살고 싶단 친구, 계속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친구 등 다양했다. 제 경우 평화운동, 환경운동, 소외계층 지원활동, 의료봉사를 계획하고 있다. 요즘 전쟁 위기가 고조돼 불안한 마음에 뉴스를 자주 본다. 편안하고 안전한 일상이 우크라이나나 팔레스타인처럼 없어질 수 있구나 생각하면 식은땀이 난다. 2024년엔 정치도 안정되고, 평화가 튼튼해지길 소망한다.

“월급 외 회삿돈은 1원도 안 써요, 결근 한번 안 했고요”

장학금 5억원 쾌척한 공대 삼형제

이승준 (섬유공학56-60) 풍국산업 명예회장

이청원 (자원공학62-67) 풍국산업 회장

이승익 (화학공학75졸) 재미공인회계사

공대 동문 3형제가 본회 장학금으로 5억원을 쾌척했다. 큰형님인 이승준 풍국산업 명예회장은 기부 약속을 하고, 다음날인 12월 11일 바로 5억원을 송금했다. 이승준·이청원 형제는 앞서 2005년에도 5000만원을 기부한 바 있다. 이번엔 미국에 있는 넷째 동생 이승익(화학공학75졸 공인회계사) 동문도 함께했다.

지난 1월 9일 풍국산업 성남 본사 회의실에서 이승준·청원 형제를 만났다. 회의실 양 벽면에 진열돼 있는 다양한 종류의 가방이 눈길을 끌었다. 지난 58년간 풍국산업에서 생산해온 대표 가방들이다. 이승준 동문이 1966년 설립한 풍국산업은 코치, 아디다스, 노스페이스, 룰루레몬 등 세계적인 브랜드의 가방을 제작, 납품하고 있다. 셋째 동생 이청원 동문은 1970년대 중반부터 풍국산업에 합류해 현재 회장을 맡고 있다.

특별한 것은, 최근 창업자 이승준 명예회장이 차세대 경영권을 직계 가족에게 넘기는 상례를 깨고 조카인 이상협(이청원 회장의 아들) 사장(대표이사)을 지명했다는 사실이다. 회사 관련 질문으로 인터뷰를 시작했다. 답변은 이승준 명예회장이 대표로 했고, 간간히 이청원 동문이 설명을 곁들였다.

-조카에게 경영권을 넘겨줄 때 가족 반응은 어땠나요?
“기본적으로 모두가 회사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한 것이지요. 이상협 사장이 대우차 엔지니어로 일하다 29년 전부터 풍국산업의 해외공장 영업, 생산을 총괄해 왔습니다. 바이어 관리 등 일을 아주 잘 해요.”

-전시된 가방을 보니, 무척 다양한 브랜드의 가방을 OEM(주문 제작)하고 있네요.
“고객사가 80여 개사 됩니다. 아디다스와 노스페이스는 전 세계 가방 판매량의 50% 이상을 풍국산업이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코치(COACH), 마이클코어스(MICHAEL KORS), 이스트팩(EASTPAK), 랄프로렌(RALPH LAUREN) 등의 가방도 저희가 만들고 있고요. 매년 아디다스에서 협력사를 대상으로 시상식을 하는데, 2013년 저희 업체가 동시에 3개 부문 최고상을 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아디다스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답니다. 58년간 가방 한 길만을 걸어온 이 분야 최고 업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풍국산업의 지난해 매출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간단하게 회사 소개를 해주신다면.
“현재 베트남 6개 공장, 인도네시아 2개 공장, 미얀마 1개 공장에 3만여 종업원들이 세계 50여 개국에 제조 수출하



이승준(사진 왼쪽)·이청원 동문 형제가 다정하게 손을 잡고 포즈를 취했다. 원 안의 사진은 넷째 동생 이승익 동문.

고 있습니다. 지난해 매출은 7300억원 수준입니다.”

-자체 브랜드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20여 년 전부터 자체 브랜드를 만들어 도전하고 있지만 고전 중입니다. 여행 캐리어 전문 브랜드인 트래커(TRACKER)와 여성 캐주얼 가방인 프렌치쿼터(FRENCH QUARTER)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체 브랜드 시장은 이상협 사장이 장기 과제로 두고 잘 개척해 나가리라 믿고 있습니다.”

-가방은 교재 사이클이 긴 상품이라 매출이 계속 늘어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옷, 신발과 비교해서 분명히 그렇죠. 시장 규모도 옷, 신발이 크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오랜 전통과 품질에 대한 신뢰가 있어서 우리를 찾는 업체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무척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그랬죠. 특히 베트남 공장 운영이 힘들어 여간 애를 먹은 게 아닙니다. 종업원들의 이동이 제한돼 있어, 공장에 기숙사를 만들어 이동 없이 그 안에서 모든 게 해결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행 금지, 휴교 등의 영향으로 주문량도 급감했지만, 잘 버텨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무차입경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놀라운 일입니다.
“건전재정을 경영 방침으로 두고 있습니다. 절대 무리한 투자를 하지 않고, 수익금 전체를 회사 발전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를 위한 시스템 개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재교육 투자 외 부동산 투자 같은 건 일절 없습니다. 생산시설에만 100% 투자합니다.”

경영 철학을 묻는 질문에 이승준 동문은 아버님의 칠판 글씨를 보여줬다.

“아버지 방에 조그마한 칠판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런 한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근면, 성실, 실천, 창조. 이게 우리

“서울대 덕에 성장…작은 보답 당연”

58년 가방 외길 국내 최대 업체 일귀

80여 개 고객사…지난해 매출 7300억원

아버지 방에 적혀있던 근면·성실·실천 가훈

회사 운영하는 경영 철학으로 삼아



이승준 동문 형제의 부친이 남긴 칠판 글씨. 여기 적힌 근면, 성실, 실천, 창조가 이 동문 형제 가족의 가훈이자 회사의 사훈이 됐다.

집 가훈이 됐고 회사 사훈이 됐습니다. 결근한 적 하루도 없고, 매일 7시면 출근합니다. 저는 회사 카드도 없습니다. 회삿돈은 월급 외 1원도 안 씁니다. 골프 비용도 내본 적이 없습니다. 남산 터널 지나잖아요? 톨게이트비도 제 돈으로 냅니다. 모두 아버님의 가르침입니다.”

인터뷰에 동석했던 회계담당 임원이 “우리 회사는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나와도 너무 깨끗하니까, 오히려 놀라서 간다”고 했다. 2013년 국세청에서 2개 업체만 시상하는 ‘조사모범납세자’로 선정되기도 했고, 2019년엔 성실납세자 인증도 받았다.

-정직하게 버신 돈으로 5억이라는 거금을 동창회에 쾌척해 주셨습니다. 동창회에 아는 임원이라도 계신가요?

“총동창회와는 어떤 인연도 없습니다. 아는 임원도 없고, 권유받은 적도 없습니다. 서울대에 대한 사랑 하나만 있었지요. 우리 3형제가 서울대 덕을 많이

받았고, 그에 대한 작은 보답입니다.”

-어떤 학생들에게 장학금 혜택이 돌아가면 좋을까요?

“요즘은 이렇게 저렇게 등록금 정도는 다 구하는 것 같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잘 하는 학생에게 장학금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형제 세 분이 공대생인 게 특별합니다.

“당시 창원, 울산 등지에 공단을 많이 만들었잖아요? 요즘 의대를 선호하듯이, 공대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형제 간 우애도 남다른 것 같습니다.

“(이청원) 큰형님이 6남매를 이끌어 주셨어요. 형님이 대학시절 방학 때 부산 집에 내려오면 동생들의 가정교사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때로는 기합도 주시고요. 저도 형님 덕분에 마음을 다 잡고 서울대에 갈 수 있었습니다.”

-넷째 이승익 동문은 여기 안 계시지만 소개를 해 주신다면.

“(이청원) 승익이는 어려서부터 몸이 안 좋았습니다. 사실 회사 일도 다 같이 했으면 했는데, 여의치 않아 미국으로 가게 된 거죠. 서울대 졸업 후 위스콘신대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공인회계사를 취득했어요. 지금도 그 계통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가끔 보시나요?

“(이청원) 지금은 카카오톡 등 SNS가 발달 돼서 자주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가족 간 큰 행사가 있을 때 모이기도 하고요.”

-세 분이 서울대를 나오셨는데, 자녀나

손주 중에서는 동문이 없을까요?

“(이승준) 딸이 음대 기악과(피아노)를 나왔습니다.”

-총동창회 외에도 기부 활동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청원) 형님은 ‘사랑의 열매’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아너소사이어티(1억원 이상 기부) 멤버이기도 합니다. 우리 회사는 종업원들에게 점심 무료급식을 초창기부터 지키고 있습니다. 성남시 주변의 사회단체에 쌀기부 등 지속적으로 나눔 활동을 하고 있고요. 베트남에서는 매년 신학기에 가방 1000개를 초등학교생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취학 가정 집짓기 운동에 참여해 60채의 집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서울대는 두 분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이승준) 모교인데 무슨 존재일 거 있습니까? 저나 마찬가지로. 지금도 동기생들을 매년 분기별로 만나고 있습니다. 입학 당시에는 40명이었으나, 10명 정도 모이고 있어요. 가장 즐거운 모임이고 기다려지는 모임이죠.”

(이청원) 타 학교 출신들이 잘 하는 거 보면, 내가 명색이 서울대를 나왔는데, 더 잘해야 하는 거 아닌가, 스스로 채찍질을 하는 계기가 됩니다. 늘 저를 한 걸음 더 뛰게 만드는 존재죠. 가방 산업이 전자, 자동차 산업 등에 비하면 작아 보이지만, 그래도 그 분야의 월드베스트가 되자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50년을 그렇게 살아온 원동력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해 소망을 말씀해 주신다면.

“(이승준) 4월 선거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망 하나입니다. 그게 우리나라가 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수한 국민성을 정치가 따라가 주길 바랍니다. (이청원) 이제 2세대 경영이 시작됩니다. 지금도 세계 최상위 업체이긴 합니다만, 매출 규모를 두 배 이상 늘리고 싶은 꿈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 기반을 올해 닦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김남주 기자



서울대학교 스포츠리더십 최고위과정

서울대학교

스포츠리더십 최고위과정 ALPS

ADVANCED LEADERSHIP PROGRAM FOR SPORT

2024학년도 제 3기 모집

*ALPS과정은 1년에 1번 모집하여 운영됩니다.



◆ 과정목적

스포츠 문화 산업의 발전에 따른 최신 전문지식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시대가 요구하는 융합적 리더십을 양성

◆ 프로그램

서울대학교 최고의 교수진의 전문적인 강의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들을 통한 차별적 강의 제공
엘리트 스포츠 지도자의 노하우를 직접 배울 수 있는 체험활동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주기적 워크숍 활동

◆ 과정 특전

- 서울대학교 총장수료증 부여
- 서울대학교 총동문회 동문 자격 부여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교수진에게 각계 정책 자문
- 서울대학교 및 동창회에서 주최하는 각종 세미나 및 포럼 초청
- 서울대학교 정기간행물과 시설 이용 가능
- 스포츠 동아리 활동 가능
- 향후 ALPS 동창회 일원으로서 긴밀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

교육기간 2024년 3월 6일(수) ~ 2024년 6월 26일(수)
매주 수요일 오후 6-9시 강의

모집인원 40명 이내

입학자격 스포츠 관련 기업의 경영자, 임원·언론인·국회의원·
고위 행정직 종사자, 스포츠 분야에 깊은 애정을 가진 자

전형방법 1차 서류전형 (합격자는 대상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모집기간 2024년 1월 2일(화)~2024년 2월 16일(금)

접수방법 방문 또는 우편접수: 서울대학교 71-1동 501호
(스포츠리더십 최고위과정 사무실)
FAX 접수 : 02-872-2867 / 전화 접수 : 02-880-2505
이메일접수: snualps@snu.ac.kr
(지원서 다운로드: 홈페이지 devsnualps.snu.ac.kr)

문의처 서울대학교 스포츠리더십 최고위과정
02-880-2505 (snualps@snu.ac.kr)



SNU ALPS
SEOUL NATIONAL UNIVERSITY
ADVANCED LEADERSHIP PROGRAM SPORTS

WHERE?

Q. 전문직 · 엘리트 · 노블레스 결혼은 어디서?

A. 바로여기!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와
결혼정보서비스 단독 제휴한 국내 유일! 엔노블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결혼정보 제휴사
엔노블이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동문전용상담 02-3445-2445)

등록번호
서울·강남·국내
15-0005

엔노블 결혼정보회사 서울 / 대전 / 대구 / 부산 / 제주 / LA / 뉴저지 / 아틀란타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811 (신사동, 엔노블타워) T.1577-2050
www.nnoble.co.kr

N.NOBLE
MATCH-MAKING BIBLE

“제초제 뿌리며 사라진 논매기소리, 세상에 남겨 다행”

이소라 (법학63-68)
민족음악연구소 소장

40년간 전국 읍면 농요 채록 도별 논매기소리 총서 완간

“농요(農謠)는 그냥 노래가 아닙니다. 기록되지 않은 민중사고, 지역의 개성을 드러내는 얼굴입니다.”

손가방에서 손때 묻은 녹음기들이 줄줄이 나왔다. 40년 가까이 민요학자 이소라 동문과 함께 세상을 누빈 보물이다. 1983년부터 전국의 읍면을 돌며 논매기소리와 모심는 소리 등 농요를 채록해온 그가 최근 8년 만에 각 지역 논매기소리의 악보와 해석을 집대성한 ‘전국 도별 논매기소리 총서’를 완간했다.

충남 편으로 시작해 서울·북한·제주 편을 부록으로 붙인 강원 편까지 총 12권, 8900여 쪽에 달하는 책이다. 농요를 주제로 낸 책만 60여 권, 논문은 100여 편. 작년 12월 27일 대전 유성구 그의 자택 근처에서 가냘픈 체구를 마주하자 새삼 어떻게 가능했나 싶었다. ‘힘들었겠다’ 물어도 그는 “전국의 논매기소리를 녹음해왔으니, 세상에 태어나 하나는 남기고 가는 것 같다”며 웃기만 했다.

법학과 1963학번 홍일점이었던 그가 농요에 빠져든 곡절이 뭘까. 사회에 봉사하고 싶어 법학을 택했지만 음악과 철학을 유난히 좋아했다. 문리대 철학과 강의를 섭렵하고, 고시 공부만 1년간 해봐도 갈피가 안 잡혔다. “음악 좋아하는 판사, 철학박사로 살면야 멋있겠

지만, 그렇게 시간을 쪼개 살고 싶진 않다.” 정답은 음악이었다. ‘오랜만에 여자 판사 나오나’ 싶던 집안의 반대를 거스르고 모교 음대 작곡과에 편입했다.

리듬에 관심을 가졌다. 거문고, 가야금, 해금, 대금 등 국악기를 두루 섭렵하고 모교 대학원에 진학해 국악을 연구했다. 졸업 후 문화재청 전문위원으로 일을 시작했다. “몇몇 지정할 농요를 듣고 문화재로 가치 있는지 판단하는 일이 첫 업무였어요. 경북 예천 통명리에서 조사를 마쳤는데 군청 직원이 ‘이웃 풍양면 농요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비교하면 보고서가 더 잘 나오겠

다 싶어 가봤죠. 한 방 가득 노인정에 모였는데, 농요를 너무 잘 부르더라고요. 한 분 말씀이 ‘우리 동네에 옛날부터 좋은 노래가 많아서 옛날엔 면장님이 술도 사주시면서 부르게 했다. 이젠 시키는 사람도, 들어주는 사람도 없다’더군요.”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 깊은 감명과 조급함이 뒤섞였다. 곧바로 ‘농요보존회’를 만들고 서울로 농민들을 초청해 공연도 열었다. 그래도 성에 차지 않았다. 1960년대 제초제가 보급되면서 논매기소리가 사라진 지 오래였다. 1980년대 당시 논매기소리를 기억하는 이들의 나이가 이미 70대. “국악을 전공한 나

도 몰랐는데, 가만 두면 하루아침에 사라지겠구나.” 발등에 불 떨어진 듯 녹음기를 들고 나섰다. 3년 만에 ‘한국의 농요 제1, 2집’을 펴냈다.

한번 조사할 때 상여소리, 모심는 소리, 길쌈소리 등 다양한 민요를 녹음했지만 그 중에서도 논매기소리는 특별했다. 땀별에 허리를 굽히고 논바닥에 돌아서 잡초를 뽑는 일은 너무 고되어 두레를 조직하고, 숙련된 선소리꾼을 시켜 노동요라도 불러야 해낼 수 있었다. 때문에 마을에 모심는 소리는 없어도 논매기소리는 꼭 있었다. “논매기소리 하는 사람을 모르면 상여소리하는 사람을 찾았어요. 그 분이 마을의 온갖 노동요를 도맡는 선소리꾼이거든요. 선소리꾼이 메기는 소리를 하면, 수십 명이 일

제히 ‘상사디여’, ‘열카딩여리’ 같은 말을 넣어 후렴을 부르는데 지역마다 달라지는 이 후렴이 논매기소리의 핵심입니다. 예로부터 맨입에 노래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막걸리 한 잔 사드리고, 기억이 안 난다



면 다음 날 다시 오고, 아주 짧은 한마디도 소중한 흔적이었죠.” 도시 개발로 묻힐 뻔 했던 충남 홍성 ‘결성농요’, 서울 노원구 ‘마들농요’ 등을 발굴했다.

그는 “농요는 ‘구전의 민중사’”라고 했다. 처음엔 시군당 3개 읍면으로 시작했지만, 모든 읍면을 전수조사하니 들로 퍼져나가고 산과 물길로 가로막힌 노래의 지도, ‘농요권’이 드러났다. 경남 의령 동부의 논매기소리 ‘궁글레소리’는 후렴에 ‘에이여라 궁글레야’ 같은 소리를 내는데, 생뿔맞게 멀리 떨어진 합천군 묘산면에서 나왔다. “알고 보니 이 지역에, 합천에서 나는 닥나무를 가져다 닥종이 생산지인 의령에 가서 팔던 상인이 살았더라”는 것. 기록에도 없던 내용이다.

청동기 시대부터 불려온 논매기소리는 고대 국가의 비밀을 푸는 열쇠도 될 수 있다. “논매기소리는 힘 있는 부족의 존재를 암시해요. 큰 논은 물론이고 선소리꾼을 고용할 만한 권력과 재력을 소유해야 하니까요. 삼한의 소국인 ‘압독국’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산, 영천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어화 전례’ 하는 전례류 논매기소리가 나오는 범위

와 겹칩니다. 옛날 이 지역의 강한 권력을 배경으로 노래가 창출됐다고 볼 수밖에요. 고대사 하시는 분께 말했다니 ‘아니 압독국에 노래가 있어요?’ 하며 반가워 하시더군요. 마한 54개 소국 위치를 놓고 설왕설

래하죠. 땅 속 유물뿐만 아니라 논매기소리도 참고가 될 거예요.”

농요의 기원을 찾아 중국과 일본, 동남아, 아프리카 등 해외의 벼농사 지대까지 방문했다. 교통과 통신도 열악한 시기, 법대 친구들의 도움이 컸다고 했다. 지방에 가면 공직에 재직중인 동기들이 도왔고, 해외에 가도 대사관에 연락을 넣어 불편이 없도록 해줬다. 덕분에 사라져가는 농요를 채록하고, 디지털화까지 마칠 수 있었다. ‘한국의 향토 민요’ 홈페이지(wrice.kongju.ac.kr)에 전국의 논매기소리가 공개돼 있다. “전 세계에서 그 지역만 있는 노래 아닙니까. 요즘 지자체마다 특색 내세우려고 애쓰는데, 농요 하나 키워서 내놓으면 그게 개성이지요.”

아직도 더 알고 싶은 게 있는지 묻자 그는 “그럼요, 모르는 게 더 많죠”라고 답했다. 문화재청에서 20년간 근무 후 20년이 더 지났지만 지금도 학술진흥재단 등의 지원을 받아 계속 연구하고 있다. “조만간 전국의 상여소리로 총서를 낼 것이고, 모심는 소리도 정리해 뒤야 내 일이 끝날 것 같다”던 이 동문이 마침 어제 반가운 소식이 왔으며 서류 하나를 꺼냈다. ‘재단법인 나요당 농요상 기념사업회’ 설립허가증. ‘나요당(羅謠堂)’은 ‘아름다운 노래의 집’을 뜻하는 그의 호다. “나이 80이 됐으니 정리도 할 겸, 문화재로서 농요 보존에 힘도 실을 겸 만드는 겁니다. 처음 농요와 인연을 맺은 예천 통명리에 농요 기념비를 세우려고 해요. ‘나요당 농요상’도 제정해 새해에 바로 시작할 겁니다.” 박수진기자

60대 이상 여성에게 딱 좋은 운동용 레깅스 만들었어요

이소현 (대학원21-23)
박사과정생

연령에 따른 신체 특징 반영 국제의류학회 최우수 논문상

작년 11월 미국 볼티모어에서 열린 국제의류학회에서 이소현(대학원21-23) 모교 의류학과 박사과정생이 석사 최우수 논문상을 받았다. 한국·미국·영국·홍콩·캐나다 등 그해 각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한 의류학도들이 모여 600여 편의 연구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논문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것. 이 동문은 노년층 여성을 위한 인체공학작 스포츠웨어 설계 방법을 개발했다. 작년 12월 26일 관악캠퍼스 경영대 카페에서 이소현 동문을 만났다.

“졸업 논문을 쓸 즈음 어머니가 은퇴를 하셨습니다. 건강관리 겸 다이어트를 위해 운동을 시작하려고 하셨죠. 어떤 운동이 좋을지 또 어떤 운동복이 적당할지 함께 고민하면서 60대 이상 여성 체형에 딱 맞는 레깅스가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요가·필라테스·줄바 같은 운동이 고령층 여성에게 권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런 운동을 할 때 주로 입는 레깅스는 20·30대 젊은 여성들 체형에만 맞춰져 있었죠.”

‘운동만 열심히 하면 되지 뭘 입으면 어때?’ 생각하기 쉽지만, 종목에 알맞은 복장은 운동 효과를 높일 뿐 아니라 운동하다 다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준다. 주리닝 같은 평퍼짐한 옷을 입고 실내운동을 하다가 헬스기구에 옷이 걸려 다치거나 옷자락이 밟혀 넘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은 이에 대한 방증. 건강하고 젊은 노후를 위해 시작한 운동이 부상으로 얼룩지지 않으려면 체형에 맞는 복장은 필수다.

“노년층 여성과 20대 여성의 체형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각 연령대 여성의 하반신 3D 형상을 만들어 비교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다리 근육은 줄고 엉덩이는 처져요. 복부엔 살이 많이 붙고요. 상체가 구부정해지면서 몸의 축이 기울어 배가 더 볼록해지죠. 이러한 특징이 무시된 기존의 레깅스는 복부·밀위·무릎·발목선 등 여러 부위에서 노년 여성과 맞지 않아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곳저곳 주름이 쳐 멋스럽지도 않죠.”

이 동문은 ‘3D to 2D 평면화 기법’을 적용, 노년 여성의 신체적 특징을 반영한 원형 패턴을 개발했다. 의류학에서 패턴은 무늬가 아닌 일종의 설계도. 3D to 2D 평면화 기법은 3D 형상의 표면에 하의 패턴 설계에 적합한 기준점 및 기준선을 설정해 삼각 메쉬를 생성하고, 이를 삼각 평면으로 전개한 후 조합해

패턴을 제작하는 방식이다. 3D 형상의 표면 그대로 패턴을 제작해 체형의 특징이 뚜렷이 반영된다.

“옷은 본래 1대 1 맞춤형이었습니다. 18세기 산업화 이후 대량생산 공정이 확대되면서 사람이 옷에 몸을 맞추는 시대가 됐죠. ‘성인’이란 단일 카테고리에서 ‘사이즈’만 다를 뿐 기성복을 입는 현대의 시스템이 당연시되면서 ‘체형에 맞는 옷’은 그 개념 자체가 희미해졌을 뿐 아니라 산업 측면에서도 간과하는 요소가 됐습니다. 그러나 레깅스를 포함한 기능성 의복인 운동복은 운동 효과와 부상 위험 측면에서 개인의 체형에 맞아야 하는 이유가 명확해요. 제가 개발한 레깅스를 착용했던 피험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체형에 잘 맞는 편한 운동복이 운동을 더 하

고 싶게 만들기도 하죠. 궁극적으로 고령층 체력 증진에 일조할 수 있을 겁니다.”

노년층 여성에 특화된 이 동문의 레깅스는 아직 출시 계획은 없다. 이화여대에서 학부 졸업 후 4년간 실무 경험을 했던 그가 모교 대학원에 입학한 이유는 연구자의 길을 택했기 때문. 직접 레깅스를 만들어 공급하는 대신 자신의 논문에 지금껏 연구한 자료와 지식을 고스란히 담았다. 논문을 참조하면 업계 종사자 누구나 노년층 여성에 특화된 옷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의학 기술의 발달로 건강한 노년층이 많아졌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운동을 희망하는 사람도 많아졌고요. 일반 의류 시장의 성장이 정체된 데 반해, 운동복 판매량은 전 세계적으로 꾸준

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년층 여성의 레깅스 수요는 확인됐지만, 공급은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이들을 위한 레깅스 개발 및 공급은 레드오션인 현 의류산업에서 틈새시장으로서 그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국제의류학회 박사 최우수 논문상도 모교 동문이 받았다. 이수민(대학원17-19) 서울대 생활과학연구소 연구원이 그 주인공. 장애인을 위한 손가락 관절 동작을 보조하는 스마트 웨어러블 장갑을 개발했다. 이소현 동문과 함께 박주연(의류93-97) 교수의 ‘웨어러블 인간 공학 연구실’ 소속이다. 국내 대학 최초로 국제의류학회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하는 동시에 석사, 박사 부문을 싹쓸이한 박주연 교수 연구실은 인체공학작 패턴을 개발함으로써 의류학과 다른 여러 학문 분야를 융합하는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박 교수는 “미국 대학에서 10여 년간 교수로 재직하던 중 모교의 부름을 받고 후학 양성을 위해 2019년 한국으로 귀국했다. 이번 성과는 학생들이 새로운 연구 주제와 융합적 접근법에 주저하지 않고 열정적으로 따라와 준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 동문의 연구는 추후 실증을 거쳐 기술이 더 다듬어진다면 연구실 차원에서 상용화를 고려할 예정이다.

나경태기자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새해 새아침

참된 이치와 밝은 빛을 찾는 여정,
그 시간을 함께한 이들을 위해

서울대 와인

서울대만의 특별한 가격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빌라 다 빈치 리나리우스 49,000 원

손으로 수확 및 선별한 포도들로, 스테인리스 스틸통과 오크통 숙성을 적절하게 사용하여, 신선한 과실감과 바디감을 조화롭게 잘 빚어낸 와인으로, 진한 적색과 보랏빛을 띄며, 블루베리, 자두향을 시작으로, 에소프레소, 바닐라, 로즈마리향이 피어남과 동시에, 입 안에서는 진한 탄닌감에 산도가 겹겹히 쌓인 느낌으로 실키하면서도 단단한 바디감이 피니쉬까지 길게 이어집니다.

이브코트 보르도 루즈 25,000 원

이브코트는 완벽한 품질의 와인을 만들어 내는 것 뿐만 아니라, 보르도에서 가장 훌륭한 셀러 마스터가 있는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전형적인 보르도 블렌딩 스타일의 이 와인은 가넷 컬러를 띄며, 붉은 과실류의 부케를 가장 먼저 보여줍니다. 잘 익은 체리, 커런트, 블랙베리, 블루베리의 향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습니다. 입 안에서는 아름다운 아로마와 함께 훌륭한 구조감으로 긴 피니시를 자랑합니다.

와인판매금액 일부는 서울대로 기부금이 전달됩니다.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구입 문의

서울대 교수회관 예약실 T. 02-880-5241

기업&대량 구매 T. 010-4731-2116

E-mail crovino@naver.com

신임 특별과정 동창회장

듣고 싶은 강의 학교 추천 받아 열겠다

AWASB동창회

김재호 (87기)

제이에이치커리어 회장



신설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수석부회
장으로서 동창회 모임에 죽 참석해보
니 연초에 시무식, 5월에 골프모임, 10
월 등산 모임, 12월 송년회를 빼면 기
억에 남을 만한 큰 행사가 많지 않더
군요. 기수 간 소통이 잘 되면 인상 깊
은 행사를 더 자주, 더 많이 개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타 대학 특별과정도 여럿 수강한 김
재호 회장. 고교 동창이자 오랜 친구
인 신민수(7기) 현대차 미소금융재단
이사장의 추천으로 모교 AWASB특
별과정에 입학했다. 이름 그대로 실버
산업에 종사하는 동문도 있지만, 약 1
년 커리큘럼으로 특별과정으로선 비
교적 길고 훌륭한 교수님이 많아, 말
그대로 강의가 좋아 입학하는 동문도
많다. 김 회장이든 마찬가지. AWASB를
통해 미처 생각지 못했던 통찰이나 시
시각각 변화하는 트렌드를 접하면서
인생이 더 풍요로워졌다고.

“코로나가 끝났지만, 우리 동창회
엔 아직 그 여파가 계속되고 있습니
다. 이대로 가면 다음, 또 다음 기수엔
좋은 인재가 오지 않을 확률이 크다고
봐요. 8대 회장단이 힘을 합쳐, 동문들
이 정을 느끼고 참여하고 싶은 모임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분위기를 반전
시킬 수 있게 최선을 다하고 있죠. 동
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립니다.”

김 회장이 1991년 설립한 제이에이
치커리어는 근로자파견업 및 생산도
급업체로 1700여 인력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여러 차례 위기를 넘
긴 경험에서 좌우명은 진인사대천명
(盡人事待天命). 집에서도 직장에서
도 아내와 함께한다. 슬하에 외동딸을
렀다.

나경태 기자

“특별과정에선 흔히 ‘3교시 수업’
이라고 할 만큼 정규 수업 후 친목과
네트워킹 활동이 중요합니다. 코로나
때 마음껏 모이지 못했던 아쉬움을 지
금이라도 펼쳐내려고 해요. 합동 강
의 마치고 맥주 한 잔씩 하면서 살아
온 얘기도 나누고요. 둘째 공약으론
기수통합 골프 월례회를 신설하려고
합니다. 오래 가는 모임엔 어디나 골
프가 있어요. 모임의 꽃이라고 생각합
니다. 멋진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즐길
수 있게, 동창회가 앞장선다면, 동창
회에 대한 애정이 안 생길 수가 없죠.”

셋째 공약은 여성 동문 모임 설립
및 지원. 여성의 사회활동이 대폭 늘
어난 만큼 여성 경영자도 적지 않다.
AWASB동창회 회원 중에도 약 30%
는 여성인 만큼 이들의 동창회 참여를
장려하는 차원에서 김 회장은 여성 동
문 모임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생각이
라고 말했다.

“넷째 공약은 기수 회장 정례 모임

김재호(87기) 제이에이치커리어 회
장이 작년 12월 4일 제8대 웰에이징
·시니어산업최고위과정(AWASB)동
창회 회장에 선출됐다. 코로나19 바이
러스가 한창 위세를 떨치던 2020년 초
입학해 친목 활동이 거의 불가능했던
불운한 시기에 수료한 그가 코로나 팬
데믹 종식 후 동창회 활성화라는 중책
을 맡았다. 작년 12월 21일 서울 강남
에 있는 제이에이치커리어 회장실에
서 김재호 신임 회장을 만났다.

“AWASB특별과정은 2013년 설립
됐습니다. 기수를 거듭하면서 약 500
명의 동문이 배출됐고, 그에 따라 이
제 막 동창회 활동이 활발해질 즈음
코로나19 사태가 터졌어요. 직격탄을
맞은 셈이죠. 저희 기수뿐 아니라 다
음, 다음 기수까지 방역 지침 때문에
마음대로 만날 수가 없으니 동창회 활
동이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었죠. 1
년 임기로 감당할 수 있는 과업인가,
고민도 많이 했지만, 동기들이 적극
협력하겠다고 응원해줘 동창회장을
맡게 됐습니다.”

동창회 역사에 새로운 변곡점이 되
겠다는 각오하에 임기를 시작한 김 회
장은 4가지 공약을 내걸었다. 첫째는
스킨십 강화다. 기존의 골프·등산 모
임에 더해 분기마다 한 번씩 합동 강의
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재학생과 졸업
생 모두에게 문을 열고, 강의 주제나
연사는 학교의 추천을 받음으로써 동
문 간에는 물론 동창회와 학교 간 협력
강화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의대동창회

카메룬 응급의료센터 세운 정중식 동문 장기려의도상

함춘의학상 등 3명 시상도

의과대학동창회(회장 한규섭)가
작년 12월 19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2023 함춘 송년의 밤’을 열었다. 한규
섭(72-78) 회장, 김정은(87-93) 모교
의대 학장, 김영태(84-88) 모교병원
장 등 동문 25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
사에서 박경우(92-98) 모교병원 순환
기내과 교수가 함춘의학상을, 최원목
(04-10)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소화
기내과 조교수가 함춘젊은연구자상
을, 임재준(88-94) 모교병원 공공부원
장이 함춘동아의학상을 받았다.

제20회 장기려의도상의 영예는 정
중식(96졸) 성남시의료원 중환자의학
과 전문의에게 돌아갔다. 정중식 동문
은 2001년 영동권역 응급의료센터 공
중보건과, 2008년 보라매병원 응급의
학과 흡리스 담당 조교수를 지냈으며
2013년 카메룬에 파견, 6년 반 동안 현
지 국가 응급의료체계의 기초를 닦았
다. 2006년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 보



왼쪽부터 박경우 함춘의학상 수상자, 임재준 함춘동아의학상 수상자 부부, 정재훈 동아쏘시오홀
딩스 대표, 한규섭 회장, 정중식 장기려의도상 수상자 부부, 최원목 함춘젊은연구자상 수상자.

건 지원, 2008년 필리핀 안티폴로 무료
진료 자원봉사, 2011년 에콰도르 페드
로카르보 모자병원 및 장애인학교에
서 무료 진료 자원봉사를 했다.

정 동문은 수상소감에서 “장기려 박
사님을 비롯해 국내에서 흡리스가 받
는 부당한 편견과 싸우며 그들의 건강
권 보장을 위해 애쓰는 분들은 ‘가난’
과 ‘생명’, 두 단어의 교집합 위에 있는
분들”이라며 “빈곤 위에 도덕적 자격
이라는 정의의 잣대를 대기보다 빈곤

의 상처를 지워주는 참된 정의를 먼저
고민하는 이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 흡리스에 대한 마음의 빚
을 갚고자 해외로 눈을 돌려 카메룬 국
립 야온데응급센터를 개원, 운영하는
데 오랫동안 매진했었다고 밝혔다. 현
재 성남시의료원에서 중환자들을 돌
보고 있는 정 동문은 “언젠가 다시 아
프리카로 돌아가 긴 호흡으로 카메룬
의 많은 동료들과 함께할 날을 기다린
다”고 말했다.

미대동창회

젊은 작가 육성…제3회 베리타스미술상 시상



작년 12월 7일 열린 베리타스미술상 시상식 기념사진. 총 8명의 졸업 예정자들이 수상했다.

미술대학동창회(회장 권영걸)가 작
년 12월 7일 모교 미술관 렉처홀에서 제
3회 베리타스미술상을 시상했다.

올해 수상자는 유지원(동양화19입),
권민주(서양화19입), 고수정(조소19
입), 윤은서(금속공예17입), 배인규(도
자공예17입), 박소영(시각디자인18입),
나희연(산업디자인18입), 윤동신(영상
매체18입) 학생 등 전공별 1명씩 총 8명
으로 권영걸 회장을 대신해 이민주(회
화76-80) 상임부회장이 시상했다.

베리타스미술상은 유망한 젊은 작가
들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미대동창
회에서 2021년 제정한 상으로, 미대동
창회는 2020년까지 ‘졸업전시 동창회

장상’ 수상자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왔으나 우수한 후배 졸업생들에게 전시
기회를 제공해 졸업 후 작품 활동을 이
어갈 수 있도록 돕고자 2021년부터 상의
이름을 ‘베리타스미술상’으로 변경하
고 부상으로 ‘베리타스미술상전’을 개
최해 수상자들에게 미술계 등단 기회를
주고 있다. 수상자 배인규 학생은 “베리
타스미술상을 받게 돼 기쁘다. 앞으로
더 좋은 작품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번 수상자들은 오는 4월 ‘SNU아트
페어’, ‘숨은예술가들’과 함께 한전아
트센터에서 개최되는 제3회 베리타스
미술상전에 참여하게 된다.

보건대학원동창회

권달관·방형애·서흥관·전옥경 자랑스러운 동문상



보건대학원동창회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 행사에서 참석 동문들이 기념 사진을 찍었다.

김판기 신임 회장 선출도



보건대학원동창회
(회장 권혁한)가 작년
12월 7일 호암교수회
관 무궁화홀에서 정기
총회 및 송년의 밤 행
사를 열었다.

권혁한(75-77) 회장, 정효지(식품영
양81-85 보대원87-89) 원장 등 동문 60
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권달관
(77-81) 신학대 명예교수, 방형애(식품
영양83-87 보대원87-89) 대한보건협
회 기획실장, 서흥관(의학77-83 보대원
89-91) 국립암센터 원장, 전옥경(식품
영양84-88 보대원95-99) 코네티컷대

영양학과 교수 등 4명이 자랑스러운 동
문상을 받았다.

권달관 동문은 대한결핵협회 연구위
원을 거쳐 신학대학교 방사선과 교수로
재임하면서 결핵퇴치사업에 공헌했고,
방형애 동문은 대한보건협회 연구실장
으로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했다. 서흥관 동문은 국립암센터
원장 겸 국제암대학원대학교 총장으로
금연 운동에 앞장섰다. 전옥경 동문은
보건영양학 분야 발전에 크게 기여했으
며 영상으로 수상소감을 전해왔다.

보건대학원동창회는 한편 작년 12월
11일 김판기(수의학81-85 보대원85-
87·사진) 용인대 산업환경보건학과 교
수를 제18대 동창회장으로 선출했다.

FIP동창회



작년 12월 19일 관악캠퍼스에서 열린 FIP동창회 송년회에 참석한 동문들이 기념사진을 찍었다.

송년회에 동문 100여 명 참석

미래융합기술과정(FIP)동창회(회
장 윤무영)가 작년 12월 19일 관악캠퍼
스310동 엔지니어하우스 1층 대강당에
서 송년회를 열었다.

윤무영(14기) 회장을 비롯한 동문
100여 명과 여재의 주임교수가 참석한
이날 행사는 정기총회로 시작해 KBS
관련악단 신광식 수석연주자, THE 히

어로즈앙상블의 축하 공연과 이벤트 타
임 및 네트워킹 등으로 풍성하게 꾸려
졌다.

2002년 출범한 FIP특별과정은 IT 기
반의 융합기술 교육을 통해 전문가형
지도자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이다. 4차
산업혁명을 맞아 주목받으면서 대기업
임원, IT분야 중견기업 대표뿐 아니라,
업종 경계를 넘어 변호사·변리사 등 전
문직종 종사자들이 많이 찾는다.

부산지부동창회

160여 동문 모여 음악으로 수놓은 송년의 밤



12월 4일 부산지부동창회 송년의 밤 및 음악회 중 관악세대 합창단의 공연 모습.

부산지부동창회(회장 이상준)는 작년 12월 4일 부산 롯데호텔 서면 크리스탈볼룸에서 ‘부산동문가족 송년의 밤 및 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날 동문 및 가족 160명이 모인 가운데 송년 총회에 이어 만찬과 함께 동문들의 재능기부로 성대한 음악회를 열었다. 79학년부터 95학년까지 동문들로 구성된 베리타스 남성중창단의 공연을 시작으로 소프라노 한예린(성악15-19) 동문, 테너 김일두(성악 98-03) 동문, 피아니스트 주수진(기악03-08) 동문이 루이지 아르디티의 ‘입맞춤’ 등 성악 공연을 펼쳤다. 이어 피아니스트 강형은(기악02-06)·이윤지(기악03-07) 동문이 피아노 앞에

나란히 앉아 듀오 앙상블 연주를 선보였다.

1980·1990·2000년대 학번 젊은 동문 28명으로 구성된 관악세대 합창단의 공연은 송년 행사의 관례가 됐다. 이번에도 김강규(성악83-89) 동문의 지휘와 이진성(기악95-99) 동문의 반주로 세 곡을 연달아 부르며 대미를 장식했다.

이날 행사에는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의 오스카 초요시(大塚 剛) 총영사 부부도 참석했다. 오스카 총영사는 오키하마시립대 졸업 후 연세대 어학당을 수료하고 1987년 모교 국문학과에서 학사 과정을 밟은 인연으로 동문들의 박수를 받았다. 박수진 기자

AIC동창회



AIC동창회 송년의 밤에 참석한 동문들이 기념사진을 찍었다. 아직 수료 중인 51기생도 함께했다.

송년의 밤에 130명 참석

AIC최고위정책과정동창회(회장 박규홍)가 작년 12월 28일 호암교수회관 무궁화홀에서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박규홍(11기) 회장을 비롯해 동문 13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51기 재학 중인 오은영 미술사가 마술공연을 펼쳤고, 방송인 장 용 씨가 사회를 맡았다.

AIC최고위정책과정 운영에 헌신한 이진숙 담당자와 김춘수 AIC동창회

수석부회장이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박규홍 회장은 “대내외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동문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동창회를 발전시키고 전통을 계승하는 힘이 된다”고 하면서 “이날 행사는 수료 중인 51기생도 함께 참여해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AIC동창회와 특별과정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큰 성과를 거두기를 응원한다”고 말했다.

FNP동창회



작년 12월 20일 열린 식품영양산업경영인상 시상식 기념사진. 왼쪽부터 정희련·정진동·이용택·장서진 수상자, 한광열 회장, 허광옥 경영인 대상 수상자, 김복건·황병대·염종록 수상자.

허광옥 태산 대표 경영인 대상

식품영양산업CEO과정(FNP)동창회(회장 한광열)가 작년 12월 20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 그랜드살롱에서 2023년 식품영양산업경영인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한광열(11기) 회장, 이유리(의류 89-93) 생활과학대학장, 식품영양학과 권훈정(식품영양78-82)·한성립(식품영양83-87) 교수 등 동문과 귀빈 2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시상식에서 허광옥(12기) 태산 대표가 경영인 대상을, 정희련(7기) 풀무원샘물 대표·정진동(9기) 닥터포이 대표·이용택

(10기) 동성식품 대표·장서진(11기) 대영팜피코 대표·김복건(12기) 뿌리물산 대표·황병대(13기) 진산티앤씨 대표·염종록(15기) 대경푸드빌 대표가 경영인상을 받았다.

지난해 열두 번째 시상식을 맞은 식품영양산업경영인상은 국내 식품, 영양산업 발전을 주도해 온 훌륭한 경영자를 매년 선정해 발표함으로써 한국 식품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일조함은 물론 국내 식품산업 분야 최고의 상으로도 손색이 없도록 수상자 선정 작업과 시상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모교 FNP과정은 2월 29일까지 신입생 원서를 접수한다. 문의:02-880-5712

평화와 화합의 신년음악회 성황리에 마쳐

금난새(작곡66-70) 지휘자가 진행한 ‘2024 세계 난민구호 신년음악회’가 지난 1월 7일 UC어바인 캠퍼스 바클레이 극장(Barclay Theater)에서 750여 관객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남가주총동창회(회장 김경무)가 주최하고 본회(회장 김종섭)가 후원한 이날 음악회에서 지진, 전쟁 등으로 고통을 받는 지역의 난민들을 위한 성금을 모금했다. 평화와 화합의 신년콘서트는 1월 9일 CES가 열리고 있는 라스베이거스의 한 컨트리클럽에서도 이어져 한국과 미국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번 두 차례 공연은 한미문화 교류의 시간이자 전쟁과 지진 등 세계적 재난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한 위로의 장이기도 했다. 어려운 시대에 서울대 동문 모임이 단순 친교나 오락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사회 공헌 활동에도 동참하겠다는 취지다.

총동창회는 지난해 6월 디즈니콘서트홀에서 열린 ‘금난새와 함께하는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평화음악회’를 기획하기도 했다.

금난새 지휘자는 “음악은 좋은 공익 역할을 한다. 삶이 어렵고 전쟁이



1월 7일 UC어바인 바클레이 극장에서 열린 음악회에는 750여 관객이 참석했다.



1월 9일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트리클럽에서도 평화와 화합의 신년음악회가 이어졌다.

일어날수록 음악의 역할이 중요하다. 세계의 평화가 절실한 때에 지친 사람들에게 좋은 공기를 선물하듯 음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김종섭 본회 회장은 “우리가 흔히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지 않나. 그런 덕담을 들을 때마다 한편으론 어떤 복 받을 일을 했나 자문하게 된다. 한국인들은 전쟁의 참화를 겪었지만 잘 극복하고 이제는 잘 살게 됐다. 복 받은 인생이 된 거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복 짓는 사람이 돼야겠다는 뜻에서 이 공연을 기획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공연에서 코리아-LA챔버 오케스트라와 하모니카 연주자 이윤석 동문, 기타리스트 지익환 등이 비발디의 사계 중 ‘겨울’, 무디의 ‘톨레도’, 롤랑 디앙의 ‘탱고 앤 스카이’ 등을 연주했다.

인도네시아동창회

60학년부터 11학번까지 세대 초월 대화합의 장

골프·만찬 함께 즐긴 송년의 날

재인도네시아서울대동창회(회장 배도운)가 작년 11월 25일 자카르타에서 송년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12부에 걸쳐 동문 친선 골프대회, 동문 가족 송년의 밤으로 진행됐다. 에메랄다 골프장에서 열린 골프대회엔 동문 및 배우자 44명이 참석해 함께 땀 흘리며 친목을 다졌고, 웨스턴 자카르타 호텔에서 열린 송년의 밤엔 동문과 가족 110여명이 참석했다.

60학번 정무웅 동문을 비롯한 원로들

부터 11학번 유진수 동문까지, 세대를 초월해 대화합의 장을 이룬 송년의 밤에서 정무웅 동문이 오랫동안 인도네시아 동문 및 한인 사회에 공헌한 뜻을 기리는 취지에서 공로상을 받았다.

배도운(언어79-83) 회장은 “많은 동문들의 참석을 위해 동창회 운영진이 열심히 준비했다. 이번 모임을 계기로 재인니 동문 모임이 더욱 활성화되길 바라며, 동문 가족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동문들은 저녁 식사를 함께하면서 지난 2년 동안 동창회 사업 내용, 동창회비 사용 내역



인도네시아동창회 송년의 밤 참석 동문들이 기념사진을 찍었다. 1960학년부터 2011학번까지 동문과 가족 110여 명이 참석했다.

과 함께 동창회 운영 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한국-인도네시아 왕복 항공권 등 푸짐한 경품 추첨을 통해 모임의 즐거움을 만끽했다. 나경태 기자

AFB동창회

송년회서 김영환 회장 취임

패션산업최고경영자과정(AFB)동창회(회장 진영식)가 작년 12월 27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호텔 오키드룸에서 ‘2023년 송년회 및 동창회장 이취임식’을 거행했다.

진영식(15기) 회장, 문정욱(9기) 명예회장과 모교 이유리(의류89-93) 생활대학장, 김성민(섬유교분자공학91-

96) 의류학과 교수 등

2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김영환(13기·사진) 디에이치텍스 회장이 제16대 AFB 동창회장에 취임했다. 김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상생과 협력을 주제로 매월 회원간 만남의 장을 열어 네트워크 형성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2월 26일 신년하례회를 통해 1년



간의 사업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2002년 개설, 2004년에 출범한 AFB 동창회는 1대 김규태 회장부터 제15대 진영식 회장까지 20여 년의 역사를 이어왔다.

오는 3월 24기 신입생을 맞이하는 모교 AFB과정은 패션 및 섬유산업 관련 부문의 최고경영자 및 임원급 이상의 경영자 등을 대상으로 3월 13일까지 입학원서를 받는다. 문의:02-880-5712

HPM동창회

자랑스러운 보건인 류희근 동문

보건의료정책최고위과정(HPM)동창회(백승호)가 작년 12월 20일 엠베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2023 송년의 밤’을 개최했다. 백승호(30기) 회장, 정효지(식품영양81-85) 모교 보건대학원장을 비롯한 동문 210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류희근(4기 한림 대표이사) 명예회장이 자랑스러운 보건인상을 받았다. 류 명예회장이 대표를 맡고 있는 한



작년 12월 20일 열린 HPM동창회 송년의 밤에서 참석 동문들이 잔을 들어 건배를 외쳤다.

랩은 지난 1993년 한영라보테크로 시작해 1999년 한랩으로 사명을 변경, 진단

검사에 필요한 자체 기술과 제품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했다. 2013년 충북 오송생명과학국가산업단지에 본사를 확장 이전했고, 진단검사의학 특화기업으로서 업계를 선도하고 있다.

백 회장은 인사말에서 “동문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보답하는 송년의 밤 행사를 마련하게 돼 기쁘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격려와 사랑 부탁드립니다. ‘참여하고 싶은 동문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우수한 기술 글로벌 진출 모교서 밀어준다

첫날 김종섭 본회 회장 관람 연구실·기업 우수기술 전시도

>>1면에 이어서

올해로 네 번째 CES에 참여한 모교는 라스베이거스 유레카파크에 약 93㎡ 규모의 ‘SNU’관을 마련했다. 개막 첫날인 1월 9일에는 김종섭 본회 회장이 유홍림 모교 총장과 함께 전시관을 관람했다.

SNU관에 기업으로 참가한 곳은 아이디어오션을 비롯해 △에스엔디스플레이(디스플레이 표시장치 및 소재) △투모로 로보틱스(AI기반 지능형 로봇) △세코어로보틱스(로봇 자동화 인프라 개발) △팬권포인트(개인건강데이터 거래 및 유통을 위한 플랫폼 서비스) △모플랫(전기차 프리미엄 차량용품 ‘스마트페이스’) △플래닝고(가상환경에서 사진 촬영이 가능한 버추얼 스튜디오 웹 서비스) 등 총 7개 사다.

에스엔디스플레이는 이태우 재료공학부 교수가 창업한 기업이다. 페로브스카이트 발광 소자의 발광효율과 밝기, 수명을 획기적으로 갱신해온 이 교수는 CES에서 이 기술의 상용화 가능성을 보여줬다. 투모로 로보틱스는 그동안 단순 자동화가 어려웠던 물품 분류, 택배 운반, 팔레타이징 등이 가능한 지능형 조작 로봇을 선보였다.

세코어 로보틱스는 오성희 모교 전기정보공학부 교수의 로봇학습연구실을 주축으로 창업한 기업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차세대 물류로봇 VMR, 이상 감지 기술에 기반한 물류로봇 소프트웨어 등 정교한 로봇 소프트웨어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팬권포인트는 이영희 수의대 교수가 창업한 스타트업으로 ‘마이헬스마트’ 서비스를 통해 생활습관, 진료 및 유전자 데이터 등의 개인 건강 데이터를 개인이 관리하고 유통할 수 있는 개인건강데이터 유통 플랫폼을 구축해왔다.

모플랫은 전기차 등 스마트카의 그릴



CES 2024 모교 전시관을 찾은 김종섭 본회 회장(왼쪽 두 번째)과 유홍림 모교 총장(세 번째).
사진=모교 발전재단 변영현 제공

등에 앞뒤로 장착해 차량 정보를 확인하거나 다른 차와 소통할 수 있는 외장용 커뮤니케이션 장치 ‘스마트페이스’를 개발해왔다. 플래닝고는 모교 조경시스템공학부 출신 신진욱 대표가 창업한 기업으로, 실제 물건과 스튜디오, 포토그래퍼 섭외 없이도 3D 스튜디오에서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왔다.

모교 연구실에서 태동했거나 모교가 발굴한 기업들도 우수한 기술을 선보였다. △AI연구원(일상생활을 돕는 서비스로봇) △농생대 바이오시스템 제어 및 정밀농업연구실(농기계 자율작업경로 계획/탐색 시스템, 농기계 자율주행키트), △큐렉소(고관절 발목 연결을 통한 걸음걸이 보조장치) △공대 INRoL(손동작 트래킹 VIST 기술) △소프티오닉스(생산효율성·사용자 편리성이 증대된 차세대 입력장치) 등이 다.

이번 CES의 뜨거운 화두는 ‘공간컴퓨팅’ 관련 기술인 만큼 모교에서도 관련 기술을 내놓았다. 이동준 모교 기계공학부 교수 연구실 ‘INRoL’은 손동작

추적 기술 ‘VIST’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해 CES에 선보이고 있다. VIST는 자기센서 대신 카메라를 관성센서와 함께 사용함으로써 기존 기술에서 시야가 가려지거나, 특정 물체를 집으면 전류가 흘러 자기장이 왜곡되는 등의 문제를 해결했다. 소프티오닉스(대표 임성수 재료공학09-16)는 비접촉 모션 감지기술을 활용한 AR·VR 입력장치를 개발하고 있다. 사물이나 손의 표면 전하를 감지 작동하는 원리로, 편리성을 높이고 에너지 소모량과 가격은 낮춘다는 장점을 내세운다.

이외에도 모교 교원 및 동문 기업으로, 만드로를 비롯해 알고케어(대표 정지원), 에스엘즈(대표 이유미), 액소시스템즈(대표 이후만), 솔리브 벤처스(대표 서주호), 휴로틱스(대표 이기욱) 등이 참가했다. 모교 산학협력단은 참가 기업들에 CES 혁신상 수상 지원 컨설팅과 전시 마케팅 전략, 참가 노하우 교육 등을 지원했다. 앞으로도 우수기술을 보유한 모교 창업 기업과 연구실의 해외 비즈니스와 글로벌 진출을 적극적으로 도울 계획이다. 박수진 기자

대신파이낸셜그룹, 중앙도서관에 30억원 쾌척



모교는 작년 11월 15일 모교에 30억원을 쾌척한 대신파이낸셜그룹과 협약식을 개최했다.

대신파이낸셜그룹이 최근 모교에 중앙도서관 스테디가든 리모델링 기금으로 30억원을 쾌척했다. 관정관 2층에 있는 스테디가든은 개방된 학습공간과 그룹스터디룸이 있는 약 650평 규모의 공간으로, 이번 기부금을 통해 환경 개선이 이뤄질 예정이다. 대신파이낸셜그룹 이어룡 회장은 사회 곳곳에 꾸준히 기부 활동을 해왔다. 관계사인 대신송촌문화재단은 모교 경영대학과 장학복지과에 기금을 기부하기도 했다. 감사패 전달식에 이어룡 회장과 함께 참석한 양홍석(경영01-05) 부회장은 모교 동문으로 대신송촌문화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12월 6일에는 홍종호(경제82-86) 모교 환경대학원 교수가 ‘홍종호 기후

변화 사회과학 논문상’ 기금으로 1억원을 쾌척했다. 홍 교수는 기획재정부 재정정책자문회의의 위원,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위 위원 등을 역임하고 모교에 부임해 환경경제학과 지속가능발전정책 등을 연구해왔다. 환경대학원장, 환경계획연구소장 등을 지냈으며 환경대학원 건물 증축사업기금을 기부하기도 했다.

홍 교수는 “사랑하는 후배이자 제자들이 학업과 연구에 매진해 인류가 직면한 위기 상황에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세계적인 리더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기부한 뜻을 밝혔다. 감사패 전달식엔 홍 교수가 지도교수를 맡은 미식축구부 그린테러스 감독과 선수들도 참석해 박수를 보냈다.

2181명 수시 선발, 일반고 출신 46.3%

남학생 1242명, 여학생 939명

모교는 2024년도 대학 신입생 수시모집에서 총 2181명을 최초 선발했다. 남학생 1242명(56.9%), 여학생 939명(43.1%)으로 지난해와 성비가 동일했다. 최종 합격생 기준 총 765개 고교에서 합격생을 배출했고, 일반고 학생 비중은 46.3%였다.

지난해 12월 14일 모교가 발표한 수시모집 선발결과에 따르면 모교는 2024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지난해보다 126명 늘어난 2181명을 모집했다. 총 1만9279명이 지원해 정원 내 지역균형전형(지균)으로 501명, 일반전형으로 1501명, 정원 내·외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사회통합 전형)으로 179명이 선발됐다. 올해 신설된 사회통합 전형은 교육부가 올해부터 기회균형 전형 모집 인원을 전체 모집인원의 10% 이상으로 의무화함에 따라 기존의 정원 외 전형에 정원 내 전형을 추가했다.

합격생의 출신 고교 유형별로는 일반고(46.3%), 영재고(15.3%), 자사

고(11.7%), 외국어고(9.1%), 과학고(6.6%), 예술/체육고(4.4%), 자공고(3.3%), 국제고(2.9%), 외국고 등 기타(0.2%) 순이었으며 검정고시 출신 합격생은 4명으로 0.2%였다. 검정고시와 외국 소재 고교를 제외한 출신 지역으로 살펴보면, 서울 출신은 전체의 29.0%로 지난해(29.4%)보다 소폭 감소했다. 광역시 출신 합격생은 26.9%로 지난해(25.3%)보다 다소 늘었고, 시 출신 비율은 38.0%로 지난해(39.2%)보다 조금 줄었다. 군 출신은 6.1%로 지난해와 동일했다.

수시모집 합격 후 등록을 포기한 학생들로 인해 모교가 1차로 선발한 총원 합격자는 160명이다. 올해 신설되는 첨단융합학부는 전체 정원 218명 중 수시모집으로 128명을 선발하는데 1280명이 지원해 경쟁률 10 대 1을 기록했고, 1차 총원으로 18명을 선발했다. 그밖에 생명과학부(11명), 응용생물화학부(8명), 간호대(7명), 전기정보공학부(7명), 약학계열(6명), 치의학과(6명) 등에서 총원합격자가 나왔다.

검도부, 도쿄대와 20주년 친선 교류전

모교 검도부(부장 황동수)는 12월 27~30일 도쿄대 검도부와 양교 재학생 및 동문 등 56명이 참여한 가운데 모교 관악캠퍼스 종합체육관에서 서울대·도쿄대 검도부 20주년 친선 교류전을 개최했다.

모교와 도쿄대 검도부는 2003년부터 매년 연말 국제 친선 교류전을 열고 있다. 서울과 도쿄의 양교 캠퍼스에서 번갈아 행사를 개최하며 3박 4일간 환영회와 친선시합, 합동연무, 관광 등을 통해 실력을 겨루고 친목도 다진다. 양대학 검도부의 OB들도 참석해 후배들을 지원하고, 졸업생끼리 시합을 열어 검술을 겨루기도 한다.



모교와 도쿄대 검도부가 친선교류전을 열었다.

햇수로 20년째, 횡수로 18회째인 올해 교류전에서 모교를 찾은 도쿄대 학생들은 시합에 앞서 호암교수회관 숙소에서 머물며 모교 검도부와 연습 경기를 치르고, 함께 서울 시내를 관광했다. 친선시합에서 모교는 28회시합중 6승 8무 14패를 거뒀다.

새로운 가치 창출 재학생 4명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

연구·봉사·창업 등 활약상 인정

지난해 12월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장학재단이 주관하는 ‘2023 대한민국 인재상’에서 모교 재학생 4명이 수상했다. 김하연(자유전공19입)·전현철(농경제사회19입)·최재호(바이오시스템공학22입)·허 건(생명과학19입) 씨 등이다.

대한민국 인재상은 창의적 사고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배려를 통해 사회 발전에 기여한 청년 인재에 수여한다. 대한민국 국적의 15~34세 청년 대상으로 지역심사와 중앙행정기관 추천을 통해 고등학생, 대학·청년 부문 각 50명씩 총 100명을 선정한다. 역대 수상자에 피겨선수 김연아씨, ‘서울버스’ 앱 개발자 유주완씨 등이 있다. 수상자에겐 1명에게 주는 국무총리상과 99명에 수여하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상 및 소정의 상금을 전달한다.

모교 재학생들은 연구와 봉사, 창업



김하연

전현철

최재호

허 건

등 다방면에서 뛰어난 활동을 인정받아 교육부장관상을 받았다. 김하연씨는 사회적 기업 ‘나눔비타민’을 세우고, 결식아동이 아동급식 카드를 갖고 편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돕는 모바일 식권 솔루션 ‘나비얌’을 개발해 소외된 이웃에 대한 관심을 행동으로 실천했다.

전현철씨는 새로운 교육 봉사활동의 가치를 창출해내는 인재라는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전씨는 모교 글로벌사회공헌단에서 사회공헌에 참여한 구성원에 부여하는 멤버십 제도인 사눔리더스 클럽 실버레벨에 올라 있다.

최재호씨는 모교 바이오시스템공학과·경영학과·벤처경영학과에서 다양한 전공을 이수하고, 농식품·의료 분야 등에 활용될 융합기술을 창출하겠다는 목표로 IT와 바이오테크를 접목한 차세대 바이오센서 연구에 적극적으로 임해왔다.

허 건씨는 식물 면역 연구자로서 뛰어난 역량을 인정받았다. 그레고어 덴텔 분자 식물 생물학 연구소에서 연구원을 지냈으며 세포벽 변형, 세포벽 가소성 등에 관심을 두고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끈질긴 관심과 사랑이 유기동물 상처 아물게 하죠”

매주 왕복 4시간 보호소 봉사
자체제작 상품 판매해 후원

모교 유기동물 봉사동아리 ‘꼬리’ 회원들은 매주 일요일 새벽 왕복 4시간의 여정에 나선다. 목적지는 일산의 유기동물 보호소 ‘천사들의 보금자리’. 한때 유기됐던 강아지 180마리와 고양이 40마리를 구조해 돌보는 곳이다. 부원들의 일은 보호소 곳곳을 청소하고 밥과 물을 주는 것. 동물들과 놀아주고, 예쁘게 털을 깎아주기도 한다. 유기동물을 돕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이다.

이메일로 만난 구현준(간호20입) 꼬리 회장은 “4년 전 처음 보호소를 찾았던 때, 여느 봉사자들처럼 이동거리에 놀라고, 익숙지 않은 대소변 냄새에 코를 찜그렸다”고 돌아봤다. 반려견도 키워본 적 없던 그를 봉사에 푹 빠지게 한 건 ‘반달이’라는 한 강아지. “사람을 많이 경계했어요. 가까이 오지도 않고, 우연히 곁에 가면 바로 왈왈 짖으며 도망갔죠. 남자 봉사자를 유별나게 무서워했는데, 입소 전에 나쁜 기억이 있었나 추측할 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날 반달이가 구 회장에 게 다가왔다. 애교는 여전히 없었지만, 슬쩍 냄새를 맡고, 예전과 달리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날 보여준 녀석의 ‘용기’에 보답하고 싶었어요. 책과 영상을 보면서 강아지의 습성과 행동을 공부하고, 그렇게 알아본 건 다음 봉사에서 써먹었죠. 시간이 지나니 누구에게도 애교 하나 없던 녀석이 제겐 애교 넘치는 녀석이 되더라고요.” 많은 꼬리 회원이 비슷한 일을 겪는



꼬리 회원들은 매주 유기동물 보호소로 봉사를 다녀온다. 사진 왼쪽 강아지가 본문 속 반달이.

다. 상처 입은 유기동물과, 아직은 그런 동물이 낯설던 사람들이 서로를 변화시키는 경험이다. “꼬리엔 ‘2번만 봉사활동을 다닌 사람은 없다’는 말이 있어요. 1번 온 분들은 장시간 이동을 견디고 보호소에 도착해도 여름은 여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힘들어 다신 오지 않는 분들이죠. 그 고단함을 이기고 2번 오신 분들은 유기견, 유기묘들이 힘차게 반겨주는 모습에 사랑을 느끼고 서너 번, 그 이상 참여하게 돼요. 인력이 늘 부족한 보호소 사정을 알아서 시험기간에도 쉬지 않고, 때론 공휴일에도 사람을 모으죠.”

보호소 바깥에서도 활동은 이어진다. 6개월에 한 번씩 온·오프라인으로 ‘꼬리마켓’을 열고 보호소 동물을 모델로 디자인한 달력, 포스트잇, 에코백 등을 제작해 판매한다. 매출액 전액을 포함해 매년 100여 만원의 후원

금을 보호소에 전달한다.

‘스토리 리그렘’ 이벤트는 후원에 사람들의 관심과 염원까지 보태려 시작한 일. 입원이 급하거나 응급수술이 필요한 보호소동물의 사연을 SNS에 올리고, 사람들이 ‘리그렘’(타인의 게시물을 내 SNS에 올리는 것)할 때마다 1건당 1000원씩 꼬리가 부담해 병원비를 마련한다. 기관지협착증으로 긴급 입원한 강아지 ‘노랑이’는 160번 리그렘되면서 수월하게 기부금을 마련해 무사히 고비를 넘기고 천수를 누렸다. 구 회장은 “병원에서도 살릴 수 있다고 단언하지 못한 상황에 작은 희망이라도 찾으려 시도한 것인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며, “회원 중 이성진(법전원) 학우가 이러한 활동을 좋게 보셔서 2년 연속 거액의 기부금을 보내 주셨고, 오서현(의학과) 학우는 봉사 후 의예과 일일호프

수익금을 보호소에 전해왔다.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부원들 덕에 꼬리가 이어져온 것”이라며 감사를 전했다.

물론 동물에게 마음을 주고 연을 맺는 것은 가벼운 일이 아니다. 때로는 돌보던 동물들이 세상을 떠나는 슬픔도 감내해야 한다. 구 회장은 “부고를 들으면 그 아이가 있던 구역 입구에 멈춰서서 발걸음을 떼기가 싫어진 다”고 했다. “언젠가 너무 피곤해서 놀아달라는 아이들의 시선을 무시하고 말은 구역의 청소만 끝낸 뒤에 귀가한 적이 있어요. 다음 주 그 중 한 마리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에, 제 스스로가 싫어지더라고요. 이런 후회 속에서, 봉사활동이란 의무감에 매몰돼 본질을 놓치지 않도록 경계하면서 남은 아이들과 앞으로 만날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하려 해요.”

반달이는 구 회장을 시작으로 점점 더 많은 사람을 좋아하게 됐다. 꼬리 회원들도 반달이를 보면서 “포기하지 않고 시간과 관심을 쏟으면 어떤 것도 동물들에게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유기동물이 건강하지 않고, 사람을 무서워하고, 마음에 상처가 많을 거란 선입견은 어찌면 일부 사실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걸지 몰라요. 보호소에도 그런 아이들이 있으니깐요. 제가 선입견을 지우게 된 건 그런 동물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유기동물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곁에서 보고, 저 또한 그 일부가 되면서였어요. 포기하지 않고 관심과 사랑을 주다 보면 또 다른 반달이가 다가올 겁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또 사람들로 인해 치유된다는 말을 믿습니다.” 박수진 기자

모교 단신

미식축구부 OB동문들, 우승축하금 전달

최근 전국 대학 미식축구 선수권대회에서 50년 만에 우승한 모교 미식축구부 그린테라스 선수들에게 OB 동문들이 우승 축하금 280여 만원을 전달했다. 축하금을 모금한 한 용식·이진우·김갑철·김시흥·김지흥·윤석후·오수철·백충기 동문은 그린테라스 전성기인 1960~1970년대에 선수로 활약한 ‘월드 OB’들이다. 그린테라스 OB 동문들은 평소에도 꾸준히 후배들을 후원해오고 있다.

2024학년도 등록금 동결키로

모교는 지난해 12월 27일 개최한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2024학년도 학부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교육부가 2024년도 등록금 인상 법정 한도를 기존 4.05%에서 5.64%로 상향함에 따라 등록금을 대폭 인상할 가능성도 있었으나, 학교 측과 학생대표 측은 고물가·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로써 모교는 16년째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올리지 않게 됐다. 2023년 1학기 기준 모교 등록금은 경영대 244만2000원, 공대 299만8000원, 의대 본과 1학년 503만8000원이다.

국내 첫 AI반도체 대학원 개원

정부가 최대 6년간 연 30억원을 지원해 AI 반도체 분야 인재 495명을 양성하는 사업에 카이스트, 한양대와 함께 선정된 모교가 최근 국내 최초의 AI 반도체 대학원을 개원했다. 모교 AI 반도체 대학원은 AI 반도체 전공 트랙을 신설하고 답러닝 기초, 응용 소프트웨어, 뉴럴네트워크 경량화 연구, 팹리스 기업과 학점연계 현장실습을 진행할 예정이다. 향후 6년간 석박사급 AI반도체 고급 인력을 165명 이상 배출하는 것이 목표다.

학생사회공헌단 팀, 2023 장애인먼저실천상

모교 글로벌사회공헌단(단장 김태균)에서 운영하는 학생사회공헌단 ‘해필리 에버 에프터’팀이 최근 장애인식개선과 장애인 권익증진 활동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가 수여하는 2023 장애인먼저실천상을 수상했다. 재학생 18명으로 구성된 해당 팀은 관악구의 발달장애 청소년들과 함께 발달장애 아동·청소년이 주인공인 동화책 다섯 편을 완성했다. 제작한 동화책은 관악구 내 구립도서관과 전국 단위의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전달했다.

김대일 사회대학장 등 임명

모교는 1월 1일 김대일(경제80-84·사진 왼쪽) 경제학부 교수를 사회과학대학 학장에 임명했다. 김 교수는 미국 시카고대에서 경제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 라이스대 조교수,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원을 역임했다. 1998년 모교에 부임해 노동시장과 교육을 연구하고 있다. 보건대학원 학장에는 이태진(경제83-87·사진 오른쪽)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교수를 임명했다. 이 교수는 모교 보건대학원에서 석사·박사학위, 영국 맨체스터대에서 보건관리학 석사·박사학위를 받고 한림대 의대를 거쳐 2008년 모교에 부임했다. 연구 분야는 보건경제학이다.

2021년부터 재직 중인 김정은(의학87-93 의학과 교수) 의과대학 학장은 2025년 12월 까지 연임한다.

‘나쁜 지방세포’ 제거 면역세포 발견

김재범 모교 교수 연구성과

김재범(동물84-88·사진) 모교 생명과학부 교수 연구팀이 최근 비만일 때 축적되는 ‘나쁜 지방세포’를 제거하는 방법을 발견했다. 지방조직 내 존재하는 특정 면역세포가 나쁜 지방세포를 사멸시키고 건강한 지방세포의 생성에 관여하는 자가보호 과정을 밝힌 것으로, 비만과 관련 질환 치료에 진전이 예상된다.

비만 시 지방조직에는 크기가 큰 나쁜 지방세포들이 축적되어 염증 반응을 유발하고 당뇨병, 지질대사 이상 등 대사질환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방조직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지방조직 내 특정 면역세포가 나쁜 지방세포의 축적을 억제하는 자가보호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과정은 밝혀지지 않았다.

김 교수 연구진은 김종경 포스텍 교수 연구진과 공동 연구를 통해 지방조직 내 면역세포의 일종인 ‘불변

성 자연살해 T(iNKT) 세포’가 지방세포 교체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최초로 발견했다. 이 세포는 비만 상황에서 새롭게 생성되어 크기가 크고 염증을 일으키는 나쁜 지방세포의 선택적 사멸을 유도했다. 동시에 다른 iNKT 세포는 지방조직 줄기세포의 분열을 촉진해 건강한 지방세포의 생성에 관여했다.

김재범 교수는 30여 년간 지방조직과 에너지대사 항상성을 연구해온 비만 연구의 권위자다. 피하지방 조직과 달리 내장지방조직이 특정 줄기세포로 인해 소위 ‘나쁜 지방조직’이 되어가는 과정을 밝혀냈다. 비만으로 증가된 지방조직의 노화 촉진 현상이 대사성 질환의 원인이라는 점을 최초로 규명하기도 했다.

이번 연구는 지방조직 내 특정 면역세포의 작용을 밝힘으로써 비만 및 대사질환 치료제 개발에서 새로운 표적을 제시했다는 의미가 있다. 2023년 12월 21일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 온라인 판에 연구 결과를 게재했다.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서울대 의대생’ 공부 잘하는 이유는

시험 불안·예민함 등 낮아

모교 의대 재학생을 대상으로 심리적 특성을 살펴본 연구 결과가 나와 화제다. 오상훈(조선해양공학02-06·의대원09-13) 의정부유지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최근 국제학술지 ‘BMC Psychology’에 발표한 ‘완벽주의, 시험 불안, 신경증이 높은 학업 성취를 결정한다: 횡단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이다.

연구팀은 학업성취도가 높은 집안으로 모교 의대생 102명을 선정하고, 비교군으로 서울 소재 대학생 120명을 모집해 학업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을 알아봤다. 이들의 수능 성적, 대학 학점 등 학업성취도를 비롯해 시험 불안, 여러 종류의 완벽주의, 회복탄력성, 자기효능감 등 심리적 요인을 분석했다.

그 결과 모교 의대생들은 비교군보다 시험 불안 및 예민함, 노이로제 등의 신경증적 성향이 낮게 나타났다. 완벽주의를 자기지향·타인지향·사회부과적 완벽주의의 세 척도로 나눠 측정한 결과, 다른 두 가지 종류의

완벽주의에 비해 부모님 등 주변 인물들의 기대가 높다고 생각하는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는 비교군보다 낮았다. 연구진은 완벽하려는 노력은 높되, 완벽함에 대한 우려가 낮은 경우를 ‘건강한 완벽주의’(Healthy perfectionists)라고 설명했다.

‘어떤 일에 성공하기 위해 잘 행동할 수 있다는 스스로의 믿음’을 뜻하는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은 모교 의대생이 비교군보다 더 높았다.

다만 모교 의대생들은 비교군보다 자기조절효능감(self-control efficacy)은 낮았다. 자기조절은 힘든 환경에서 목표 달성을 위해 계획하고, 통제하고, 내적 상태에 적응하는 역량을 뜻하는 만큼, 모교 의대생들이 의대처럼 매우 경쟁적인 환경에서 정서적인 적응에 어려움을 겪기도 함을 시사했다.

연구진은 “적절한 시험 불안과 완벽주의가 높은 학업성과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인지행동 치료 등을 통해 적정 수준으로 조절할 수 있다”며 학업에서 좋은 교육환경뿐만 아니라 마음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나의 취미

“보드게임 10분만 해보세요, 세상 모든 주제와 취향이 여기 있습니다”

보드게임 마니아 오한웅 (컴퓨터공학99-06)
한마리곰미디어·한곰게임즈 대표

유튜브 보드게임 1위 채널 운영
직접 게임 창작, 번역 출판도

유튜브 채널 ‘보드라이브’는 ‘대한민국 대표 종합 보드게임채널’을 표방하는 곳이다. 다양한 보드게임을 소개하고, 직접 플레이하며 복잡한 규칙도 쉽게 알려준다. 영상에서 유창한 언변과 현란한 손놀림을 자랑하는 ‘한마리곰’은 바로 7년 전 채널을 만든 오한웅 동문. 영상PD란 본업이 있지만 좋아하는 보드게임을 위해 ‘한곰게임즈’란 회사를 차리고 방송, 제작, 출판까지 한다.

12월 26일 광진구 한곰게임즈 사무실에서 만난 오 동문은 “보드게임 자체보다 사람들과 함께 보드게임을 즐기는 게 좋다”고 했다. 책처럼 책꽂이 보드게임들이 꽂힌 서가를 지나자 ‘보드라이브’에서 여럿이 게임을 하던 공간이 나왔다. 공간은 달라도 그가 가는 곳엔 늘 보드게임과, 함께하는 사람이 있었다.

“초등학생 때 부루마블을 하긴 했지만 본격적으로 빠진 건 대학 때였어요. 녹두에 있는 자취방에서 동아리 사람들과 ‘카탄’이란 보드게임을 하면서 이런 세계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당시 PC게임의 인기가 높았지만 그는 보드게임 만지는 재미가 더 좋았다. 술 대신 보드게임으로 밤을 지새기도 했다. “게임을 해도 모니터 속이 아니라 제 앞에 사람이 있는 게 좋더라고요. 10번 모이면 10번 술만 마시는 것도 재미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놀이 문화가 다양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더 보드게임을 하려고 했죠.”

지인들과 즐기던 정도에서 보드게임 마니아들을 위한 방송을 시작한 건 크리에이터의 길을 걸으면서다. 한때 개발자를 꿈꿨지만, 재미삼아 만든 UCC가 화제를 모으며 영상에 소질을 발견했고, 졸업 후 영상 제작 프로덕션을 차렸다. 기업 홍보 영상과 웹드라마 등을 제작하다 “내 콘텐츠를 만들자”고 생각해 찾은 주제가 보드게임. 블루오션이기도 했고, 좋아하니 질리지 않았다.

무엇보다 사회, 역사, 종교, 과학, 지리, 예술 등 세상 모든 것을 아우르는 보드게임은 마르지 않는 샘이었다. 익숙한 바둑과 윗놀이, ‘부루마블’, 80년대 서울대를 휩쓴 ‘마이트’도 보드게임의 일종. 한마디로 ‘당신이 어떤 사람이든, 보드게임은 당신을 위해 준비됐다’.

“사람마다 다른 성격과 취향의 스펙트럼만큼 다양한 보드게임이 나와 있어요. 어떤 게임은 몸만 쓰는가 하면, 말발로 협상하면서 진행되는 게임도 있죠. 회사 경영이나 냉전시대 축소판 게임도 있고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과 게임을 하게 되면 빨리 성향부터 파악해요. 꼭 이겨야만 하는

사람이 있고, 그저 같이 게임하는 게 좋단 사람도 있어요. 조금만 얘기해 보면 ‘경쟁’ 게임이 맞는지, ‘협력’ 게임이 맞는지 알 수 있죠. 머리 쓰기를 좋아하면 ‘전략’ 게임, 싫어하면 아무 생각 없이 웃을 수 있는 ‘파티’ 게임을 권해요. 초심자에겐 규칙도 쉽고 10분 안에 끝나는 게임이 적합하죠.”

치매 예방에 좋은 게임을 묻자 “색깔·숫자를 기억하는 ‘메모리 게임’ 류도 좋은데, 금방 질릴 수 있으니 마이트 같은 ‘트릭 테이킹’ 류나 루미큐브처럼 손패를 모두 터는 ‘클라이밍’ 류도 좋겠다”

고 답했다. 그가 말한 키워드를 붙여 보드 게임을 검색하면 제품을 찾기 쉽다. 무엇을 묻든

막힘이 없던 그는 “나름대로 보드게임 취향표를 정리하고 있다. 곧 보기 좋게 다듬어서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오 동문이 창작한 보드게임도 있다. “IVF라는 학생선교단체에서 활동했는데, 첫 만남에서 자기소개를 더 재밌게 할 수 없을까 생각해서 ‘I AM’이란 게임을 만들었어요. 카드에 적힌 키워드를 묻고 답하면서 아이스브레이킹하는 게임인데 신학기나 수련회 시즌에 주문이 많아 6쇄까지 찍었죠.” 자신감을 얻어 미국에서 발매된 ‘하트 오브 크라운’의 한국어판도 제작했다. “독일의 세계 최대 보드게임 박람회 ‘에센 슈필’에서 처음 보고 이끌렸어요. 제가 갖고 싶은 게임에 번역과 채디자인을 거쳐 먼저 1000세트를 찍고 재판했습니다. 카드 꾸러미를 전략적으로 운용하는 ‘택 빌딩’ 장르가 좋다면 추천합니다.”

그는 20년 가까이 보드게임을 즐기며 남은 것으로 “사람들과의 추억”을 꼽았다. “처음 애지중지 모은 보드게임 10개를 차에 싣고 다니며 친구들과 늘 같은 게임을 했던 때가 너무 행복했다”고 했다. 이젠 국내 보드게임 저변을 넓히는 데 책임이 막중하다. 큰 수익이 안 나도 6만 구독자를 지닌 보드라이브에서 매주 국내외 신작을 소개하고, 라이브로

게임을 플레이하고, 소장한 보드게임을 경매에 부쳐 나누는 일을 몇 년째 하고 있다. 국내에만 연 500개씩 쏟아지는 신작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해보느라 밤도 자주 샌다며, “정작 좋아하는 게임을 뒤로 미뤄야 하는 건 아쉽다”고 했다. 기쁨이라면 세 살 배기 딸이 벌써 보드게임에 흥미를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보드게임 시장은 코로나 때 크게 커졌어요. 가족용 게임이 잘 팔렸죠. 2023년에 바깥 활동이 많아져서 좀 주춤했지만, 제 생각엔 다시 성장할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뭐든 할 수 있는 시대에 보드게임의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두드러지거든요. 손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정형화된 요즘, 마작패나 침, 카드를 만질 때 독특한 손맛도 하나의 재미입니다.”

머지않은 설, ‘뭘 될 거니?’ 한마디에 의도찮은 마음의 거리가 생기는 게 두렵다면 아침상 치운 자리에 보드게임 한 판 벌이면 어떨까. 함께 할 가족이 있어 행복하고, 아이에게서 날 빼놓은 명석함을 발견하고 흐뭇해질지도 모른다. 참고로 오 동문이 만든 보드게임 ‘I AM’엔 ‘이상형’, ‘친구’, ‘최고의 순간’ 등 말할 거리가 가득하다. 물론 ‘결혼’, ‘공부’ 등 민감한 키워드도 있지만, 말하는 사람의 센스 나름이다. 박수진 기자



화제의 동문

유튜버

‘서울대소자쌤’ 김소영 (동물생명공학05-10) 수학 강사

3개월 만에 96점 받는 법 보실래요?

김소영 동문의 유튜브 채널 ‘서울대소자쌤’은 수확학원 강사로서 진도 때문에 바빠 학생들에게 들려주지 못했던 여러 이야기들(공부법·대학생활·마음가짐의 중요성 등)을 마음껏 전하고자 개설됐다. 2019년부터 2024년 1월 초 현재까지 133개 영상을 올려 5만여 명의 구독자를 모았다. 친근한 강사의 느낌을 주기 위해 어릴 적 친한 친구들에게 불리던 별명 ‘소자’를 채널명에 붙였다. 김소영 동문을 서면으로 인터뷰했다.

-채널명에 ‘서울대’를 넣은 이유는.

“제 말에 신뢰를 더하는 키워드이기 때문이다. 사교육 시장의 목표는 좋은 성적 받아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므로 저의 성과를 먼저 밝히고 조언을 전하는 게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했다. 학교에 누가 되지 않게 열심히 하겠다.”

-직업으로서 학원 강사의 매력은 뭔가.

“대학 시절 늘 과외를 했다.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즐거웠던 경험이 계기가 돼 사교육 시장에 뛰어들었다. 얼마 전 전교 1등한 학생의 어머니가 감사하다며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주셨다. 당사자가 열심히 공부해 이룬 성취인데 저한테까지 고맙다고 말씀해 주신다. 성적 오르고 행복해지는 아이들 볼 때 기분이 정말 좋다. 그런 행복 에너지가 강사라는 직업의 최대 장점인 것 같다. 유일한 단점은 워라밸이 안 되는 것. 시험 기간엔 개인 일상을 포기해야 하고, 남들처럼 정기적으로 휴가계획을 짤 수 없다.”

-운영 중인 수확학원을 소개하자면.

“소자수학은 교습소에서 시작해 고등수학의 모든 커리큘럼을 완비하면서 작년 4월 대치동에 문을 연 신생학원이다. 기존 학원 시스템에선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온오프라인 동시 수업 시스템을 갖춰, 교육의 거리제약을 없앴고 학생 본인에게 당장 필요한 과목과 난이도를 결정해 수강 신청할 수 있다. 실전 심화 문제를 수강생들이 함께 모여 풀고 인증하는 ‘내신챌린지’와 개개인별 진도에 따라 밀착관리하는 ‘오프라인 코칭 수업’ 등을 병행 운영한다.”

-추천 영상은 무엇인지.

“강사 입문하고 초창기 때 찍은 ‘수학 개념 공부법’과 ‘3개월 만에 수학 4등급→수능 96점 만든 비법’을 추천한다. 조회수가 각각 50만, 168만회가 넘는다.”

-향후 업로드될 콘텐츠가 궁금하다.

“지금처럼 앞으로도 수학 때문에 힘들어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공부법을 기획할 예정이다. 문제집 리뷰 영상이나 대다수의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유형에 대한 짚막한 강의 영상도 시리즈로 만들어 올려볼 생각이다.”

-수학 공부 관련해 조언 한 말씀.

“많이 맞아야 재밌는 것 같다. 틀리면 당연히 하기 싫고 힘들어진다. 자기 수준에 맞는 문제집을 선정했다면 일단 고통을 견뎌야 한다. 고통을 견디는 과정이 곧 이해하는 과정이다. 원리와 개념을 깨우친 후엔 작은 범위 안에서라도 오답 2회독을 반복해 성취감을 갖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나경태 기자

추억의 사진



의학도의 다짐

심영보 (의학55-61) 동문

의과대학 1학년 때(1958.2.8.)의 ‘인체해부학실습실’ 모습입니다.

본과에 진입한 첫째 내내 해부학 강의와 실습, 분기별 시험과 수시 땀

힘을 겪으며 연습하고도 냉혹한 시간을 보낸 뒤 마침내 의사가 될 기초능력을 확인받는 학년 말 ‘인체해부학실습’ 때 사진입니다.

넓은 실습실 10여 테이블에 올려진 각 성인 시체에 7~8명씩의 실습조가 배치되어 그동안 글과 그림과 재료로만 익힌 인체 구조의 거북함과 신묘함을 실체에서 확인합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두개골 흉강 복강 속 그리고 사지까지 살살이 헤쳐 살핍니다.

종일 이어지는 실습 중에 톱툰이 갖는 휴식 시간은 장차 인류와 국가사회에 기여할 인격과 자질을 갖추기로 다짐하는 그룹별 인증샷의 기회입니다. (사진은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김진호, 심영보, 손기용, 박준환, 김홍덕, 계훈택, 박승균. 모두 의학55-61.)

저자와의 인터뷰

“인간다움의 핵심 요소는 공감, 이성, 자유”

‘인간다움’ 쓴 김기현 모교 철학과 교수

교보문고 인문 베스트셀러에 올라
교수 재직 시절 펴내는 마지막 책

김기현(철학78·83 모교 발전재단 부이사장) 모교 철학과 교수가 쓴 ‘인간다움’(21세기북스)이 교보문고 인문 부문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지성사를 다룬 책이 오랜만에 받는 관심이다.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철학사를 인간다움이라는 키워드로 쉽게 설명했다는 평이다. ‘인간다움’은 올8월 정년을 맞는 그가 재직 시절 펴낸 마지막 책이기도 하다. 그동안 연구의 농축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기현 교수는 학생들에게 인식론을 인지과학과 연결하고 심리철학으로 확장해 가르치며, ‘세바시’, ‘TED’ 등 대중 강연과 기업 및 사회 각 계층의 리더십 인문학 강연 등으로 삶에 철학을 적용하는 방법을 알리기 위해 꾸준히 활동해왔다.

지나해 12월 27일 모교 발전재단 부이사장실에서 만난 그에게 왜 지금 ‘인간다움’을 화두로 던졌는지 물었다.

“전쟁, 잔혹한 사건들, AI 출현 등으로 인간다움에 대한 고민이 짙어지는 시기입니다. 내면세계를 구성하는 많은 항목 중에서 인간다움을 선택한 이유는 인간다움이 한 시대의 이정표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미래를 진단하는 방향키 같은 것이죠. 출발은 제 개인적인 고민입니다. ‘야수와 천사’가 공존하는 나에게 인간다움은 무엇일까를 생각하다 책을 집필하게 됐죠.”

이 책은 처음 ‘개인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21세기북스의 ‘서가명강 시리즈’의 하나로 기획됐다. 서가명강은 서

울대를 가지 않아도 들을 수 있는 명강의 시리즈를 뜻한다. 책의 내용이 인간다움으로 진화하면서 내용도 방대해졌고, 단행본으로 나오게 됐다.

김 교수는 “한국의 심한 갈등 현상을 보면서, ‘이념적 대립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 지켜야 하는 부분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란 생각에 인간다움에 관심을 두게 된 측면도 있다”고 했다.

그렇다고 인간답게 사는 것을 가르치는 교훈서는 아니다. 책은 인간다움에 대한 전통적 생각은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이 생각이 어떤 변화의 압력을 받고 있는지를 살핀다.

인간다움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 답이 막연한 인간다움에 대해 이 책은 분명하게 3가지 기준을 제시한다. 김 교수는 책에서 “인간다움의 핵심 가치가 ‘공감’, ‘이성’, ‘자유’의 3가지 축을 통해 현실 속에서 구체화 된다”고 말한



다. 즉 인간다움은 공감을 연료로 하고 이성을 엔진으로 하며 자유로써 규범을 구성하는 성품이라는 것이다. 이 3가지 요소가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지성사 속에서 어떻게 주목받고 형성됐는지 쉽게 설명한다.

“인간다움에 대한 생각이 다양할 수 있어요. 어떤 이는 영원성을 추구하는 것을 인간다움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제가 말한 인간다움은 관계에서의 인간다움입니다. 인간다움의 개념을 관계 속에서 명확하게 그려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다면 김 교수가 걱정하는 이 시대 인간다움의 도전은 무엇일까. 그는 “AI에 대한 의존성 심화, 비대면 사회로의 진전, 나르시스트의 증가”를 문제로 들었다. “개인을 만드는 것

은 그가 한 선택들의 합일 수 있는데, 그 선택을 AI에게 의존하면 나중에 그는 어떻게 될까요?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늘어나면서 비대면 사회로 가는 것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문자로 공감을 얻어낼 수 있을까요? 오히려 오히려 해가 커질 수 있죠. 또 자신에 대한 과대망상이 인스타그램 등에서 넘칩니다. 밖의 소음에 문을 잠그고 내면의 소리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김 교수는 인간다움이 도전을 받고 있다면, 이 자산을 유지 보존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궁금해질 수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선 과제로 남겼다. ‘공감 능력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거나 ‘이성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위해 토론하는 문화가 필요하다’는 식의 뻔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무책임하게 느껴졌기 때문.

그는 “미래지향적인 해결 방안에 대한 탐구는 별도의 책으로 깊이 있게 다뤄질 필요가 있고, 이 작업은 미래의 과제 또는 다른 사람의 과제로 남겨놓고 자 한다”고 말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다움의 개념이 과거와 달랐듯이 미래에 바뀔 수 있어요. 우리 자산으로서 인간다움이 중요하다면 그 개념을 그냥 세월에 맡겨 흘러보낼 게 아니라, 방향성을 생각해 보고, 유지할 부분은 무엇인지, 이 책을 읽고 모두가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김 교수는 모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모교 대학원 철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미국 아리조나대학교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지은 책으로는 ‘공존과 지속’(공저), ‘인문의 길 인간의 길’(공저), ‘현대인식론’, ‘지식의 최전선’(공저) 등이 있으며, 한국인지과학학회 회장, 한국분석철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EXHIBITIONS

소마미술관 신소장품전: 정·중·동

2월 18일까지 송파구 소마미술관



몸을 매개로 예술과 삶을 바라보는 소마미술관의 기조에 따라 몸과 인물, 그 연장선상의 자연과 풍경을 다루는 작품을 모았다. 9명의 참여 작가 중 강경구(회화 73-81) 작가의 실존적 인간의 모습을 그린 작품, 김 태(회화55줄) 작가의 치밀한 구성력이 돋보이는 인물화, 이만익(회화 57-61) 작가의 올림픽 개폐회식 기념 연작을 전시한다. 문의: 02-425-1077

서도호와 아이들: 아트랜드

내년 12월까지 노원구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서도호(회화81-85) 작가는 두 자녀와 7년간 어린이용 점토를 사용해 환상적인 생태계 ‘아트랜드’를 만들었다. 이를 관객 참여형 전시로 확장해 1만여 명의 어린이들과 함께 더 큰 아트랜드를 꾸며가고 있다. 전시장에 있는 공작용 점토 등을 이용해 관객들도 참여할 수 있다. 올해 2월 29일까지 참여형으로 운영된다.

문의: 02-2124-5201

CONCERTS

아름다운 목요일, 금호라이징스타: 안용현 기타

2월 15일 서대문구 금호아트홀 연세



클래식 기타리스트 안용현(기악 16입·사진) 동문은 2023 발렌시아 알보라야 국제 기타콩쿠르 우승 및 청중상, 2022 페르난도 소르 콩쿠르 1위 없는 2위, 스페인 아리아가 콩쿠르 우승 등 국제무대에서 인정받고 있다. 라우타바라 ‘기타를 위한 유니콘의 세레나데’ 등 클래식 기타 명곡을 선보인다.

문의: 02-6303-1977

오페라 클라이맥스 2024

2월 25일 서초구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한국인이 좋아하는 오페라로 손꼽히는 베르디 ‘라 트라비아타’, ‘리골레토’, 푸치니 ‘토스카’, 구노 ‘파우스트’의 대표 아리아와 듀엣곡을 쟁쟁한 성악가들이 선보인다. 베이스 바리톤 사무엘 윤(윤태현 성악90-94), 소프라노 캐슬린 김·이명주(성악00-05), 테너 정호윤(성악96-01)·김민석, 바리톤 김기훈·최인식 등이 참여한다.

문의: 02-3443-9482

BOOKS

어찌 세월이 가만있었겠는가

곽광수(불문59-65) 모교 명예교수 외 푸른사상



곽광수, 김경동, 김명렬, 김학주, 안삼환 동문 등 속맥임을 자처하는 이 시대의 선비들이 펼쳐 보이는 다채로운 인문학

적 사유의 세계. 각자의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학자들이 대학 시절에 대한 그 리움과 학문에 대한 교류를 목표로 수필집을 내기로 9인이 뜻을 모아 2003년 속맥 동인지의 첫째 권이 출간된 지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했다. 속맥 동인지 발간 20주년 기념호인 속맥 16집 ‘어찌 세월이 가만있었겠는가’는 세월이 지나면서 떠난 회원과 새로운 동인이 합류, 현 회원 14인 중에서 이번 호에는 12인의 글을 수록했다. 수필을 중심으로 논평, 서평, 예술평론, 여행기 등 신변잡기적인 글들마다 속맥임을 자처하는 이 시대 선비들이 펼쳐는 다채로운 인문학적 사유의 세계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독일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양돈선(행대원76-78) 전 한국자금중개 부사장 / 미다스북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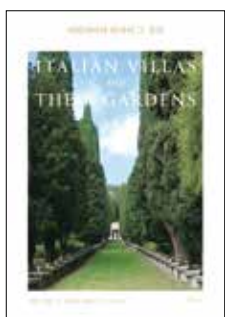


‘독일은 지루한 천국이고 한국은 재미있는 지옥이야.’ 흔히들 독일은 역동성과 진취성이란곤 찾아보기 힘든 재미없는

사회일 것 같다고 말한다. 생동감이라곤 오직 자동차들이 질주하는 아우토반에서만 느낄 수 있다. 하지만 과연 독일이 마냥 지루하기만 한 곳일까? 양돈선 동문은 이 책을 통해 독일이 가진 ‘재미 없고 정제된 국가’라는 인식을 비틀고 있다. 오히려 독일의 잠재력을 낱알이 파헤치며 하드 파워를 보완하고 소프트 파워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하며 교훈을 전달한다. 그동안 우리는 독일 모델을 술하게 도입했으나 대부분 실패했다. 그 원인과 부작용은 무엇이며, 앞으로 독일을 따라잡고 넘어서서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책은 그 해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빌라와 그 정원

김동훈(법학96-01) 헌법재판소 공보관 옮김 / 글항아리



이디스 워틴의 ‘이탈리아의 빌라와 그 정원’이 출간된 지 120년 만에 김동훈 동문에 의해 한국어로 번역됐다. ‘순수의 시대’ 작가이자 최초의 여성 플리처상 수상자로 널리 알려져 있는 이디스 워틴은 직접 정원을 설계하고 가꾼 정원가이기도 했다. 이 책은 이탈리아 정원뿐 아니라 서양 정원에 관한 최고의 고전 중 하나로 손꼽힌다. 김 동문은 법조인으로서 특이하게 서울 근교와 시골 옛 할머니 댁에서 정원과 텃밭을 오랫동안 가꾸어온 정원 마니아이기도 하다. 그는 2015~2016년 이탈리아 로마 유학 시절 우연히 이 책을 만났다. 그는 역자 서문에서 “간결하면서도 풍부한 묘사와 설명, 역사와 문화에 대한 해박한 지식, 간간히 드러나는 감상과 평가가 적절히 어우러져 우리를 이탈리아의 정원 속을 거닐도록 만든다”고 했다.

대’ 작가이자 최초의 여성 플리처상 수상자로 널리 알려져 있는 이디스 워틴은 직접 정원을 설계하고 가꾼 정원가이기도 했다. 이 책은 이탈리아 정원뿐 아니라 서양 정원에 관한 최고의 고전 중 하나로 손꼽힌다. 김 동문은 법조인으로서 특이하게 서울 근교와 시골 옛 할머니 댁에서 정원과 텃밭을 오랫동안 가꾸어온 정원 마니아이기도 하다. 그는 2015~2016년 이탈리아 로마 유학 시절 우연히 이 책을 만났다. 그는 역자 서문에서 “간결하면서도 풍부한 묘사와 설명, 역사와 문화에 대한 해박한 지식, 간간히 드러나는 감상과 평가가 적절히 어우러져 우리를 이탈리아의 정원 속을 거닐도록 만든다”고 했다.

클래식 음악수업

김준희(기악96-00) 피아니스트 사람인



국립 인천대 기초교육원에서 심화교양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김준희 동문이 클래식 음악에 입문하려는 초보자는 물론 애호가까지 아우르는 종합 안내서를 펴냈다. 악기별·장르별로 듣는 음악 감상법, 고대부터 현대까지 이르는 클래식의 역사, 바흐·모차르트·베토벤 등 알아두면 좋은 대표 작곡가, 꼭 들어 봐야 할 명곡 등 거의 모든 클래식 음악 이야기를 한 권에 담았다.

특히 저자가 엄선한 추천곡을 QR코드로 연결해 언제 어디서나 생생하게 음악을 즐길 수 있다. 김 동문은 ‘법보신문’에 3년간 융합적 관점의 음악 칼럼을 연재했고, 유튜브를 포함한 다양한 매체를 통해 대중과 소통해왔다. 특히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녁’의 클래식 전문 패널로 많은 호응을 받았다.

동정

‘동정’란은 동문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인사, 수상, 행사, 애경사 등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매달 30일 이전에 보내주시면 다음달 신문에 게재됩니다.

주소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 연구공원 416호 이메일 news@snu.ac.kr 전화 02-886-2219 팩스 02-886-2218

인사



제갈정웅(상학65-72 전 대림대 총장) 최근 한국현대사인협회 제28대 이사장에 선임.



김 인(체육교육70-78 남대문금고 이사장) 12월 21일 제19대 새미올금고 중앙회장에 선출.



김윤명(전자공학71-75 학원밀알장학재단 이사장) 12월 14일 한국전자파학회 펠로우 회원으로 추대.



박지향(서양사71-75 모교 명예교수) 12월 29일 제7대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에 임명.



박병무(법학80-84 VIG파트너스 대표) 12월 11일 엔씨소프트 공동대표에 선임.



이관섭(경영80-84 대통령실 정책실장) 12월 28일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임명.



장호진(외교80-84 외교부 1차관) 12월 28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에 임명.



이병래(무역81-85 한국공인회계사회 부회장) 12월 5일 제55대 손해보험협회장에 선임.



최상목(사법82-86 대통령실 경제수석) 12월 29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취임.



권오남(대학원83-85 모교 수학교육과 교수) 12월 11일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에 취임.



김재형(사법83-87 모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월 1일 한국민사법학회 회장에 취임.



백기봉(사법83-87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최근 유엔 산하 상설 전쟁 범죄 재판소인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에 선출.



송명달(정치84-88 해양수산부 정책실장) 12월 27일 해양수산부 차관에 임명.



최우형(경제84-88 BNK금융지주 디지털&T 부문장) 12월 29일 케이뱅크 4대 은행장에 취임.



김동일(경제85-89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12월 26일 부산지방국세청장에 임명.



남궁원(경제85-89 하나은행 부행장) 12월 14일 하나생명보험 신입 대표에 선임.



박상우(행대원85-07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12월 26일 국토교통부 장관에 취임.



이춘우(경영85-89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12월 3일 한국인사관리학회 40대 회장에 취임.



황창전(항공공학89 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UAM 연구부장) 1월 1일 제37대 한국항공우주학회 회장에 취임.



이성수(경영86-90 한화 사장) 12월 22일 한화정밀기계 대표이사에 내정.



이훈기(화학공학86-90 롯데지주 ESG경영혁신실장) 12월 6일 롯데그룹 화학군 총괄대표에 선임.



임기근(경영86-92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12월 27일 조달청장에 임명.



이명순(경제87-91 전 금감원 수석부원장) 12월 28일 SGI 서울보증보험 대표이사에 선임.



김범수(외교88-92 모교 자유전공학부장) 12월 7일 제54대 한국정치학회장에 당선.



김윤상(경영88-92 조달청장) 12월 27일 기획재정부 2차관에 임명.



옥동석(경제88-92 전 국회의원 보좌관) 12월 13일 제6대 소방산업공제조합 이사장에 취임.



이세훈(공법88-92 전 금융위 사무처장) 12월 26일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에 임명.



송미령(한대원89-9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1월 2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취임.



인.



민승배(체육교육91-95 BGF리테일 영업개발부문장) 11월 2일 BGF리테일 대표이사에 임명.



정근일(체육교육91-95) 최근 한진 글로벌 사업본부장에 임명.



박세훈(한대원92-94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1월 2일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장에 선임.



권성훈(전기공학94-98 모교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12월 26일 한국공학한림원 정회원에 선출.



오석환(행대원95-98 대통령실 교육비서관) 12월 6일 교육부 차관에 임명.



최지현(사법95-99 대통령실 부대변인) 최근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에 내정.



김기준(원자핵공학96-04 카카오벤처스 부사장) 12월 18일 카카오벤처스 대표(CEO)에 선임.



하정우(컴퓨터공학97-04 네이버 클라우드 센터장) 12월 26일 한국공학한림원 정회원에 선출.

이충효(서어서문90-94 티캐스트 경영기획팀장) 12월 17일 태광그룹 티캐스트 상무보에 선임.

배형근(ALP 27기 현대모비스 CFO) 12월 20일 현대차증권 사장에 선임.

이봉주(SPARC 25기 전 삼성전자 부사장) 1월 2일 웅진씽크빅 대표이사에 내정. 그룹 내부 발탁 아닌 외부 인재로는 첫 선임 대표.

민태홍(ASP 36기 한국현대문화미술협회 작가회장) 최근 제35회 월드미스유니버시티 한국대회 심사위원에 위촉.

남시욱(정치54-58 화정평화재단 이사장) 12월 12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가 수여하는 ‘제1회 자랑스런 편집인상’ 수상.

강천석(사회69-76 조선일보 교문) 1월 7일 서재필기념사업회가 수여하는 제6회 송재 서재필 언론인상 수상.

강창일(국사71-80 전 주일대사) 11월 22일 나루히토 일왕이 수여하는 옥일장대수장 받음.

이창용(경제80-84 한국은행 총재) 1월 3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즈가 발행하는 글로벌 금융 전문지 ‘더뱅크’로부터 ‘아태 지역 올해의 중앙은행장’으로 선정.

이민규(경영89-93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 대표) 12월 5일 무역진흥육공 대통령 표창 및 이천만불수출탑 수상.

이준환(산업디자인90-95 모교 언론정보학부 교수) 11월 11일 제1회 우석호저널리즘상 학술부문 수상.

신연수(법학01-05 법무법인 피터앤김파트너) 최근 톰슨로이터 산하 법률전문지인 ‘ALB’가 뽑은 ‘올해의 여성변호사’로 선정.

박순호(AMP 43기 세정그룹 회장) 작년 11월 9일 ‘2023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시상식에서 국민훈장 동백장 받음.

이문화(AMP 94기 삼성생명 전략영업본부장) 12월 1일 삼성화재 사장에 선임.

엄주성(AIP 60기 키움증권 전략기획본부장) 11월 28일 키움증권 대표이사에 선임.



김윤구(AMP 84기 현대차그룹 감사실장) 12월 20일 현대오트모터 사장에 선임.



이봉주(SPARC 25기 전 삼성전자 부사장) 1월 2일 웅진씽크빅 대표이사에 내정. 그룹 내부 발탁 아닌 외부 인재로는 첫 선임 대표.

민태홍(ASP 36기 한국현대문화미술협회 작가회장) 최근 제35회 월드미스유니버시티 한국대회 심사위원에 위촉.

남시욱(정치54-58 화정평화재단 이사장) 12월 12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가 수여하는 ‘제1회 자랑스런 편집인상’ 수상.

강천석(사회69-76 조선일보 교문) 1월 7일 서재필기념사업회가 수여하는 제6회 송재 서재필 언론인상 수상.

강창일(국사71-80 전 주일대사) 11월 22일 나루히토 일왕이 수여하는 옥일장대수장 받음.

이창용(경제80-84 한국은행 총재) 1월 3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즈가 발행하는 글로벌 금융 전문지 ‘더뱅크’로부터 ‘아태 지역 올해의 중앙은행장’으로 선정.

이민규(경영89-93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 대표) 12월 5일 무역진흥육공 대통령 표창 및 이천만불수출탑 수상.

이준환(산업디자인90-95 모교 언론정보학부 교수) 11월 11일 제1회 우석호저널리즘상 학술부문 수상.

신연수(법학01-05 법무법인 피터앤김파트너) 최근 톰슨로이터 산하 법률전문지인 ‘ALB’가 뽑은 ‘올해의 여성변호사’로 선정.

박순호(AMP 43기 세정그룹 회장) 작년 11월 9일 ‘2023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시상식에서 국민훈장 동백장 받음.

이문화(AMP 94기 삼성생명 전략영업본부장) 12월 1일 삼성화재 사장에 선임.

엄주성(AIP 60기 키움증권 전략기획본부장) 11월 28일 키움증권 대표이사에 선임.

장동백장 받음.

수상

남시욱(정치54-58 화정평화재단 이사장) 12월 12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가 수여하는 ‘제1회 자랑스런 편집인상’ 수상.

강천석(사회69-76 조선일보 교문) 1월 7일 서재필기념사업회가 수여하는 제6회 송재 서재필 언론인상 수상.

강창일(국사71-80 전 주일대사) 11월 22일 나루히토 일왕이 수여하는 옥일장대수장 받음.

이창용(경제80-84 한국은행 총재) 1월 3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즈가 발행하는 글로벌 금융 전문지 ‘더뱅크’로부터 ‘아태 지역 올해의 중앙은행장’으로 선정.

이민규(경영89-93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 대표) 12월 5일 무역진흥육공 대통령 표창 및 이천만불수출탑 수상.

이준환(산업디자인90-95 모교 언론정보학부 교수) 11월 11일 제1회 우석호저널리즘상 학술부문 수상.

신연수(법학01-05 법무법인 피터앤김파트너) 최근 톰슨로이터 산하 법률전문지인 ‘ALB’가 뽑은 ‘올해의 여성변호사’로 선정.

박순호(AMP 43기 세정그룹 회장) 작년 11월 9일 ‘2023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시상식에서 국민훈장 동백장 받음.

이문화(AMP 94기 삼성생명 전략영업본부장) 12월 1일 삼성화재 사장에 선임.

엄주성(AIP 60기 키움증권 전략기획본부장) 11월 28일 키움증권 대표이사에 선임.

장동백장 받음.



최병오(AMP 63기 형지그룹 회장) 11월 10일 제37회 섬유인날 기념식에서 모범경영인 분야 금탑산업훈장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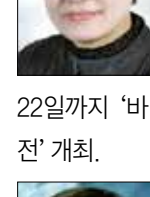
리기태(AIP 2기 전 통방패연 명장) 최근 보테가 베네타의 ‘올해의 보테가 포보테가’에 선정.



강승구(GLP 14기 케이원전자 대표) 11월 16일 중소벤처기업부가 개최한 2023 중소기업 융합대전에서 은탑 산업훈장 받음.



신성식(HPM 12기 중앙일보 복지전문기자) 11월 17일 ‘제9회 송영 이윤구 사회복지지도자상’ 공로상 받음.



황해령(BCP 7기 루트로닉 대표) 12월 14일 ‘2023 벤처창업 진흥 유공 시상식’에서 금탑산업훈장 받음.



김재임(회화56-60 화가) 강원 고성군 진부령미술관에서 2월 16일까지 특별초대전 개최.

서동희(응용미술66-70 건국대 명예교수) 서울 자양동 더샵 스타시티 C-3304호에서 5월 22일까지 ‘바ible 도자예술관 특별전’ 개최.

김창완(잠사71-75 가수) 11월 23일 새앨범 ‘나는 지구인이야’ 발매.

김상은(의학77-83 모교 명예교수) 최근 ‘포스트 휴먼과 융합: 5차 산업혁명의 문턱에서’(한울아카데미)를 엮은이 대표로 펴냄.

최영훈(법학78-83 전 동아일보 편집국장) 12월 27일 서울영등포 TCC센터에서 ‘왜 사람인가’ 출

최병오(AMP 63기 형지그룹 회장) 11월 10일 제37회 섬유인날 기념식에서 모범경영인 분야 금탑산업훈장 받음.

리기태(AIP 2기 전 통방패연 명장) 최근 보테가 베네타의 ‘올해의 보테가 포보테가’에 선정.

강승구(GLP 14기 케이원전자 대표) 11월 16일 중소벤처기업부가 개최한 2023 중소기업 융합대전에서 은탑 산업훈장 받음.

신성식(HPM 12기 중앙일보 복지전문기자) 11월 17일 ‘제9회 송영 이윤구 사회복지지도자상’ 공로상 받음.

황해령(BCP 7기 루트로닉 대표) 12월 14일 ‘2023 벤처창업 진흥 유공 시상식’에서 금탑산업훈장 받음.

김재임(회화56-60 화가) 강원 고성군 진부령미술관에서 2월 16일까지 특별초대전 개최.

서동희(응용미술66-70 건국대 명예교수) 서울 자양동 더샵 스타시티 C-3304호에서 5월 22일까지 ‘바ible 도자예술관 특별전’ 개최.

김창완(잠사71-75 가수) 11월 23일 새앨범 ‘나는 지구인이야’ 발매.

김상은(의학77-83 모교 명예교수) 최근 ‘포스트 휴먼과 융합: 5차 산업혁명의 문턱에서’(한울아카데미)를 엮은이 대표로 펴냄.

최영훈(법학78-83 전 동아일보 편집국장) 12월 27일 서울영등포 TCC센터에서 ‘왜 사람인가’ 출

최병오(AMP 63기 형지그룹 회장) 11월 10일 제37회 섬유인날 기념식에서 모범경영인 분야 금탑산업훈장 받음.

리기태(AIP 2기 전 통방패연 명장) 최근 보테가 베네타의 ‘올해의 보테가 포보테가’에 선정.

강승구(GLP 14기 케이원전자 대표) 11월 16일 중소벤처기업부가 개최한 2023 중소기업 융합대전에서 은탑 산업훈장 받음.

신성식(HPM 12기 중앙일보 복지전문기자) 11월 17일 ‘제9회 송영 이윤구 사회복지지도자상’ 공로상 받음.

황해령(BCP 7기 루트로닉 대표) 12월 14일 ‘2023 벤처창업 진흥 유공 시상식’에서 금탑산업훈장 받음.

김재임(회화56-60 화가) 강원 고성군 진부령미술관에서 2월 16일까지 특별초대전 개최.

서동희(응용미술66-70 건국대 명예교수) 서울 자양동 더샵 스타시티 C-3304호에서 5월 22일까지 ‘바ible 도자예술관 특별전’ 개최.

김창완(잠사71-75 가수) 11월 23일 새앨범 ‘나는 지구인이야’ 발매.

김상은(의학77-83 모교 명예교수) 최근 ‘포스트 휴먼과 융합: 5차 산업혁명의 문턱에서’(한울아카데미)를 엮은이 대표로 펴냄.

최영훈(법학78-83 전 동아일보 편집국장) 12월 27일 서울영등포 TCC센터에서 ‘왜 사람인가’ 출



이재필(행대원83-87 전 고용노동부장관) 2월 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4반세기: 성찰과 과제’를 주제로 일자리연대 정책토론회 개최.



이상갑(대학원76 졸 위계아카데미 원장) 작년 12월 22일 경남 고성에서 신간 ‘마암 석마 가짓골’ 출판기념회 개최. 마암면 석마리 가짓골은 함안 이씨 선현을 모신 위계서원이 있는 문중성소.



이보형(지리91-95 마콜컨설팅그룹 총괄 사장) 24년 1월 1일부터 매일경제신문 ‘매경춘추’ 새 필진으로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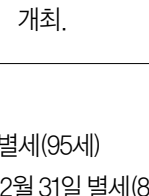
백재은(성악94-98 성악가) 11월 30일 출간한 오페라 해설에세이 ‘디어 마이 오페라’가 교보문고 ‘주간 베스트’에 선정.



이정현(성악97-03 성악가) 작년 12월 10일 스페셜 EP 앨범 ‘새날의 노래’ 발매.



황한술(체육교육99-03 한솔루트원 대표) 최근 ‘2023 월드푸드테크 엑스포’에서 천연추출 폴리페놀 이용 살모넬라균 살균 및 조류독감 항바이러스 시스템 전시.



알비올 안드레스(조선해양공학09-14 열차기관사) 작년 12월 31일 종로구 보신각에서 시민대표 18명 중 한 명으로 ‘제야의 종’ 타종.

이영관(AMP 57기 도레이첨단소재 회장) 최근 사원에서 회장까지 50년의 시간을 담은 자서전 ‘소재가 경쟁력이다’ 출간.

최재영(GLP 19기 한국바른언론인협회 이사장) 작년 12월 26일 국민일보 컨벤션홀에서 ‘제5회 대한민국 위대한 국민대상’ 시상식 개최.

삼가 명복을 빕니다

함희동(경영여자사법46입) 12월 22일 별세(95세)

송윤재(법학54-58 전 현대상선 회장) 12월 31일 별세(88세)

윤양현(상학54-59 전 교보문고 대표) 12월 25일 별세(89세)

백운택(영어교육63졸 전 한국방송통신대학 교수) 11월 11일 별세(89세)

정진욱(농공학55-60 전 대한건설협회 부회장) 12월 2일 별세(88세)

이상주(교육행정56-60 전 교육부총리) 12월 7일 별세(86세)

최영상(영어교육56-61 전 대구그룹 부사장) 2024년 1월 1일 별세(87세)

보내주신 사랑, 역사가 됩니다

보내주신 귀한 회비는 관련법규에 따라 엄격·투명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자랑스러운 44만 서울대인의 새 역사 창조에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고문·자문위원·회장단·특별과정 동창회장·논설위원·평생회비·연회비·지부분담금 등 : 2023. 11. 24 ~ 2023. 12. 23
성명 오른쪽 숫자 : 입학 연도(미학인시 졸업 연도) / 특별과정은 기수 표시

회비 납부 방법

구 분	입 회 비	연 회 비	평 생 회 비
일반회원	10,000원	50,000원	500,000원 (65세 이상은 300,000원)
이사회원		150,000원	-

● 입회비는 입회시 한번 납부하시면 됩니다.
● 회비는 연회비와 평생회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연회비와 평생회비 중 한 가지만 선택해서 납부해 주십시오.
● **지로** : 지로용지를 가까운 금융기관의 공과금 자동화기에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 **은행계좌** : 다음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면 됩니다. (성함, 학과, 입학 연도를 같이 표기 바랍니다) **예금주: 서울대학교총동창회**
농협 079-01-442414 신한 140-001-180304 우리 1005-401-137376 국민 827-01-0248-009
● **신용카드** : www.snua.or.kr 첫 화면 오른쪽 중간 '동문회비·후원금' 배너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로그인 없이도 사용 가능)

회비 납부하시면

- 매월 총동창신문 제공
- 익년도 탁상달력 제공
- 경조 서비스 이용
- 건강검진 우대

고문					
△이길여 의대 51	△윤재인 80	△진영규 11	◆SGS △김광두 03	△이경민 19	
회장					
△김종섭 문리대 66	◆사회대 △박기훈 97	△김재형 99	△김태종 93	◆APC △김두환 05	
상임부회장					
△양규모 문리대 61	◆자연대 △양명룡 75	△신용인 86	△이상원 79	◆HPM △김운하 05	△김재중 22
부회장					
△우창록 법대 70	◆경영대 △박석준 75	△박훈기 81		△김현호 32	△이규봉 29
△황해선 미대 88	△오정구 74	△윤주환 85	△최준원 87	△이한구 10	△정회선 14
	◆공대 △강구선 63	△곽병현 67		◆AMPP △서영교 11	△서영신 10
	△권옥현 62	△김동진 83	△김성도 75	◆AFB △엄 윤 20	
	△김태환 66	△남장수 64	△신현식 69	◆AMPFRI △배명섭 09	
	△심현철 87	△오영두 73	△유병국 97	◆FIP △박두환 13	△신호식 13
	△이성규 58			△이부일 02	
	◆농생대 △문현필 64	△유부열 66		◆GLP △김달수 32	△이호영 36
	△정용찬 81	△김윤조 89		△정해운 32	△조복기 27
	◆문리대 △김주연 60	△문우홍 67		◆SPARC △이승호 34	△이수원 15
	△박기덕 70	△오종발 68	△유홍선 60졸	◆AFP △조원국 05	
	△정의만 70	△정태철 55		◆ASP △노희철 18	△유연철 22
	◆미대 △김소윤 01			△정인상 27	
	◆법대 △강용식 58	△김남근 82		◆FNP △이명춘 03	
	△김동수 82	△김부찬 74	△김성근 77	◆AWASB △한치영 02	
	△김태범 81	△김형두 84	△박윤춘 55	◆AHP △장경미 05	
	△변재상 82	△신영수 70	△이대승 98	◆AIC △박종렬 03	△최인환 34
	△이영주 58	△이준기 86	△이철진 96		
	△임종훈 73	△정구환 73	△정승민 95		
	△조복행 73	△조지만 90	△최재혁 88		
	◆사대 △강하구 68	△김종훈 79			
	△민진호 87	△이경복 69	△이광범 92		
	△이명선 58	△이용재 59	△정해자 61		
	◆상대 △김기현 61	△서승원 63			
	△유재홍 68	△정관섭 57	△최남식 59		
	◆생활대 △송기철 95				
	◆수의대 △남기용 74	△양기수 63			
	△오화균 88	△이상인 82	△임정수 64		
	◆약대 △김중화 75	△이세영 57			
	△이진규 79	△이천학 71			
	◆음대 △강낙영 67	△김홍식 73			
	△백병동 55	△윤완숙 62	△이슬솔 95		
	△이오규 70				
	◆의대 △권오중 73	△김남원 78			
	△김재윤 79	△박호진 72	△장성근 73		
	△차용준 99				
	◆치대 △곽성순 81	△김경원 70			
	△이경우 71	△이관우 91	△임순모 70		
	◆대학원 △박영득 82				
	◆행대원 △김기우 82졸				
	◆한대원 △박경자 76	△최강림 90			
	◆AMP △김구섭 66	△박강수 89			
	△이휴원 68	△일경대 84	△홍기호 47		
	◆AIP △고순란 47	△박몽식 16			
	△이종대 06	△주영현 12			
	◆ACAD △유현규 74	△이창길 58			

2023년 단대별 누적 회비납부현황

총 6867명 *12월 23일 현재

△안영배 51	△안준영 52	△유현재 13	△이경일 94		△현해리 미대 08	1000만원 (1000만원)
△윤진하 16	△이경식 89	△이광호 84	◆AIP △강한구 65	△박종철 66	△김기선 문리대 63	500만원 (1500만원)
△이승철 93	△이시우 85	△이우철 52	△한상완 66	△황차동 66	△손경희 HPM 39	500만원 (5800만원)
△이우현 52	△이원세 71	△이준범 17	◆ACAD △김은희 96	△김정윤 69	△최성순 AIP 61	500만원 (1000만원)
△이한솔 09	△임주희 19	△전주영 18	△김홍재 93	△오복용 51	△정 훈 78	200만원 (1200만원)
△전준식 06	△정숙철 58	△조두산 03	◆SGS △윤성진 40			
△조수민 21	△지성희 72	△천소연 01	◆APC △배성준 03	△이종대 20		
◆농생대 △김영권 81	△김 현 58		△조희원 14			
△박종문 64	△오상수 67	△우정식 53	◆HPM △한상섭 12			
△이정환 58	△이종석 64	△정규희 59	◆AFB △조일현 17			
△홍영기 81	△신동혁 12	△양애미 16	◆ALP △서재홍 24			
△오솔잎 19	△유형재 19	△이정훈 10	◆SPARC △황 철 07			
△정현정 18	△지세민 17	△최해선 18	◆BCP △윤여승 07			
◆문리대 △서지원 70	△오봉환 61		◆KFL △김석우 10			
△유일현 59	△윤홍로 60졸	△조성호 64	◆AWASB △박한준 01			
△최 완 71			△오교 교수 △이호영			
◆미대 △김민호 16	△김용진 79					
△김지열 56	△김현정 08	△노정연 20				
△박해령 74	△안준환 07	△윤형준 16				
△이동영 76	△이현아 04	△최희원 16				
◆법대 △곽중수 60	△서동희 80					
△손화정 02	△이경복 94	△이권호 96				
△이성준 04	△임성근 82	△임수민 00				
△정상조 78	△정지혜 04	△조승우 94				
△최 흙 86						
◆사대 △강남주 14	△권하진 18					
△김경철 60	△김수연 10	△김중호 60				
△류윤지 04	△박영남 71	△박재민 02				
△박정일 60	△서지연 96	△오선영 91				
△이수창 03	△이승학 87	△최영림 68				
△태운의 94	△한성민 18					
◆상대 △강웅식 58	△백운생 62					
△이정권 57	△정형배 64	△이장현 08				
◆생활대 △김경미 80	△이장현 08					
◆수의대 △김준섭 55	△홍성근 76					
◆약대 △김영길 61졸	△류한호 60					
△조소희 87						
◆음대 △곽연희 01	△김기홍 80					
△김신영 95	△문용재 03	△박소은 19				
△박일후 79	△서은영 80	△성기훈 76				
△정기열 00						
◆의대 △권영현 74	△박주용 15					
△서지연 04	△서창석 79	△이상윤 96				
△장종범 90	△조수창 04	△차승근 05				
◆자유전공 △윤지영 18						
◆치대 △김승호 85	△은세원 81					
△이범의 95	△이정원 21	△이호상 91				
◆대학원 △김철범 89						
◆경전원 △임서연 21						
◆교대원 △김충기 64						
◆국대원 △유현준 21	△이찬희 21					
△최영재 21						
◆보대원 △김문록 94	△최지원 18					
◆치대원 △이창민 10						
◆행대원 △권도윤 18						
◆한대원 △류정환 21	△박예진 20					
△박준배 77	△우광준 21					
◆융대원 △황승환 20						
◆AMP △강기태 95	△성하룡 32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11.24.-12.23.
출کر임데이

10만원

◆공대 △강호순 68졸	△전병규 06
◆농생대 △김형중 69	△윤석용 74
◆문리대 △주섭일 57	
◆미대 △김사라 04	
◆법대 △김진익 55	△이수영 64
△최동섭 55	△황의만 70
◆사대 △김동근 07	△유영주 57
◆생활대 △고영숙 70	
◆약대 △문경운 55	
◆음대 △김진취 05	
◆의대 △여예스21 86	△홍해걸 85
◆대학원 △장경찬 78	
◆보대원 △표경식 97	
◆ACAD △최상철 36	
◆SGS △오원복 06	
◆HPM △유박영 30	△허정근 09
◆SPARC △송호순 06	
◆ASP △이상조 11	
◆FNP △김윤근 12	
◆AWASB △조정재 03	

특별후원

1000만원

△김주일 GLP 43	
-------------	--

15만원

△강신혁 문리대 66	
-------------	--

10만원

△정귀열 AMP 59	△이원복 공대 66
-------------	------------

관악회 기부금
12.1~12.31/당월금액(누계금액)

△이승준 공대 56-이청원 공대 62-이승익 공대 69 5억원 (5억5000만원)	
△김익모 AIP 23 1억원 (1억100만원)	
△김흥기 농대 61 1억원 (1억원)	
△강박수 상대 62 3000만원 (3000만원)	
△호월송암재단 1500만원 (2억2500만원)	
△이병훈 경영대 81 1200만원 (7000만원)	
△김규봉 미대 88 1004만원 (1004만원)	
△박수산 법대 75 1000만원 (2000만원)	
△최재호 공대 75-염미령 의대 80 1000만원 (2000만원)	

1 듀오 결혼정보업계 1위
(2022년 매출액 기준)

대표이사 박수경 [84入 소비자학과]

결혼해듀오

웃음이 닳아서
말이 필요 없는 사이

한국대표
결혼정보회사 듀오
**1577
8333**

결혼정보업계 매출액 1위 | 성혼수 48,220명 | 전문직 5,611명
(2022년 매출액 기준) (2024년 1월 8일 기준) (2023년 12월 회원현황 기준)

결혼중개업 신고번호 : 강남 080031

서울대 나와서 대리운전 합니다

추억의 창



김경섭
조소99-04
미술작가·에세이스트

미대 조소과를 2004년에 졸업했다. 현재 미술작가이고 그동안 개인전을 11번 했다. 얼마 전 ‘미친놈 예술가 사기꾼’이라는 책을 출간하기도 했다. 현대미술이 어려운 이유를 귀신같이 파헤치는 책이라고 자평하며(타평도 있음) 홍보하고 있다. 그리고 3개월 전서부터는 부업으로 대리운전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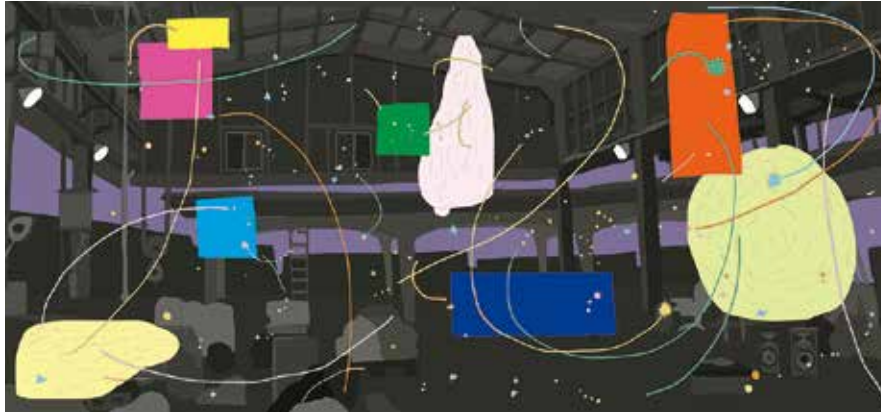
처음에 이 일을 시작할 때 많은 저항이 있었다. 주변에서 말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야야 빨리 해라...” “그저라도 하는 게 낫지!”...거의 뭐 이런 생각들이지 않았을까? 저항이 있었다면 구 할 이상은 나의 내면의 저항이었을 것이다. 뭐라도 돈 되는 일을 해야 하는데, 능력없는 자의 특권의식이 발목을 잡았던 것이다. 하지만 내가 지금 입맛에 맞는 반찬 투정하고 있으면 밥주걱 귀싸대기가 날 아올 판이었다.

대학 시절을 떠올려 본다.

철없던 학창시절 학교를 함께 다니며 동문의 우월감과 자부심 스민 눈빛을, 애써 숨기는 뿌듯한 미소 속에 교환했던 동기 형이 있다. 작업하는 척하다가 역시나 눈 맞으면 허구한 날 석조장에서 돌판에 삼겹살을 구웠다. 술 먹다 말고 그 형이 스피커를 가져와 분위기 죽이는 음악을 틀었다. 으음... 이 음악에는 돌판 사이로 기름 뚝뚝 떨어지는 삼겹살보다는 조각이 더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쌈 입안에 가득 구겨 넣고 소주한 잔으로 퍼떡함을 희석시킨 후에 일어나 건물건들 걸어가서 작업 앞에 섰다.

노란 할로겐등의 조명을 받으며 자세를 잡으면, 술도 취했겠다 예술을 하는 내 모습이 멋지게 느껴졌다. 공부만 하느라 낭만을 모르는 것 같은 타 대학 학우들에게 좀 재미나게 살자고 말하고 싶었고, 웬지 예술가의 멋을 동경할 것 같은 아리따운 순수 여대생이 내 모습을 한번 봐주었으면 하고 바란 적도 있는 것 같다. 미대 옆 석조장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학교 안에서 항상 취해서 눈이 풀려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혀를 차고 한심하게 생각했겠지만, 나는



일러스트 김나은(디자인17-23) 그래픽 디자이너

혼자 그 모습이 괜찮다고 생각했다. 가장 순진하고 순수했던 나날들이었으니까.

만약에 그 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살 것인가? 음 글썬... 게으름을 반성하고 좀 더 열심히 살아보려 노력은 해 보겠지만, 가슴 시린 추억들까지 다 도려내기는 싫다. 어차피 불가능한 가정일 뿐인데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허세라도 부리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렇게 서울대 뿔에 취해 우리의 밝은 미래를 함께 기대했던 동기 형은, 내가 대리운전을 하게 됐다며 우울해 하자

자기 친구 중에 돈 잘 벌고 잘 나가는 어떤 친구도 부업으로 한다며 나를 위로 해주었다.

열심히 사시는 대리기사님들의 일을 희화화할 생각이 전혀 없고 그 일을 무시하는 것도 분명히 아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당당하러 애쓰지만 저 깊은 밑바닥에 남아 있는 부끄러움과 자괴감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 이 모순과 위선을 나로서는 어떻게 완벽히 해결할 수가 없다.

만약 세상이 나에게 다른 일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죽기 전까지 그냥 하는 수밖에. 하지만 그래도 나는 본업인 미술

작업을 하고 싶다. 아니면 이렇게 글쓰기라도...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움츠리고 숨는 것보다는, 스토리화 시키고 드러내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매우 부끄럽다. 이것은 작가라는 직업이 갖는 태생적 모순이다. 부끄럽지만, 별거벗고 단 위에 올라가 나를 팔아야 하는 일.

술을 일하기 싫지만 해야 하는 저녁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글을 뺏어야 한다.

인생 뭐 있나? 예술이 뭐 별건가?... 어차피 모두가 다 사라질 존재들이지 않나. 조선시대의 노비나 냉혈 주인의 마소로 태어나지 않았음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 그냥 사는 거지.

(지면의 제약상 뒷부분을 많이 생략했다. 총동창회 홈페이지에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 동문은 11회의 개인전과 40여 회의 단체전을 연 전업 작가다. 직업 예술가로서 예술이 무엇이며, 무엇을 위해 이 일을 하는지 항상 고민하고 답을 찾아왔다. 최근 첫 책 ‘미친놈 예술가 사기꾼’을 펴냈다. 유튜브 채널 ‘서울대 나온 대리기사의 삶은 예술’을 운영하고 있다.

과학·공학 10가지 도전적 질문 ④

인과관계를 완전히 추론하는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을까?

김용대 (계산통계86-91) 모교 통계학과 교수
윤성로 (전기정보92-96) 모교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대답과 함께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면, 인공지능을 믿고 쓸 수 없다.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은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지만, 현재의 인공지능 패러다임 하에서는 인과관계를 추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인간이 납득할 수 있는 인과관계를 추론하고 제시할 수 있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을까?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들이 잇따라 출시됨과 동시에 이 모델들이 주는 정보의 신뢰성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다. 이전의 많은 인공지능 모델들은 주로 특정한 목적으로 개발된 제한적 환경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들을 주는 높은 성능의 모델들이었지만 최근의 생성형 인공지능들은 개방된 환경에서 보다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 발전의 사이에 대두되는 문제는 개방된 환경의 인공지능이 사실을 말하는가에 대한 팩트체크라 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인공지능의 정보 처리 과정(신경망)이 블랙박스화되어 있어 투입(input)과 산출(output) 간의 인과관계를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인공지능이 산출한 것이 진정 팩트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더욱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인공지능이 제시하는 그럴듯한 거짓말(hallucination)을 사실로 오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개방된 환경 내 인공지능을 믿고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이 왜 이런 답을 내놓았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만

해롭지 않은 인공지능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설명 가능성의 문제는 인공지능이 성능에 집중하여 발전되어온 탓에 그 신경망이 너무나 복잡해지면서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우리가 신뢰 가능한 인공지능에 초점을 두고 설명 가능성에 집중한다면, 인공지능의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자면, 인공지능의 성능과 설명 가능성 간에는 분명한 상충관계가 있으며, 이것이 인공지능에서 제기되는 근본적인 난제다. 개방된 환경에서 인공지능이 활용되기 시작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유용한 인공지능을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성능이 떨어지지 않으면서도 인공지능이 내놓은 결과의 이유를 설명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인간은 추상화 능력을 통해 인과관계를 파악한다. 즉, 다양한 개별 사건들의 경험을 추상화하고 공통점을 발견하여 이를 인과관계로 인지한다. 예를 들면, 인간은 라면을 먹기 위해 끓이는 물과 커피를 마시기 위해 끓이는 물을 모두 뜨거운 물로 인식하고, 뜨거운 물이 손에 닿으면 아픈 것을 인식한다. 라면을 먹기 위해 끓인 물에 손이 데었을 때, 라면 때문이 아니라 물 때문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있다. 이러한 추상화 능력이 없는 인공지능은 라면 물에 손이 데었을 때, 라면 때문에 데인 것인지 물 때문에 데인 것인지 판단하지 못한다. 인공지능은 그저 라면을 끓이다 손이 냄비에 들어가면 손이 아프다는 신호를 출력할 뿐이다. 인공지능이 인간과 진정으로 소통하기 위해서는 추상화 능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현재 블랙박스 모형의 복잡한 인공지능 모형의 구조를 설명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한

모교 국가미래전략원의 ‘과학과 기술의 미래 클러스터’(클러스터장 이정동)에서 최근 ‘그랜드 퀘스트 2024’(포르체)를 펴냈습니다. 이정동 클러스터장은 “도전적 질문(Grand Quest)이 진정한 혁신의 출발점”이라고 말합니다. 10개의 도전적 질문을 통해 최신 과학·공학의 이슈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서울대총동창신문에서 10회에 걸쳐 그 내용을 전합니다.

—편집자 주



Grand Quests 연재 순서

- 1.집적회로기반 양자컴퓨팅
- 2.프라이버시 기반 인공지능
- 3.효소모방 촉매
- 4.추론하는 인공지능
- 5.체화 인지구조 인공지능
- 6.인공지능 기반 항체설계
- 7.노화의 과학
- 8.초미세/초저전력 반도체
- 9.환경적응적 로봇
- 10.초경량 배터리

다. 즉, 왜 이런 출력이 나왔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의 제한적 환경 내에서 전문가들이 활용하는 인공지능의 설명 가능성 문제는 여러 조건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가까운 미래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위의 물 끓이기와 같은 개

방된 환경은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블랙박스도 그에 따라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방된 환경의 설명 가능성 문제를 풀기는 너무나 어렵다. 특히 인과관계의 추론을 추상화된 상황에서 시작하는 인간의 신경망을 모방하여 인공지능이 인간과 비슷하게 인과 추론을 하기 위해서는 블랙박스가 더 거대해지고 복잡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방된 환경 내 설명 가능성 문제의 해결 방안을 찾기는 더욱 어렵다.

인공지능의 설명 가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다방면으로 진행되고 있다. 복잡하면서도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으로는 SEN-N(Self explaining neural networks), 프로토타입 네트워크(Prototype networks) 등이 있다. 제일 쉬운 방법은 설명이 가능한 모형을 구축하여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때 활용되는 설명 가능한 모형 자체가 단순해야 하기 때문에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 이에 따라 복잡한 인공지능 모형을 설명 가능한 형태로 변환하는 방법들이 개발되고 있다. LIME, SHAPE 등이 이러한 종류의 알고리즘이며, 많은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도 복잡한 인공지능 모형의 일부분만 설명할 수 있을 뿐, 전체적인 작동 원리의 파악은 요원하다. 예를 들면, 채용 심사를 위한 인공지능에서 추천 지원자가 떨어진 이유를 설명한다고 하지만, 이러한 설명이 다른 지원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등장하고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의 난제를 풀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의 인과관계 추론 방식을 파악해야 한

다. 인공지능의 인과적 이유 설명 문제를 파고들어 튜링 상을 수상한 Judea Pearl의 고민으로부터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의 생각을 실제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인과 그래프(causal graph), 지식 그래프(knowledge graph)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인과 추론을 위한 대부분의 방법들은 암 진단과 같이 복잡도가 아주 높지 않은 문제에서는 유용하게 쓰이지만, 언어 모형과 같이 복잡도가 극히 높은 문제에서의 인과 추론 기법은 아직 개발되지 않고 있다. 기존의 인과 추론 방법의 복잡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아이디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인공지능의 블랙박스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현재,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기업의 채용에 있어 인공지능에게 서류심사를 맡기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논쟁이 있으며, 더욱이 인공지능 챗봇과 대화를 하다가 청소년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인공지능의 인과 추론 방식을 충분히 이해하여 정직한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단계가 되어야만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여 안전하고 유익한 방식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이 탄생한다면, 인공지능과 인간의 진정한 교감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 거대 언어 모형이 자신의 주장에 대해서 근거를 설명할 수 있다면, 인간과 토론도 가능할 것이고, 인간과 협력하여 새로운 지식의 창출도 가능할 것이다. 때문에 인공지능의 시작은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부터 시작될 것이라 조심스럽게 예측해 본다.

관악논단

선거의 해, 선택은 국민의 몫이다



김형오
외교67-71
전 국회의장

올해는 선거의 해다. 한국은 물론 미국 러시아 인도와 유럽 각국 등 전 세계 76개국 40억 명이 선거판에 휩싸인다 한다. 선거철만 되면 희망과 우려가 교차하지만 올해는 솔직히 걱정이 앞선다. 승자독식(勝者獨食 Winner takes All)의 게임 룰은 당선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만든다. 전체주의와 대중영합주의(포퓰리즘)는 선거철을 만나 민주주의의 탈을 쓰고 기승을 부린다. 전쟁과 테러, 보호무역주의와 세계 경제의 불황, 미·중 갈등과 국내 문제 우선 등 세계질서가 어떻게 변할지 궁금하다. 우리의 상황은 더욱 예사롭지 않다. 북한의 안보 위협까지 더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어떻게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나라의 미래를 이끌지 큰 지혜가 필요하다. 몇 가지 본질적인 문제점을 짚어본다.

더 이상 국민을 갈라치기 하지 말라

이번 선거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이다. 같은 언어·문화· 역사를 공유하며 수 천년을 함께 살아온 한 민족끼리 이렇게 갈등하고 분열하는 곳이 또 있을까.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면 설득과 타협을 해야지 왜 적(敵)처럼 제거 대상으로 삼는가. 국회에서도 소속 당이 다르면 대화가 없고, 같은 당에서도 계파가 다르면 밥도 먹지 않는 것이 요즘의 현실이다. 사실상 정치적 내전 상태다.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 역시 갈등과 분열의 연속이었다. 정부와 국회, 여당과 야당의 극한 대립은 이제 변수가 아닌 상수가 돼 버렸다. 국회를 장악한 야당은 입으로는 ‘협치’를 외치지만 속내는 ‘정권 흔들기’를 계속했고, 소수 여당은 안목과 용기 부족으로 국면을 제대로 타개하지 못했다. 여권에서 최후의 카드랄 수 있는 한동훈 비대위가 등장한 이유다. 야권도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 체제로 선거를 치를 수 있는 나로 시끄럽다. 새로운 정당들도 꿈을 댈다. 증오·분열·선동이 표를 얻는 가장 쉽고 확실하다는 낡은 생각을 벗어던져야 현 당이든 새 당이든 희망이 있으려면 현실은 반대로 간다. 선거를 치를 때마다 국민분열과 대결 증오로 촉발된 사회적 비용은 추산조차 힘들 정도다. 이 어긋난 국민 정서를 바로잡으려면 몇 배의 노력과 시간이 걸린다. 여야가 증오와 혐오의 정치를 넘어 화합·공존·공생의 정치로 언제쯤 가능할까.

나라와 여야의 운명이 걸려 있다

역대 어느 선거든 중요하지 않은 선거가 없지만 이번 선거는 특별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 선거에서 패배한 정당은 당의 기간을 내려야 한다. 야당이 승리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날부터 레임덕에 들어가게 된다. 걸핏하면 탄핵 카드를 꺼내 들었던 야당에 의해 임기를 다 못 채우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 반면 여당이 승리하면 정국은 안정되고 이재명

대표는 정치 생명이 끝나고 다른 야당이 민주당을 대체할 수도 있다. 대선 지선에 이어 이번 총선까지 연속 패배한 정당과 그 대표에게 과연 설 자리가 있겠는가. 이번 선거는 체제와 이념의 대결이기도 하다.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한미 동맹과 안보를 중시하는 세력과 평등·분배·국가개입을 우선하고 대북 유화론을 주장하는 세력 간의 대결이다. 또한 집권당 심판론과 또 다른 기득권인 86운동권 심판론이라는 기득권 구도의 대결이기도 하다. 소위 세력교체의 문(門)을 여는 선거다.

국회의 정상화가 시급하다

총선 때마다 매년 40~50%가 넘는 국회의원이 교체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그러나 아무리 물갈이를 해도 임기가 끝날 즈음이면 다시 대폭 갈아치워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는다. 왜 그런가. 물은 갈지 않고 물고기만 갈아치우기 때문이다. 국회의 제도와 운영, 관행과 사고방식을 획기적으로 뜯어고쳐야 이런 악

300명이나 두어 치열한 선거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 법률상 보장된 소신투표를 했다가는 정치생명이 끝나고 만다. 소수가 밀실에서 정한 당론으로 사사건건 밀어붙이는 나라는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도 드물다. 당론에 비판적이면 다음 공천은 보장받지 못한다. 미국 같은 대통령제를 취하면서 미국에는 없고 의원내각제 국가에만 있는 당대표·사무총장·대변인 등을 한국 정당은 두고 있다. 공천권을 비롯한 모든 권한은 정당(구체적으로는 당 대표와 실세 몇 명)이 행사하고 책임은 국회의원이 지는 이중적이고 무책임한 정당 우위 체제가 고쳐지지 않는 한 민주주의는 꽃피지 않는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이른바 ‘민주헌법’에 의해 5년 단임 대통령을 여덟 명 뽑았고 정권교체를 네 번 경험한 나라다. 외형적으로는 민주주의 선진국이지만 내실은 자꾸 비어만 간다. 대통령이 바뀌고 정권이 바뀔 수록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만



한국·미국·인도·러시아 등 76개국 선거 앞뒤

선거결과 따라 세계질서 재편…초미의 관심

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 그러나 지난 수십년간 국회는 ‘국회 개혁’은 입으로만 부르짖을 뿐 기본적인 ‘정상화’ 조치조차 하지 않았다. 자체 규제안도 의정활동 평가 기준도 없는 국회다. ‘특권 내려놓기’는 할 일 안 해도 관찮은 관행부터 뜯어고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불법비리 부도덕과 폭언 폭행 무례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 잘못된 행위에 대한 제재를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해야 한다.

또 회기 비회기를 나눠 걸핏하면 휴회하는 국회가 아니라, 국회 문은 항상 열려 있어 나랏일 제대로 해야 한다. 의견이 대립하고 사안이 중대할수록 시간 끌기 하다 열령뿔땅 해치워 버릴 게 아니라, 대화·토론·협상을 하는 회의체로 거듭나야 한다. 그런 의지와 능력을 갖춘 사람이 공천받고 선출되도록 해야 한다. 국회의원 윤리규정을 제대로 만들고 윤리위원회를 독립적 상설기관으로 해야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의원들이 정신을 차린다.

정당의 민주화가 중요하다

국회의원은 국가이익과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헌법46조). 그러나 과연 그런가. 주요 안전일수록 당 대당의 대결이 심해지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은 당의 대변인으로 전락한다. 그저 소속 정당이 시키는 대로만 한다면 굳이

은 오히려 높아져 왔다. 갈등·분열·대립과 진영논리가 판을 치고 ‘내로남불’이 영어사전에 등재될 정도다. 잘못된 정치인을 뽑았고 정치 구조를 바꾸지 못했기 때문이다. 요컨대 정치가 염치를 잃었다. 공동체에 대한 사랑은 커녕 ‘국민의 대표’라는 직분의 자존감마저 상실했다. 80% 이상의 제대로 된 정치인이 그렇지 않은 20%에게 휘둘리는 대한민국 국회다. 어떻게 해야 바른 정치인을 뽑고 국회의원이 일을 잘할 수 있을까. 국회의 정상화와 정당의 민주화 없이는 불가능한 현실이다.

선택과 판단, 결과는 국민의 몫이다

가장 냉철하고 이성적이며 과학적인 국민으로 흔히 독일인을 꼽는다. 그 국민들이 인류를 전쟁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던 희대의 독재자 히틀러를 배출했다. 그는 쿠데타가 아닌 선거라는 형식을 통해 집권했고 종신 총통으로 추대됐다. 1차대전 이후 세계 5대 부국에 속했던 아르헨티나, 6·25 전쟁 전후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잘 사는 민주주의 국가였던 필리핀을 보라. 오늘을 만든 것은 그런 지도자를 선택한 그 나라 국민이다. 세계적으로 어둡고 험한 파고가 몰아치는 가운데 나라의 명운이 걸린 선거를 치러야 한다. 우리에게 내일은, 희망은 있는가.

느티나무칼럼

박지원이 가난했던 나라



오정환
공법83-87
MBC국장
본지 논설위원

‘열하일기’는 조선 사회를 강타한 베스트셀러였다. 수많은 필사본이 나돌고, 신랄한 풍자와 새로운 문체에 대한 논쟁이 뜨거웠다. 그러나 저자인 박지원은 엽전 한 닢 받지 못했다. 책을 써 돈을 번다는 건 선비로서 상상도 할 수 없었다. 그가 극심한 빈곤에서 벗어난 것은 음식로 벼슬을 얻으면서부터였다. 다시 돌아갈 자신이 없어서였을까, 박지원은 고문

비슷한 시기 일본의 의사 스기타 겐파쿠가 어렵게 서양 해부학 책을 구입했다. 겐파쿠는 동료 두 명과 함께 번역에 도전했다. 네덜란드어를 몰랐던 그들은 먼저 그림에 나오는 명사를 특정한 뒤 형용사 동사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힘겹게 작업했다. 신경 연골 동맥 등 의학용어들이 이때 만들어졌다. 그렇게 나온 책이 ‘해체신서’였다.

그들이 해부학 책을 번역한 이유는 널리 병든 자를 구하려는 사명감이 전부는 아니었다. ‘해체신서’ 출판 1년 전인 1773년 일종의 홍보 전단지

인 ‘해체약도’를 찍어 배포했다. 일본에서는 18세기에 벌써 전국 서적 유통망과 저작권 개념이 등장했다. 그 결과 메이지유신 이전 일본의 문자해독률은 80%에 달했다.

지구 반대편 영국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졌다. 제임스 와트는 1769년 증기기관 개량법 특허를 얻었다. 선반기술 부족으로 실용화에 어려움을 겪는 동안 의회가 특허 기간을 15년이나 연장해주었다. 와트는 각지의 광산에 증기기관을 설치한 뒤 증산량의 3분의 1을 받아 거부가 되었다. 영국은 명예혁명 이후 개인 재산권의 일환으로 특허권을 보장했다. 그 러자 유럽 각국의 기술자들이 성공의 (古文)을 쓰라는 꿈을 안고 몰려들었다. 그것이 산업혁명의 중요한 원동력이었다.

다시 현대로 돌아와 2023년 12월 일본에서 ‘이제는 한국 드라마를 배우자’는 주제로 한일 제작자 컨퍼런스가 열렸다. 영화 ‘도쿄타워’의 감독 미나모토 다카시는 이렇게 말했다. “한국의 제작자들은 상승지향적이고 성공하고 싶다는 욕구가 있다. 일본의 젊은이들은 그런 활기가 없다.”

경쟁 의지를 없앤 유토리 교육의 후유증인지 잃어버린 30년 동안 노력할 수록 더 실패한 경험 탓인지 몰라도, 일본인들의 무력감은 모든 영역에서 발견된다. 이를 반면교사 삼아서라도, 우리 안의 도전정신이 꺼지지 않도록 고양해 나가야 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눈앞에 와 있다.

삼익문화재단과 함께하는

오페라 하우스

Samick Opera House

2024년 1월 ~ 3월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일자	작곡가(연주자)	제목(내용)	장르 러닝 타임
1/3	시무식	12시 프라움 음악박물관콘서트	야외 콘서트 (덕소 소재)
1/10	비엔나 필하모니카	Neujahrskonzert 신년음악회	콘서트 118분
1/17	몬테베르디	율리시스의 귀환	오페라 165분
1/24	모차르트	마술피리	오페라 150분
1/31	벨리니	노르마	오페라 154분
2/7	로시니	세비아의 이발사	오페라 155분
2/14	최홍식 교수	11시 목소리 건강관리	특강 120분
2/21	도니제티	람베르투어의 루치아	오페라 137분
2/28	베르디	아틸라	오페라 118분
3/6	푸치니	토스카	오페라 123분
3/13	케루비니	메데아	오페라 140분
3/20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엘렉트라	오페라 108분
3/27	이강훈 교수	11시 건강한 집(방과 마당)	특강 120분

* 무료 상영, 다과비 별도 (분기 10만 원, 월 4만 원, 또는 회당 14,000원)

* 사전 예약 문의 : 010-5290-0273 박용대 관장

*** 사정에 따라 프로그램 · 시간 · 장소 변경 가능

삼익문화재단 Samick Foundation of Arts & Culture 삼익아트홀 Samick Art Hall (7호선 학동역 6번출구 50m 삼익익기빌딩 3층)

서울대 총동창신문

발행인 김종섭	편집인 이경형	편집장 김남주	기자 나경태·박수진
주소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 연구공원 416호			
전화 02-702-2233		팩스 02-886-2218	이메일 news@snu.ac.kr
편집디자인 Sac design		인쇄 중앙일보	
*칼럼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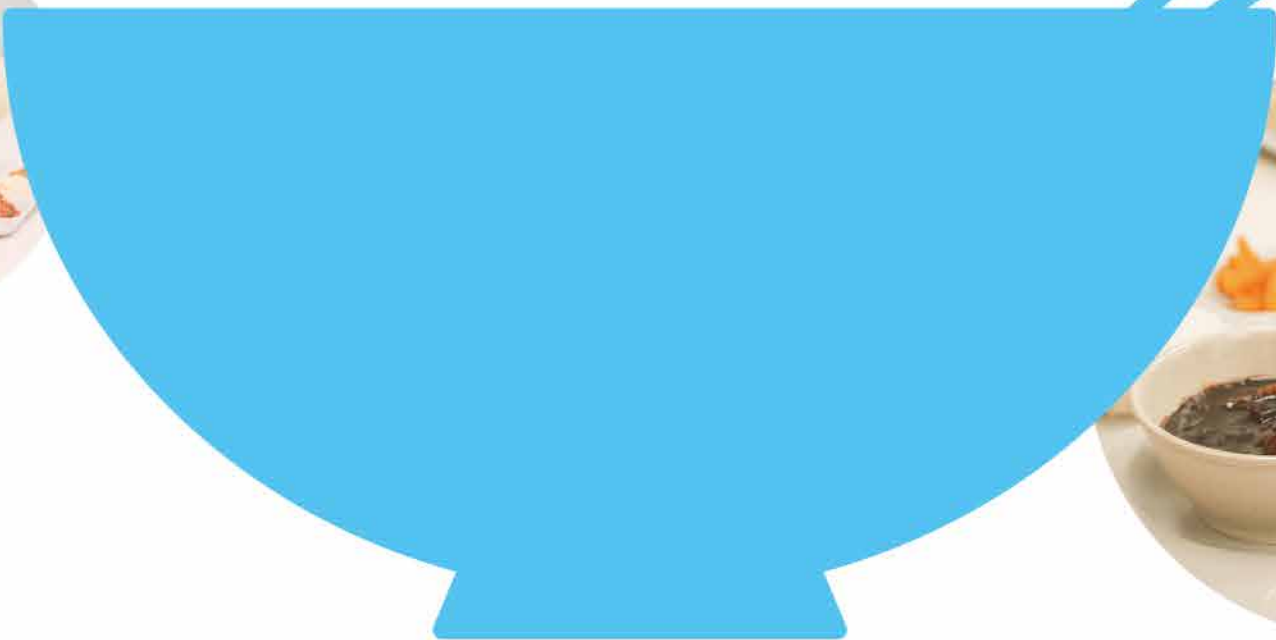
서울대학교발전재단 '천원의 식사' 모금 사업

누군가를 위한 마음을 전해보세요

'천원의 식사' 모금 사업은 학생들이 한 끼 1,000원으로 경제적 부담 없이 식사를 해결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금 사업입니다.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마음을 채우고
내일을 채우는
천원의*식사



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1 서울대학교연구공원본관(940동) 2층
TEL. 02. 871. 8004 FAX. 02. 872. 4149 Email. snuf@snu.ac.kr
→ 온라인 후원하기: snu.or.kr/1000won